보험동향 2020년 가을호

총괄	김세중 (연구위원)
경영환경	박은빈 (연구원) 김유미 (연구원) 김혜란 (연구원)
보험동향	최 원 (수석연구원) 김혜란 (연구원) 김유미 (연구원)

KiRi 보험연구원
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

■목차

Ⅰ. 경영환경

1. 경제 / 2
2. 금융 / 11
3. 자금흐름 / 19
4. 규제·제도 / 22

Ⅱ. 보험동향

1. 성장성 / 25
2. 수익성 / 49
3. 리스크 / 59
4. 시장경쟁 / 67

Ⅰ. 경영환경

□ 2020년 상반기 전 세계적인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세계 경기가 둔화되고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음

○ 특히 세계 무역규모 증가율과 산업생산 증가율이 2분기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세계 경기가 수축하는 모습을 보임

□ 우리나라도 2020년 2/4분기 경제성장률이 큰 폭으로 하락하여, 2분기 연속 하락을 기록함

○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2020년 2/4분기 수출입 증가율 등 주요 지표가 전분기에 이어 크게 하락함

○ 국내외 주요 기관들은 2020년 우리나라 경제가 역성장을 기록한 후, 2021년 경기 회복이 제한된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함

□ 한국은행은 국내경제의 회복세가 더디고 물가상승 압력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0.5%로 동결함

○ 한국은행은 국내경제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고 중기적으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임

□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 및 채권공급 확대 등의 영향으로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는 60bp대에서 박스권 등락을 반복하고 있음

○ 신용스프레드는 회사채와 기업어음(CP), 전자단기사채 발행규모가 확대되고 금리 메리트에 따른 수요 유입의 영향으로 꾸준히 하락세를 보임

□ 2020년 2/4분기 가계부문의 현금 및 예금 거래는 축소된 반면, 보험 및 연금, 채권, 국내외 주식, 투자펀드 거래는 증가함

○ 보험 및 연금 거래 비중은 2020년 1/4분기 13.3%로 10년 내 최저치를 기록한 후 2/4분기에 반등하여 15.1%를 기록함

1. 경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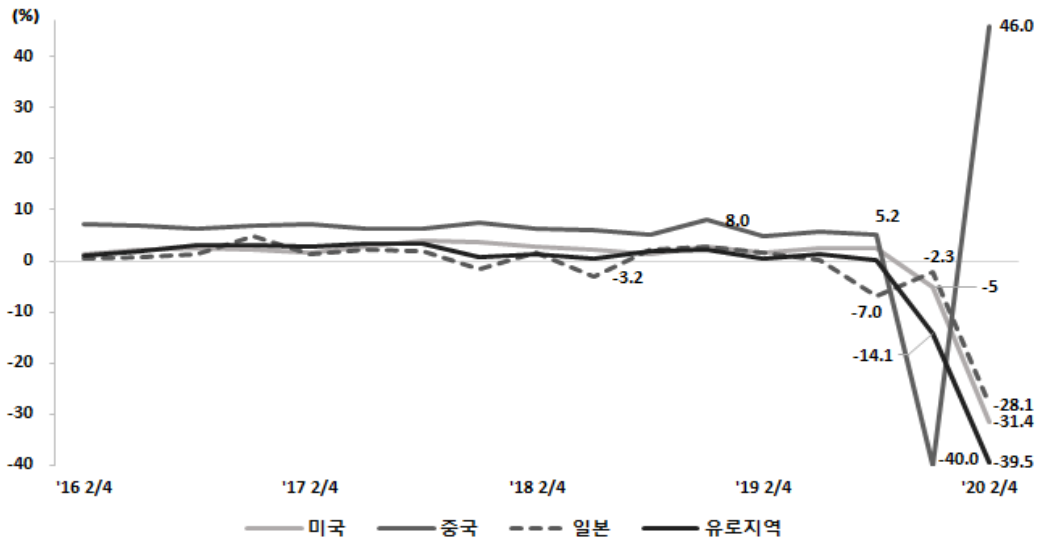
가. 세계경제

■ 2020년 2/4분기 미국, 일본, 유로지역의 경제성장률은 큰 폭으로 하락한 가운데, 중국은 빠른 경제 회복으로 높은 성장률을 나타냄

○ 2020년 2/4분기 미국, 일본, 유로지역의 연율화된 전분기 대비 경제성장률은 각각 -31.4%, -28.1%, -39.5%로, 전분기에 비해 각각 26.4%p, 25.8%p, 25.4%p 하락함. 미국과 유로지역은 2분기 연속 역성장하였고, 일본은 3분기 연속 역성장함

○ 중국의 2/4분기 연율화된 전분기 대비 경제성장률은 46.0%로, 전분기에 비해 86.0%p 상승함

〈그림 1〉 주요국 경제성장률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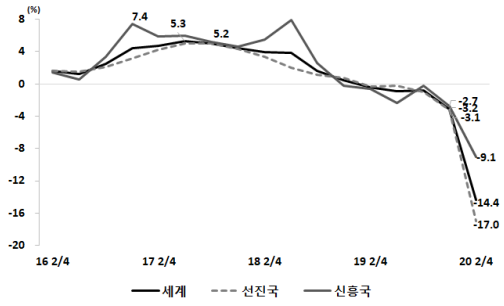
주: 연율화된 전분기 대비 증가율, 계절조정임
자료: Bureau of Economic Analysis(2020. 11); 중국 국가통계국(2020. 11); 일본 내각부(2020. 11); Eurostat(2020. 11)

■ 2020년 2/4분기 세계 무역규모 증가율과 산업생산 증가율은 각각 큰 폭으로 하락하여, 2분기 연속 급격한 하락을 보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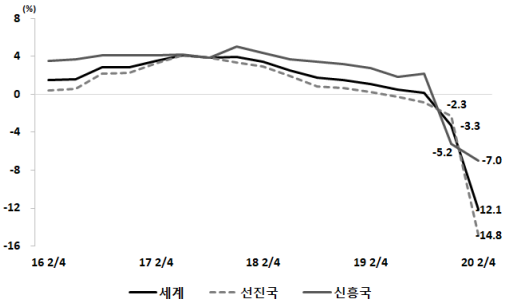
○ 2020년 2/4분기 선진국 무역규모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13.8%p 하락한 -17.0%를 기록하였고, 신흥국 무역규모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6.4%p 하락한 -9.1%를 기록함

○ 2020년 2/4분기 선진국 산업생산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12.5%p 하락한 -14.8%를 기록하였고, 신흥국 산업생산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1.8%p 하락한 -7.0%를 기록함

〈그림 2〉 세계 무역규모 증가율



〈그림 3〉 세계 산업생산 증가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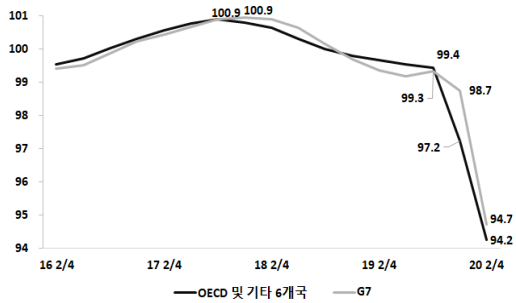
주: 전년 동기 대비임
자료: CPB Netherlands Bureau for Economic Policy Analysis(2020. 10)

■ 세계 경기선행지수[1]는 2020년 2/4분기 94.2를 기록하며, 전분기에 이어 대폭 하락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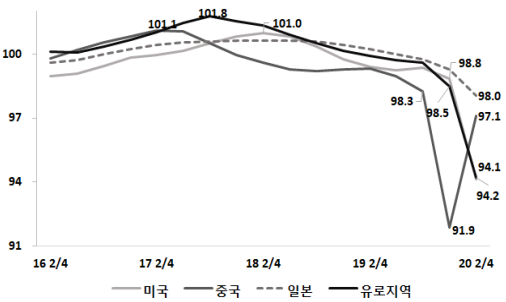
○ 2020년 2/4분기 G7의 경기선행지수는 94.7로 전분기보다 4.0 하락하였고, 미국과 유로지역, 일본은 전분기보다 각각 4.7, 4.3, 1.3 하락한 94.1, 94.2, 98.0을 기록함

○ 2020년 2/4분기 중국의 경기선행지수는 전분기보다 5.2 상승한 97.1로, 전분기에서 최저점을 기록한 후 반등함

〈그림 4〉 세계 경기선행지수



〈그림 5〉 주요국 경기선행지수



주: 1) 월간자료를 3개월 단순평균하여 산출함
2) 기타 6개국은 브라질, 중국, 인도, 인도네시아, 러시아, 남아프리카공화국임
자료: OECD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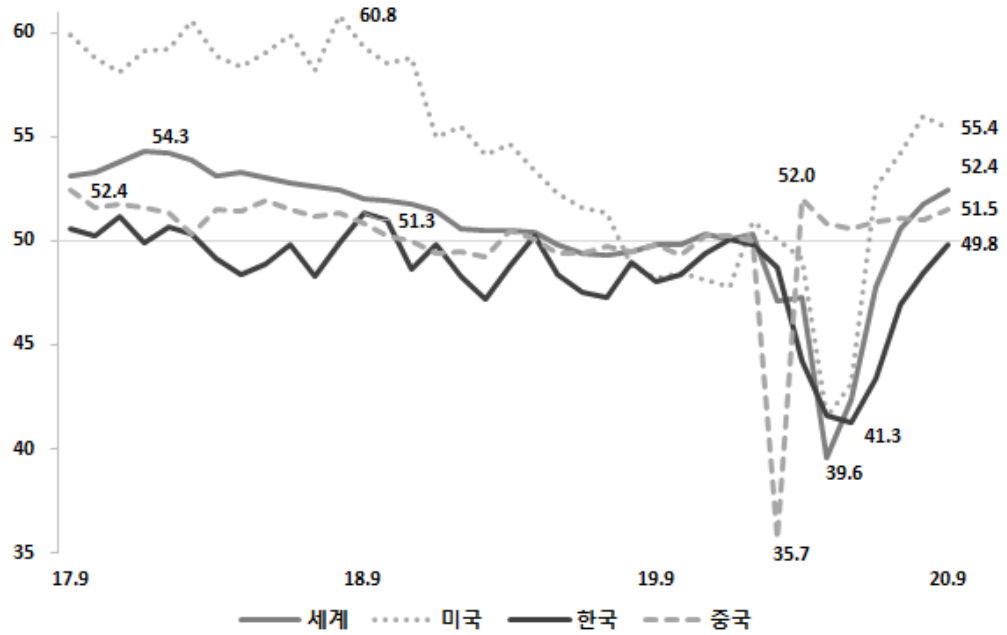
1) 경기흐름을 가늠하는 지표로, 100을 기준으로 지수가 올라가면 경기상승, 내려가면 경기하강을 의미함

■ 글로벌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(PMI)[2]는 2020년 4월, 11년 내 최저치를 기록한 후 5개월 연속 반등함

○ 2020년 9월 글로벌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(PMI)는 52.4로, 2020년 4월 39.6을 기록한 후 5개월 연속 상승함

○ 2020년 9월 주요국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(PMI)는 미국 55.4, 중국 51.5, 한국 49.8로, 각각 4월, 2월, 5월 최저치를 기록한 후 모두 반등함

〈그림 6〉 제조업 PMI



주: 전분기 대비, 3개월 이동평균임
자료: Bloomberg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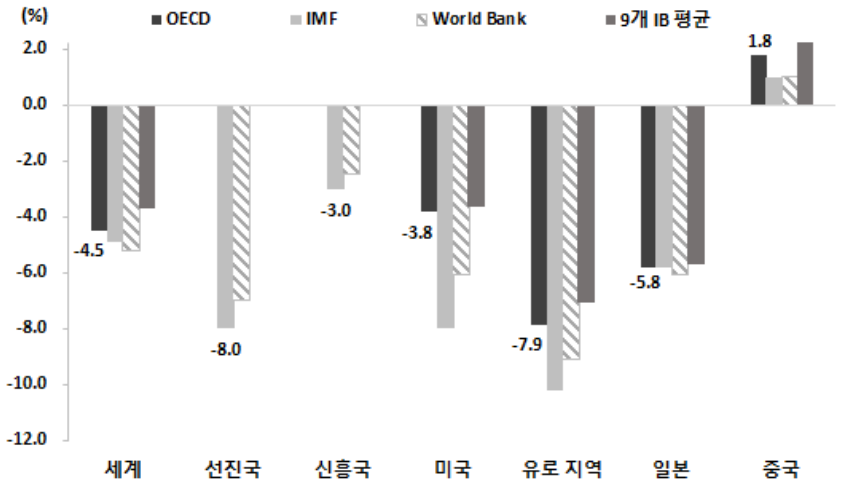
■ 주요 기관들은 2020년 상반기 경제위축에 대한 각국 정부의 대규모 정책 대응과 중국의 기대 이상의 회복을 고려하여, 2020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함

○ OECD는 봉쇄조치가 완화되고 시장 활동이 재개되면서 세계 경제성장률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, 2020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-6.0%에서 -4.5%로 상향 조정함[3]

2) PMI(Purchasing Managers' Index)를 구성하는 요인은 생산, 신규주문, 수출주문, 취업, 부품구매, 주문잔고, 납품업체 배송, 재고 등 11개 항목임

3) OECD(2020. 9), *Economic Outlook, Interim Report*

〈그림 7〉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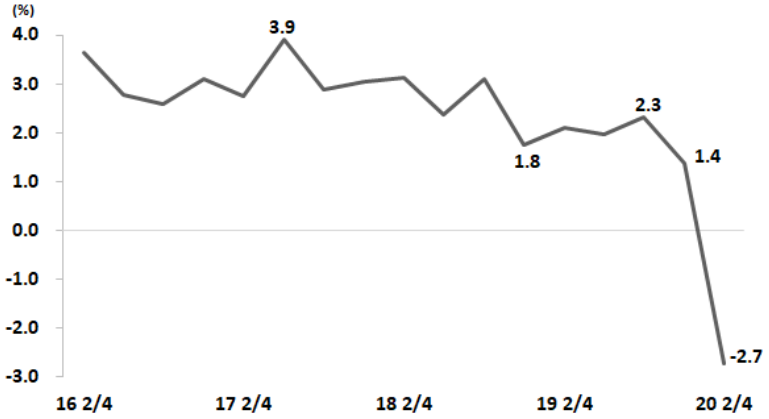
자료: IMF(2020. 6); OECD(2020. 9); World Bank(2020. 6); 9개 IB 평균(2020. 9)

나. 국내경제

■ 2020년 2/4분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-2.7%로 전분기 대비 4.1%p 감소함

○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국내 수출입이 크게 하락하면서 2020년 2/4분기 전년 동기 대비 경제성장률 감소에 영향을 미침

〈그림 8〉 국내 경제성장률



주: 원계열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임
자료: 한국은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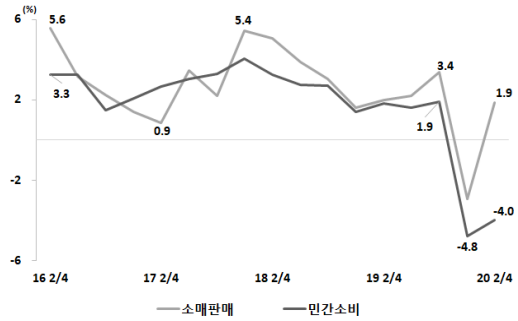
■ 2020년 2/4분기 민간소비 및 소매판매 증가율은 전분기 하락 후 반등하였고, 소비자심리지수는 전분기에 이어 큰 폭으로 하락함

○ 2020년 2/4분기 민간소비 증가율과 소매판매 증가율은 각각 -4.0%, 1.9%를 기록함

○ 2020년 2/4분기 소비자심리지수는 전분기보다 16.5 하락한 76.7을 기록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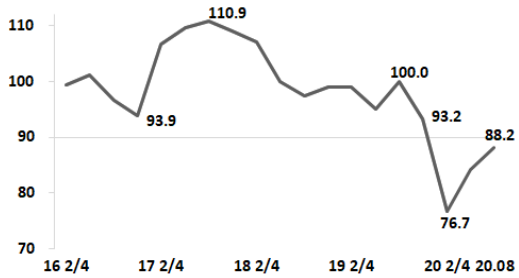
○ 2020년 7월과 8월 소비자심리지수는 각각 84.2, 88.2를 기록함

〈그림 9〉 민간소비와 소매판매 증가율



주: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임
자료: 한국은행; 통계청

〈그림 10〉 소비자심리지수



주: 월간자료를 3개월 단순평균하여 산출함
자료: 한국은행

■ 2020년 2/4분기 설비투자 증가율과 건설투자 증가율은 하락하고, 지식생산물투자 증가율은 상승함

○ 2020년 2/4분기 설비투자 증가율과 건설투자 증가율은 전분기 대비 각각 3.3%p, 4.3%p 하락하여 각각 4.0%, -0.1%를 기록하였으며, 지식생산물투자 증가율은 전분기 대비 1.7%p 상승하여 4.1%를 기록함

- 설비투자 증가율은 5월 중 선박 등 운송장비, 정밀기기 등 기계류를 중심으로[4] 하락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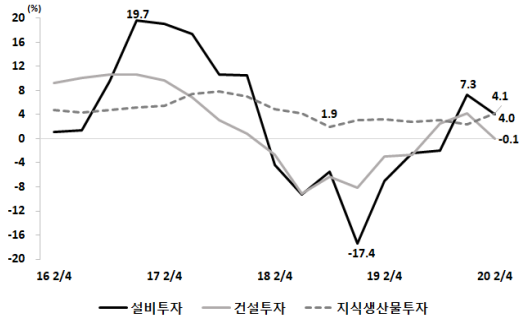
○ 2020년 2/4분기 기계수주 증가율은 전분기 대비 15.5%p 하락하여 1.1%를 기록하였고, 건설수주 증가율은 전분기 대비 20.0%p 상승하여 21.7%를 기록함

- 기계수주 증가율은 5월 중 건설업 등 민간, 전기업 등 공공에서 감소하며[5] 하락함

- 건설수주 증가율은 5월과 6월 중 주택, 공장·창고 등 건축에서 증가하여[6] 상승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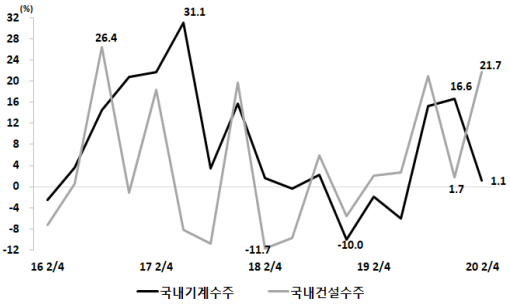
4) 통계청 보도자료(2020. 6), "2020년 5월 산업활동동향"
5) 통계청 보도자료(2020. 6), "2020년 5월 산업활동동향"
6) 통계청 보도자료(2020. 6), "2020년 5월 산업활동동향"; 통계청 보도자료(2020. 7), "2020년 6월 산업활동동향"

〈그림 11〉 건설투자, 설비투자, 지식생산물투자 증가율



주: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임
자료: 한국은행

〈그림 12〉 기계수주,[1] 건설수주[2] 증가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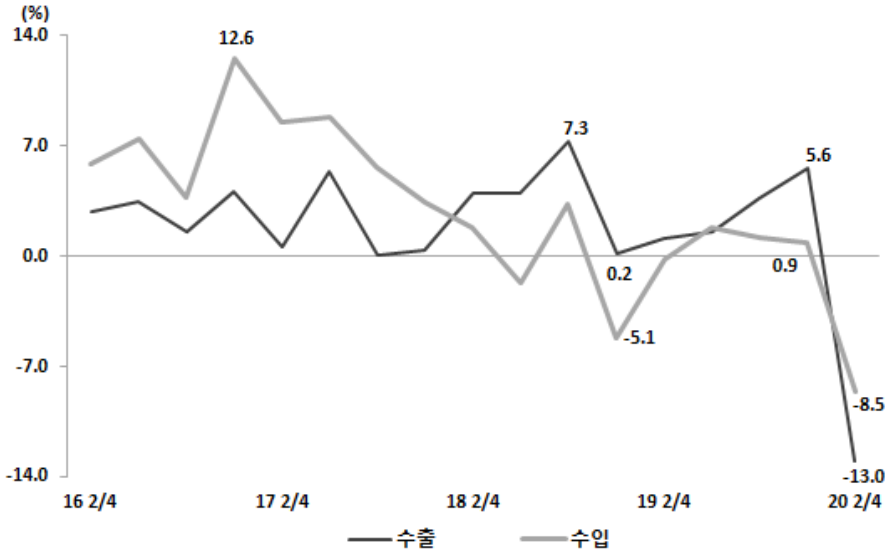


주: 1) 선박은 제외함
2) 경상임
자료: 통계청

■ 2020년 2/4분기 수출입 증가율은 대폭 하락함

○ 2020년 2/4분기 수출 증가율은 전분기 대비 18.6%p 하락하여 -13.0%를 기록하였고, 수입 증가율은 9.4%p 하락하여 -8.5%를 기록함

〈그림 13〉 수출입 증가율



주: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임
자료: 한국은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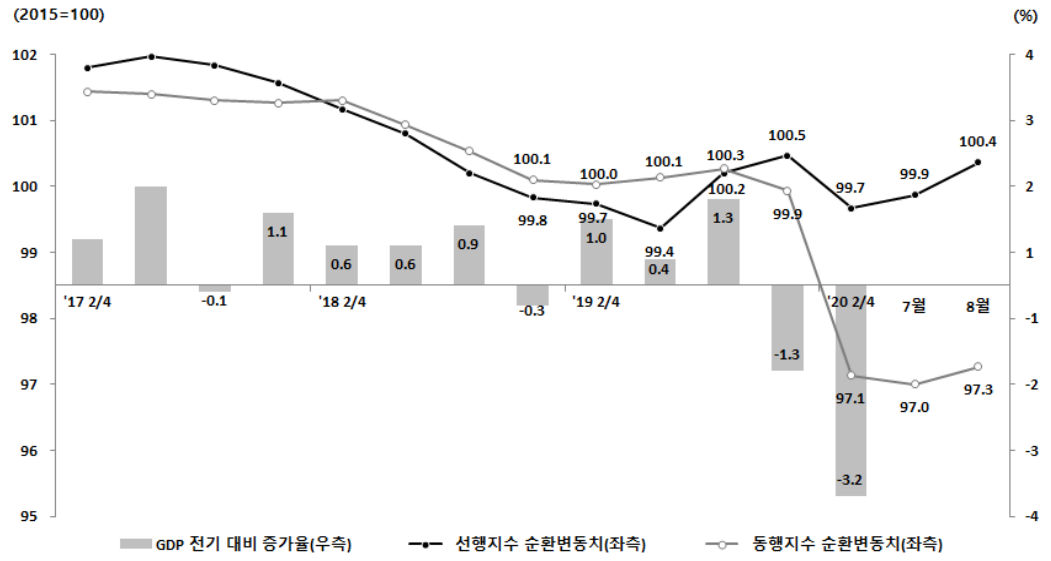
■ 2020년 2/4분기 경제성장률, 선행지수[7] 순환변동치, 동행지수[8] 순환변동치가 모두 하락하였으나, 2020년 7월과 8월에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와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상승하는 추세를 보임

○ 2020년 2/4분기 경기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2020년 4월과 5월 경제심리지수 등이 감소하여[9] 전분기보다 0.8 하락한 99.7을 기록함

○ 2020년 2/4분기 경기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2020년 4월과 5월 비농림어업 취업자 수, 서비스업생산지수, 광공업생산지수 등이 감소하여[10] 전분기보다 2.8 하락한 97.1을 기록함

○ 2020년 7월과 8월,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및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며,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7.0에서 97.3으로,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9.9에서 100.4로 각각 상승함

〈그림 14〉 GDP 증가율과 순환변동치



주: 2020년 7월과 8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잠정치임
자료: 한국은행; 통계청

7) 선행지수는 재고순환지표, 소비자기대지수, 건설수주액, 기계류내수출하지수, 수출입물가비율, 구인구직비율, 코스피지수, 장단기금리차 등 8개 지표를 종합하여 작성함

8) 동행지수는 광공업생산지수, 서비스업생산지수, 건설기성액, 소매판매액지수, 내수출하지수, 수입액, 비농림어업 취업자 수 등 7개 지표를 종합하여 작성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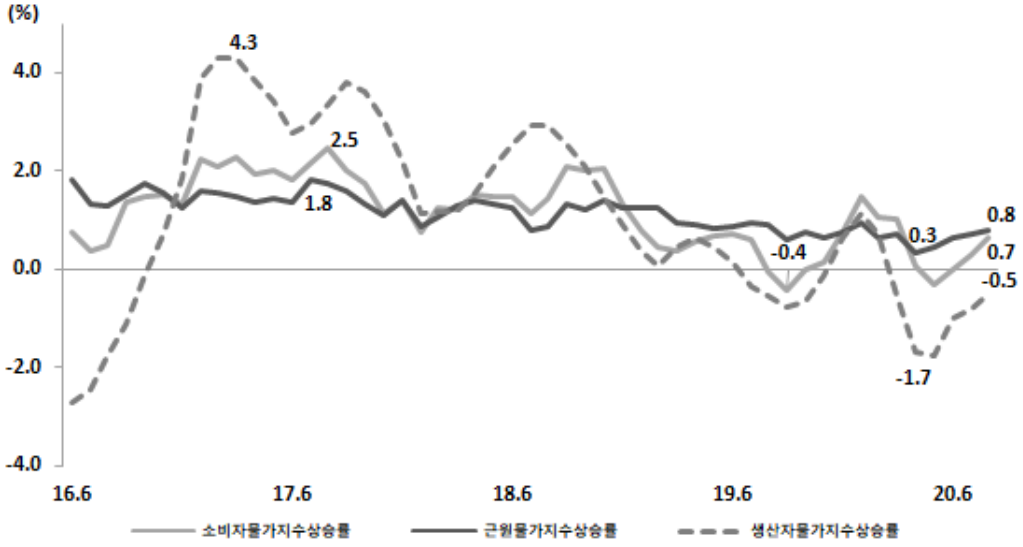
9) 통계청 보도자료(2020. 5), "2020년 4월 산업활동동향"; 통계청 보도자료(2020. 6), "2020년 5월 산업활동동향"

10) 통계청 보도자료(2020. 5), "2020년 4월 산업활동동향"; 통계청 보도자료(2020. 6), "2020년 5월 산업활동동향"

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20년 5월 -0.3%를 기록하며 역대 최저치(2019년 9월, -0.4%)에 근접하였으나, 그 후 3개월 연속 반등함

○ 2020년 8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장마·집중호우 등의 영향으로 농산물 가격 상승폭이 확대되며 전년 동월 대비 0.7%p 상승하여 0.7%를 기록함[11)]

〈그림 15〉 물가상승률



주: 1)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임
2) 근원물가상승률은 농산물 및 석유류를 제외한 물가지수 상승률임
자료: 한국은행

■ 주요 기관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민간소비와 수출을 중심으로 경제 성장세가 위축되어 2020년 역성장을 기록한 후, 2021년 경기 회복이 제한된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함

○ 한국은행과 KDI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민간소비와 수출입이 크게 위축된 것을 고려하여 2020년 경제성장률이 각각 -1.3%, -1.1%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

○ 주요 해외투자은행[12)]은 2020년 국내 경제성장률을 최저 -2.0%(UBS)에서 최고 -0.6%(Nomura), 평균은 -1.4%로 전망함

11) 기획재정부(2020. 9),「최근경제동향」
12) 9개 IB(Barclays, BoA-ML, Citi, BnP Paribas, Goldman Sachs, J.P. Morgan, Nomura, Societe Generale, UBS), 2020년 9월 말 기준임

〈표 1〉 국내 주요 기관 전망

(단위: %, 억 달러)

구분	2018	2019	2020(F)[1]		2021(F)[1]	
			한국은행[2]	KDI[3]	한국은행[2]	KDI[3]
실질 GDP	2.9	2.0	-1.3	-1.1	2.8	3.5
민간소비	3.2	1.7	-3.9	-4.6	3.8	2.7
설비투자	-2.3	-7.5	2.6	4.2	6.2	4.8
건설투자	-4.6	-2.5	-0.7	1.1	-0.4	3.1
지식생산물투자	4.4	3.0	2.9	3.4	3.5	4.1
상품수출	3.3	0.5	-4.5	-2.5	4.8	3.7
상품수입	2.0	-0.8	-1.8	-0.7	5.9	4.6
실업률	3.9	3.8	4.1	4.0	3.7	4.1
소비자물가	1.5	0.4	0.4	0.5	1.0	0.7
경상수지	775	600	540	567	550	581
상품수지	1,101	769	640	644	730	658
서비스·본원·이전소득수지	-326	-169	-100	-76	-180	-77

주: 1) 전망치임
2) 한국은행(2020. 8), 「경제전망보고서」
3) KDI(2020. 9), 「KDI 경제전망」
자료: 한국은행; KDI

2. 금융

가. 금리

■ 한국은행은 국내경제의 회복세가 더디고 물가상승 압력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0.5%에서 동결하고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고자 함[13)]

○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5월 기준금리 인하(0.25%p)가 국내 금융시장의 안정을 회복하고 실물경제의 급격한 위축을 막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[14)]

- 시장금리는 완화적 수준에서 등락을 보이고 주가는 상당폭 조정된 후 반등하였으며, 실물경제는 조업일수 증가 등으로 수출 부진이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남

○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민간소비와 서비스업 부진이 심화되고 취업자 수 감소세가 지속[15)]되고 있어 전반적으로 국내경제 회복세가 더디게 나타나고 있음

- 8월 이후 국내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어 대외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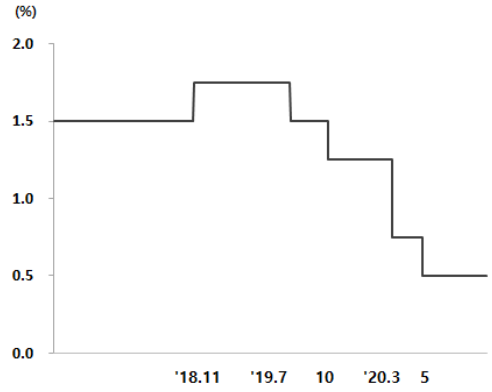
○ 한국은행은 국내경제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고 중기적으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당분간은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임

■ 기준금리 동결 기조가 유지되면서 단기금리의 상승압력이 제한적이나 대외금리 상승과 수급부담 영향으로 장기금리의 상승세가 지속되어 장단기 금리 격차는 확대됨

○ 위험선호 심리가 확대됨에 따라 장기물 위주의 금리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으며, 국채 수익률 곡선 기울기는 2018년 2월 이후 가장 가팔라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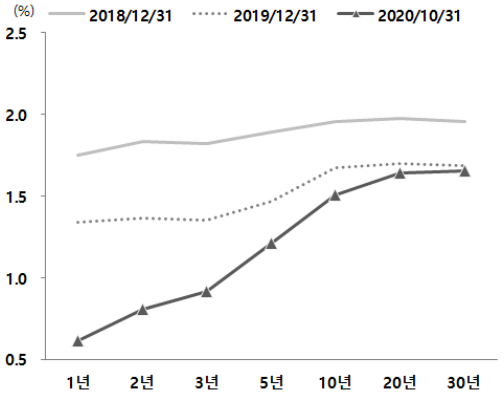
13) 한국은행(2020. 8. 27), “통화정책방향”
14) 한국은행(2020. 10. 14), “2020년도 제22차 금융통화위원회(정기) 의사록”
15)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-27.7만 명(7월), -27.4만 명(8월)임

〈그림 16〉 기준금리



자료: Bloomberg

〈그림 17〉 국채 수익률 곡선



자료: Bloomberg

■ 국고채 금리는 정부의 대규모 적자국채 발행, 외국인 국채선물 순매도 등으로 급격히 상승하였으나, 한국은행의 채권매입 확대와 글로벌 금리 하락 등의 영향으로 안정세를 보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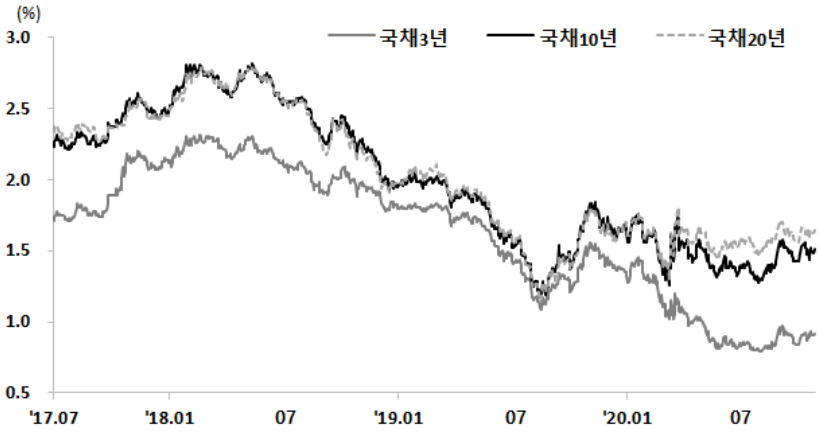
○ 정부의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적자국채 발행 규모가 역대 최대 규모[16]인 가운데 채권선물 시장에서 외국인 순매도가 크게 확대되어 국고채 금리가 급격히 상승함

○ 그러나 9월 3년물 국채 금리는 한국은행의 국고채 단순매입과 외국인 국채선물 순매수 전환 등의 영향으로 0.8% 초반까지 하락함

○ 이후 미국의 추가 경기부양책 합의 기대, 미 대선 결과 등의 영향으로 소폭 상승하며, 3년물(0.8~0.9%)과 10년물(1.4~1.5%) 국채 금리는 안정적인 흐름을 보임

16) 1년에 4차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1961년 이후 59년 만으로 총 846조 원 규모에 달함

〈그림 18〉 국채 금리 추이



자료: Bloomberg

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과 채권공급 확대 등의 영향으로 장단기 스프레드는 60bp에서 박스권 등락을 보이고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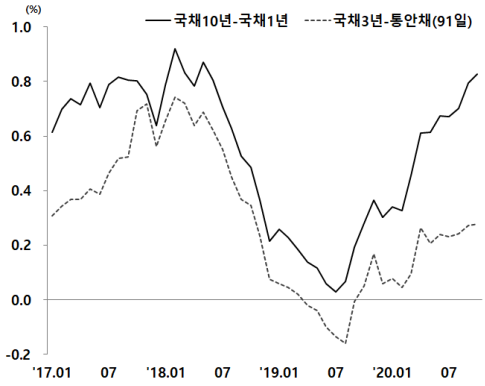
○ 장단기 스프레드(10년물 - 3년물)는 기준금리 동결과 국채발행 물량 증가에 따른 장기물 중심의 금리 상승으로 10월 초 63.9bp까지 확대됨

- 단기금리는 코로나19 재확산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시장안정화 조치, 신용 경계감 완화 등의 영향으로 좁은 범위에서 등락을 반복함

○ 신용스프레드는 회사채와 기업어음(CP), 전자단기사채 발행규모가 확대되고 금리 메리트에 따른 수요 유입의 영향으로 꾸준히 하락세를 보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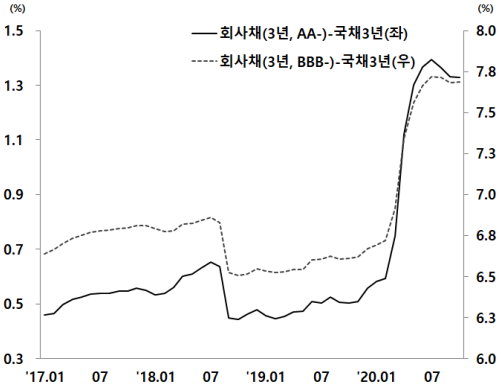
- 9월 회사채와 기업어음(CP), 전자단기사채 발행규모는 각각 전월 대비 12.9%, 12.0% 확대됨

〈그림 19〉 장단기 스프레드



자료: 한국은행

〈그림 20〉 신용스프레드



자료: 한국은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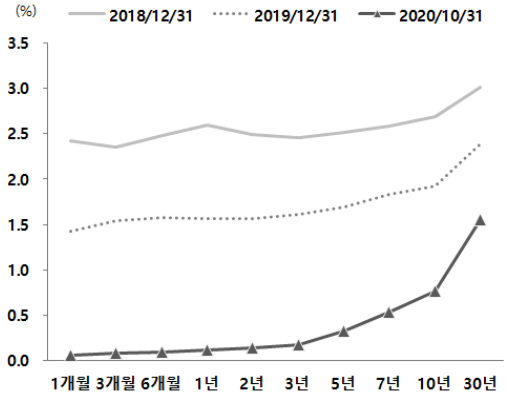
■ 미국 국채 금리는 경기부양책 합의 지연, 미·중 갈등 심화 등의 하락요인과 코로나19 백신 개발 기대, 고용지표 호전 등의 상승요인이 혼재하며 0.5~0.8%(10년물)에서 등락을 나타냄

○ 8월에는 미국 정부의 추가 실업수당 지급 종료(7월 25일)와 경기부양책 합의 지연 등의 영향으로 금리 상승세가 제한되어 10년물 국채 금리는 0.6%대를 기록함

○ 그러나 9월 양호한 고용지표와 10월 경기부양책 합의 기대, 코로나19 백신 개발 기대 등으로 미국 장단기 국채 금리는 큰 폭으로 상승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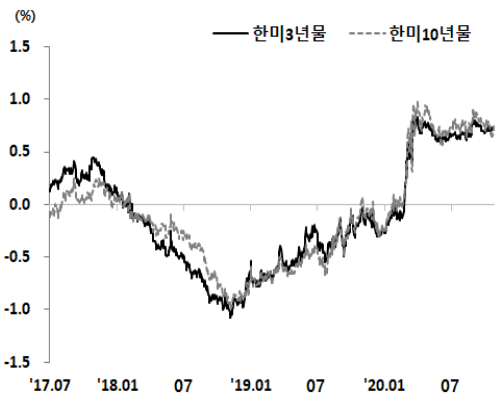
○ 10월 말에는 미국 대선의 영향으로 지난 6월 이후 10년물 국고채 금리는 0.8%대, 3년물 국고채 금리는 0.2%대로 상승함

〈그림 21〉 미국 국채 수익률 곡선



자료: Bloomberg

〈그림 22〉 한국과 미국 금리차(3년, 10년)



자료: Bloomberg

■ 해외 투자은행들은 2020년 4/4분기 금리 전망치를 지난 7월 전망치에 비해 미국은 하향, 한국은 상향 조정함

○ 2020년 4/4분기 미국 국채(10년) 금리는 0.76%로 지난 7월 전망치 0.87%에 비해 0.11%p 하향 조정함

○ 한편 한국 국채(10년) 금리는 1.41%로 지난 7월 전망치 1.34%에 비해 상향 조정하였으며, 3/4분기보다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함

〈표 2〉 주요 해외 투자은행 금리 전망 평균

(단위: %)

미국 국채(10년) 금리			한국 국채(10년) 금리			한국 국채(3년) 금리		
'20. 4Q	'21. 1Q	2Q	'20. 4Q	'21. 1Q	2Q	'20. 4Q	'21. 1Q	2Q
0.76	0.86	0.96	1.41	1.51	1.6	0.82	0.89	0.93

주: 2020년 4분기와 2021년에 대한 투자은행의 블룸버그 가중평균 값으로, 예측 시점은 10월 말 기준임
자료: 한국은행; Bloomberg

나. 주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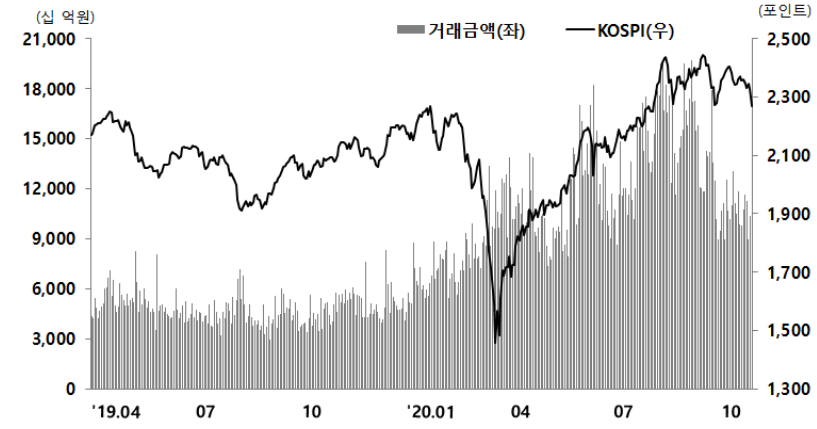
■ 코스피(KOSPI)지수는 주요국의 적극적인 정책 대응, 글로벌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 등의 상승요인과 코로나19 재확산, 미 대선 관련 불확실성 등의 하락요인이 혼재하며 등락을 반복함

○ 8월 코스피는 국내 반도체 업황 회복에 따른 국내 실물경제의 회복, 글로벌 경기회복에

대한 기대, 코로나19 백신 개발 기대감 등으로 2,400선까지 상승함

○ 그러나 주요국의 코로나19 확산과 미국 추가 경기부양책 합의 지연, 미 대선 관련 불확실성 등의 영향으로 하락하였으며, 2,300~2,400선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음

〈그림 23〉 주가지수 추이



자료: 한국거래소

다. 환율

■ 원/달러 환율은 코로나19 재확산, 미국 경기부양책 합의 변화 등으로 등락을 반복하다 미 달러화 약세 및 위안화 강세, 국내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 등으로 1,130원선까지 하락함

○ 9월 원/달러 환율은 유럽을 비롯한 주요국의 코로나19 확산과 미 대선을 앞둔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, 코로나19 백신 개발 경과 등으로 1,180원대 지지선을 하회함

○ 10월에는 중국의 양호한 경기 회복세와 위안화 강세가 이어지고 미 대선의 Blue-Wave[17]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며 1,130원대를 하회함

- 중국의 산업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6.8% 증가하고 내수 관련 품목 중심의 생산 호조세를 보였으며, 중국 국채의 WGBI[18] 편입이 결정됨에 따라 위안화는 강세를 보임

17) 블루 웨이브(Blue-Wave)란 미국의 하원과 상원 모두 민주당이 차지하는 것을 뜻함
18) 세계국채지수(WGBI)란 미국, 영국, 일본 등 선진국 국채가 편입된 글로벌 채권지수로 런던증권 거래소의 지수 관련 자회사 FTSE 러셀이 관리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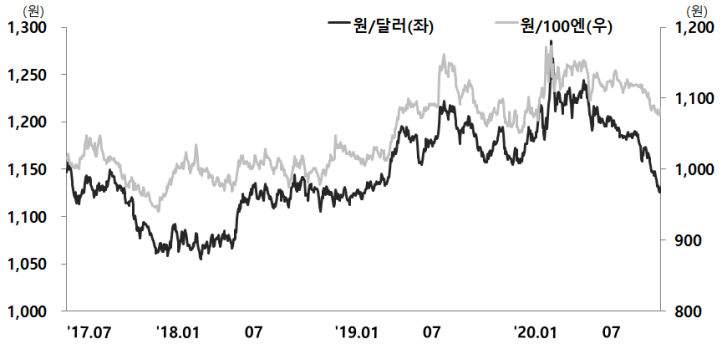
■ 원/엔 환율은 미국의 경기부양 기대 및 세계 증시 강세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심리 완화 영향으로 1,100원 아래로 하락함

○ 7월 이후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던 원/엔 환율은 8월 28일 아베 총리 사임 발표로 1,121원으로 소폭 상승하였으나 이후 추가 상승세가 제한됨

- 아베 총리 사임으로 국제 금융시장 변동성이 일부 확대되었으며, 일본 닛케이지수가 하락 전환[19]되고 엔화 가치가 소폭 상승함[20]

○ 원/엔 환율은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백신 조기 실용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세계 증시가 상승세를 보이고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인 엔화의 매도세가 이어져 하락세를 나타냄

〈그림 24〉 원/달러 및 원/엔 환율 추이



자료: Bloomberg

■ 주요 해외 투자은행들은 2020년 4/4분기에 원/달러와 달러/유로 환율이 전분기 대비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함

○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글로벌 경기 위축과 미 대선 관련 이슈로 달러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

○ 한편, 달러 약세에도 불구하고 달러/유로 환율은 혼조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, 엔화는 안전자산 선호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추가 양적 완화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

19) 일본 Nikkei225 지수 23,208.86(8.27) → 22,882.65(8.28)
20) 연합인포맥스(2020. 9. 1), "엔화, 아베 사임에도 강세 제한적인 이유는"

〈표 3〉 주요 해외 투자은행 환율 전망

(단위: 원, 엔, 달러)

구분	원/달러		엔/달러		달러/유로	
	’20. 3Q	4Q	’20. 3Q	4Q	’20. 3Q	4Q
Morgan Stanley	1,170	1,100	106	102	1.17	1.20
Mizuho Bank		1,100		103		1.17
SCB Securities		1,100		105		1.17
Wells Fargo		1,110		105		1.18
BNP Paribas		-		102		1.23

주: 2020년 4분기에 대한 투자은행의 블룸버그 가중평균 값으로, 예측 시점은 10월 말 기준임
자료: 한국은행; Bloomberg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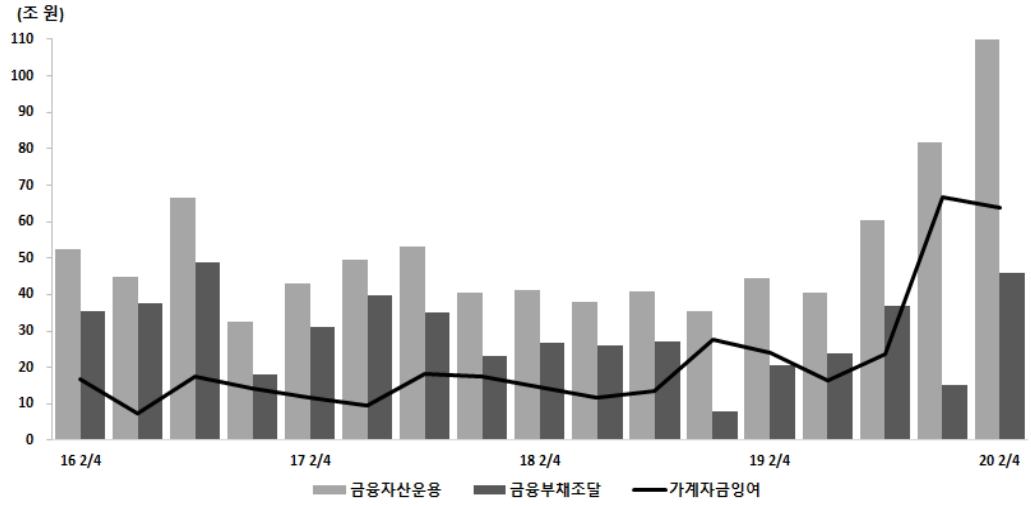
3. 자금흐름

■ 2020년 2/4분기 가계부문[21]의 자금잉여[22]는 64조 원으로 전분기 대비 2.8조 원 감소하였으나,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함

○ 2020년 2/4분기 가계부문의 금융자산 운용은 110.1조 원으로 2009년 통계치 작성 이래 최대치이며, 금융부채조달은 46.1조 원으로 64조 원의 자금잉여가 발생함

- 2020년 5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2020년 2/4분기 가계소득이 대폭 확대됨

〈그림 25〉 가계자금잉여



자료: 한국은행

■ 2020년 2/4분기 가계부문의 현금 및 예금 거래는 전분기 대비 감소한 반면, 보험 및 연금, 채권, 국내외 주식, 투자펀드 거래 모두 전분기 대비 증가함

○ 보험 및 연금 거래 비중은 2020년 1/4분기 13.3%로 10년 내 최저치를 기록한 후 2/4분기에 반등하여 15.1%를 기록함

21) 가계(소규모 개인사업자 포함) 및 가계에 봉사하는 민간비영리단체를 의미함
22) 가계자금잉여는 가계부문이 일정기간 동안 운용한 금융자산 규모에서 조달한 금융부채 규모를 차감한 금액이며, 이는 가계부문이 금융산업에 순공급한 자금을 의미함

〈표 4〉 가계금융상품 거래

(단위: 조 원,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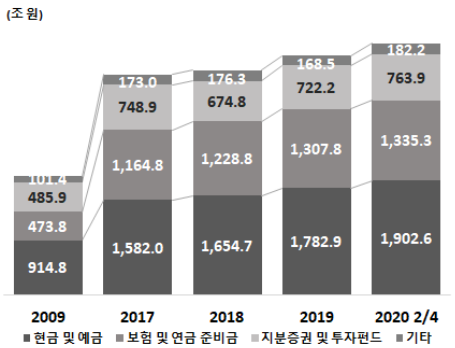
구분	현금 및 예금	보험 및 연금		채권	거주자 발행주식 및 지분	비거주자 발행주식	투자펀드	기타	합계
2009	86.4	53.8	(37.1)	16.1	9.7	-2.2	-18.7	-0.1	145.0
2010	95.3	65.9	(44.7)	11.1	5.9	-0.2	-30.0	-0.6	147.4
2011	70.9	72.3	(45.6)	11.1	7.9	-0.3	-5.9	2.5	158.5
2012	36.9	99.0	(79.7)	10.5	-6.1	-0.4	-14.2	-1.5	124.2
2013	60.6	91.2	(60.5)	6.1	0.7	-0.3	-7.3	-0.2	150.7
2014	76.0	90.5	(53.2)	4.0	-0.8	0.8	-3.5	3.1	170.0
2015	107.9	89.8	(40.3)	4.7	5.3	1.7	9.5	4.1	223.0
2016	118.3	87.7	(41.0)	-0.9	9.9	0.1	-2.6	1.2	213.7
2017	101.2	83.3	(47.7)	-11.8	0.0	1.1	-3.9	4.7	174.6
2018	74.3	61.4	(40.3)	0.1	17.0	1.8	0.0	-2.1	152.4
2019	130.7	72.0	(39.7)	-17.6	-7.9	2.1	2.0	0.1	181.4
2020 1/4	66.0	10.9	(13.3)	-3.0	9.9	1.9	-6.7	2.8	81.8
2020 2/4	54.2	16.6	(15.1)	11.3	17.3	4.0	4.0	2.7	110.1

주: 괄호 안은 전체 거래금액 중 차지하는 비중임
자료: 한국은행

■ 2020년 2/4분기 가계금융자산 중 보험 및 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31.9%로 2019년에 비해 0.9%p 하락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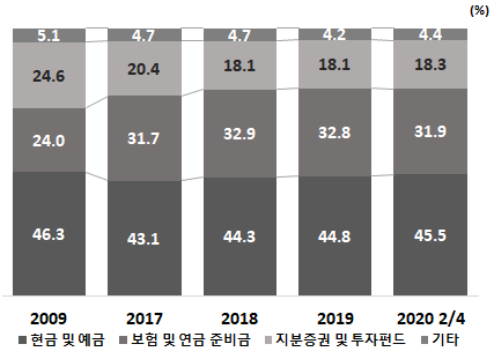
○ 가계 자산 중 현금 및 예금의 비중은 2017년부터 상승하여 2020년 2/4분기 45.5%를 기록함

〈그림 26〉 가계금융자산 구성(금액)



자료: 한국은행

〈그림 27〉 가계금융자산 구성(비중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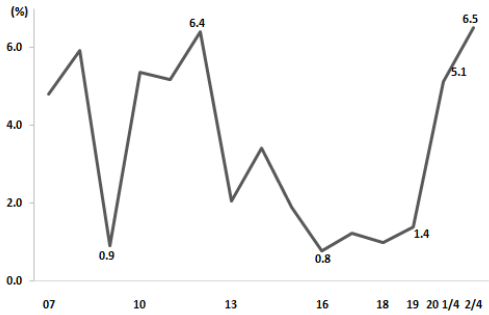


자료: 한국은행

■ 2020년 2/4분기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은 6.5%를 기록하여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함

○ 가계의 부채상환부담을 나타내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(DSR)은 2020년 1/4분기 11.9%를 기록하며 전년도보다 0.5%p 하락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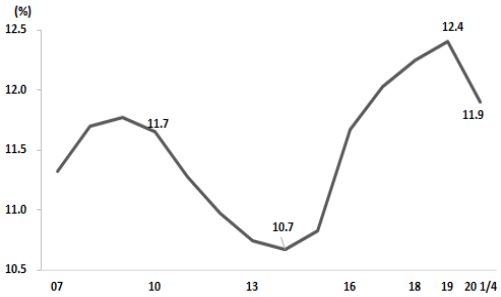
〈그림 28〉 명목 처분가능소득 증가율



주: 1)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임
2) 2020년 증가율은 통계청 가구동향조사 통계 개편(고시 제2020-111호)에 따라 '2인 이상 가구'(농림어가 포함)'에서 '2인 이상 가구 비농림어가'로 변경, 발표된 수치임

자료: 통계청

〈그림 29〉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(DSR)



자료: BIS

4. 규제·제도

■ 「보험업 감독규정」 개정안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통과(2020. 9. 25 금융위원회)

○ 일상생활의 다양한 위험을 보장할 수 있는 소액단기전문 보험업을 도입하고, 자본금 요건을 10억 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대폭 완화함.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가 취급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종류, 보험기간, 계약당 보험금 상한액, 연간 총 수입보험료 등은 향후 대통령령에서 구체화할 예정임

■ 4차 산업혁명 기술 발전에 따른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상품 도입(2020. 9. 17 금융위원회)

○ 4차 산업혁명 기술 발달에 힘입어 현재 국내에서 100여 대의 시험용 자율주행차가 운행 중에 있음. 2020년 10월 자율주행차 관련 「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부분 자율주행차(레벨3) 상용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함. 자율주행차 운행 중 사고 시 보상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자율주행차(상용차) 전용 특약상품을 개발하여, 12개 손해보험회사는 2020년 9월 말부터 업무용 자율주행차 전용 특약을 판매 개시할 예정임

■ 「보험업 감독규정」 개정안 입법예고(2020. 7. 27 금융위원회)

○ 무(저)해지환급금 보험을 저축성보험 상품으로 오인토록 하는 불완전판매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납입기간 중 중도해지 시, 환급금이 없거나 표준형 보험 대비 50% 미만인 저해지환급금 보험에 한하여 전 보험기간 동안 표준형 보험의 환급률 이내로 설계하도록 상품구조를 개선함. 또한 무(저)해지환급금 보험의 정의를 보험료 산출 또는 보험금(연금액) 산출 시 해지율을 사용한 보험으로 명확화함

■ 공유경제하에서 보장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자동차보험 화물 유상운송 특약(6인승 이하 승용차 대상) 도입(2020. 7. 22 금융감독원)

○ 최근 공유경제 활성화로 개인용 승용차를 활용하여 돈을 받고 택배 등 화물을 운송하는 운전자가 급증하고 있으나 6인승 이하 승용차가 가입할 수 있는 유상운송보험이 없어 사고 발생 시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등 보장 사각지대 발생이 우려됨. 이에 금융감독원은 6인승 이하 승용차 운전자도 가입하여 유상운송 시 사고를 보장받을 수 있는 승용차용 화물 유상운송특약을 신고 수리하였음(보험회사는 2020년 8월부터 판매 예정)

■ 불필요한 분쟁의 사전 예방을 위한 보험 표준약관 등 명확화 추진(2020. 7. 6 금융감독원)

○ 코로나19 등 1급 감염병에 대해 한국표준질병, 사인분류와 무관하게 보험사고 발생 당시 시행 중인 법률에 따라 재해로 보장함을 명시함

Ⅱ. 보험동향

□ 보험산업 총자산은 2020년 1/4분기 5.2% 증가하였으며, 2/4분기에도 5.6% 증가함
- ◦ 2020년 2/4분기 생명보험의 총자산은 전년 동기 대비 5.3% 증가하였으며, 손해보험의 총자산은 전년 동기 대비 6.5% 증가함
- ◦ 2020년 2/4분기 보험산업 자산 성장에는 보험료 증가에 따른 책임준비금 확대와 채권 평가이익 증가로 인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(OCI) 확대가 크게 기여함

□ 생명보험의 보험영업현금흐름(수입보험료 - 보험금 - 실제사업비)은 2020년 2/4분기 2.6조 원 흑자를 기록함
- ◦ 2020년 2/4분기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2.8% 증가한 27.4조 원임
- ◦ 보험금과 사업비 축소 등이 생명보험 보험영업현금흐름 확대의 주요한 요인임

□ 손해보험의 보험영업현금흐름(원수보험료 - 발생손해액 - 실제사업비)은 2020년 2/4분기 0.16조 원으로 8분기 만에 흑자 전환함
- ◦ 2020년 2/4분기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4.0% 증가한 23.9조 원을 기록함
- ◦ 원수보험료가 증가한 데다 발생손해액과 사업비 증가세도 둔화되면서 손해보험의 보험영업현금흐름이 플러스 전환됨

□ 2020년 상반기 생명보험의 당기순이익은 보험영업손실 확대로 전년 동기 대비 2.6% 감소한 반면, 손해보험 당기순이익은 자동차 손해율 개선에 따른 보험영업손실 축소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.5% 증가함
- ◦ 생명보험은 주가하락으로 인한 보증준비금 전입액 증가로 보험영업손실이 확대됨
- ◦ 손해보험 합산비율은 2019년 105.7%에서 2020년 상반기 104.9%로 개선됨

□ 2020년 2/4분기 생명보험 초회보험료 시장점유율은 대형사와 중소형사가 전년 동기 대비 확대된 반면 외국사는 축소됨
- ◦ 손해보험의 원수보험료 시장점유율은 대형사가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축소되고 중소형사는 소폭 확대됨

1. 성장성

〈보험회사의 성장성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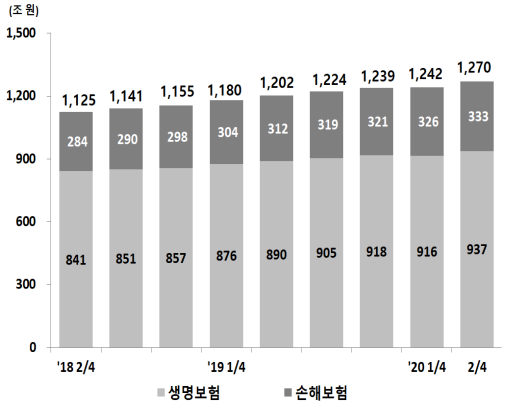
□ 본고에서는 보험회사의 성장성을 측정하는 대표 지표로 자산성장률을 제시함
- ○ 보험산업은 통상 수입보험료 증가율을 중심으로 성장성을 측정함
- ○ 수입보험료 증가율은 보험영업 중심의 성장을 측정하는 지표로는 적절할 수 있으나, 자산운용(투자영업) 부문을 간과하고 현금 유출을 고려하지 않는 문제가 있음
- ○ 보험산업의 성장을 종합적이고 균형 있게 보여주는 지표는 자산성장률로 판단됨

□ 본장에서는 보험산업의 자산 성장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며, 보험산업 자산의 구성요소를 분해하여 각 요소가 성장에 기여한 정도를 파악함

가. 자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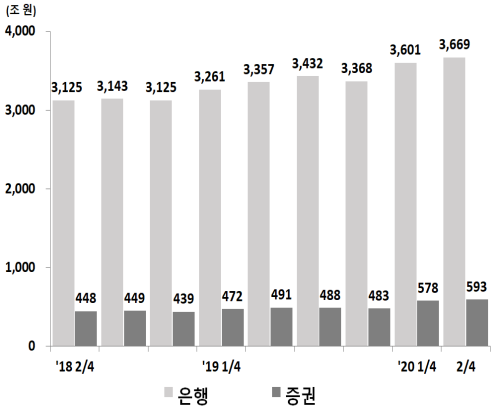
■ 2020년 2/4분기 보험산업의 총자산은 전년 동기 대비 5.6% 증가한 1,270조 원을 나타냄
- ○ 생명보험산업의 총자산은 937조 원이며, 손해보험산업의 총자산은 333조 원임
- ○ 은행산업의 총자산은 3,669조 원이며, 증권산업의 총자산은 593조 원임

〈그림 1〉 보험산업 자산



자료: 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2〉 은행 및 증권 자산



자료: 금융감독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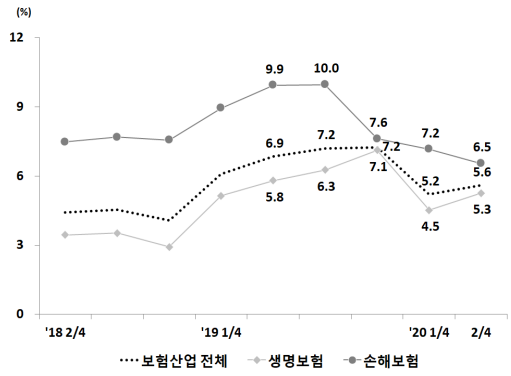
■ 보험산업의 총자산은 2020년 1/4분기와 2/4분기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.2%와 5.6% 증가하였으나, 자산 성장세는 전년에 비하여 둔화됨(2019년 1/4분기와 2/4분기 각각 6.1%, 6.9%)

○ 2020년 2/4분기 생명보험의 총자산은 전년 동기 대비 5.3%, 손해보험의 총자산은 전년 동기 대비 6.5% 증가함

○ 2020년 2/4분기 은행의 총자산은 전년 동기 대비 9.3%, 증권의 총자산은 전년 동기 대비 20.9% 증가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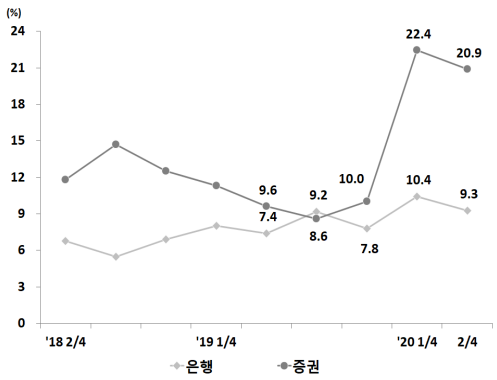
- 증권 자산성장률 확대는 금융시장 안정세가 주요한 원인으로 보임

〈그림 3〉 보험산업 자산 증가율



주: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
자료: 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4〉 은행 및 증권 자산 증가율



주: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
자료: 금융감독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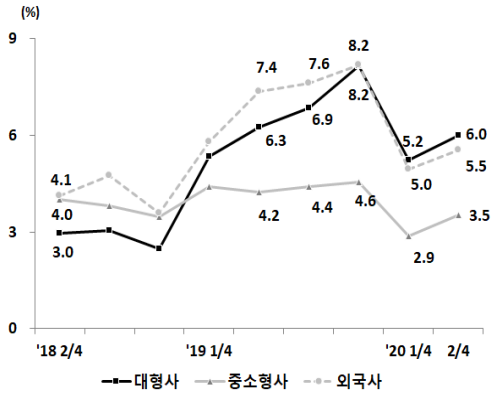
■ 2020년 2/4분기 생명보험의 경우 중소형사 자산 증가율이, 손해보험의 경우 대형사 자산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나타냄[1)2)]

○ 생명보험의 경우 2020년 2/4분기 대형사와 외국사 총자산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.0%, 5.5% 증가한 데 반해, 중소형사 총자산은 3.5% 증가에 그침

○ 손해보험의 경우 2020년 2/4분기 외국사 자산성장률이 9.7%로 가장 높았고, 중소형사 9.3%, 대형사 5.0% 순으로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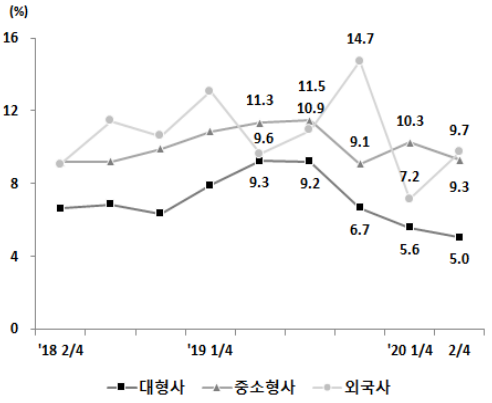
1) 생명보험산업은 총 24개사로 수입보험료를 기준으로 대형사 3개 회사, 중소형사 12개 회사와 외국사 9개 회사를 포함함(외국사는 금융감독원의 외국사 분류 기준을 준용함)
2) 손해보험산업은 총 31개사로 원수보험료를 기준으로 대형사 4개 회사, 중소형사 10개 회사와 외국사 17개 회사를 포함함(외국사는 금융감독원의 외국사 분류 기준을 준용함)

〈그림 5〉 생명보험회사 유형별 총자산 증가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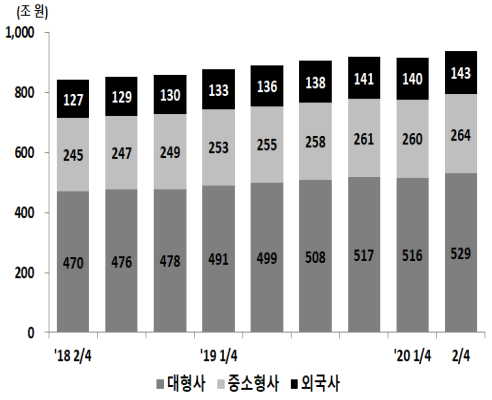
주: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
자료: 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6〉 손해보험회사 유형별 총자산 증가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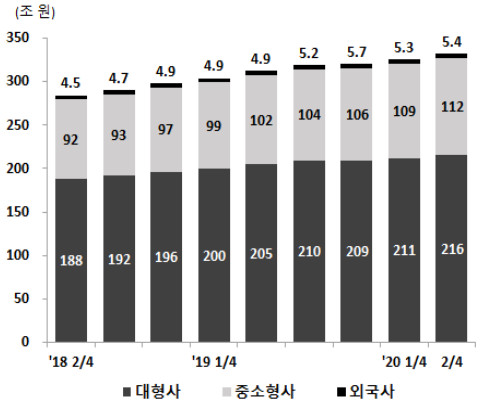


주: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
자료: 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7〉 생명보험회사 유형별 총자산



〈그림 8〉 손해보험회사 유형별 총자산



주: 1) 생명보험회사의 대형사는 수입보험료 기준 상위 3개사이며, 중소형사는 12개사, 외국사는 9개사임
2) 손해보험회사의 대형사는 원수보험료 기준 상위 4개사이며, 중소형사는 10개사, 외국사는 17개사임
자료: 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나. 생명보험 성장 요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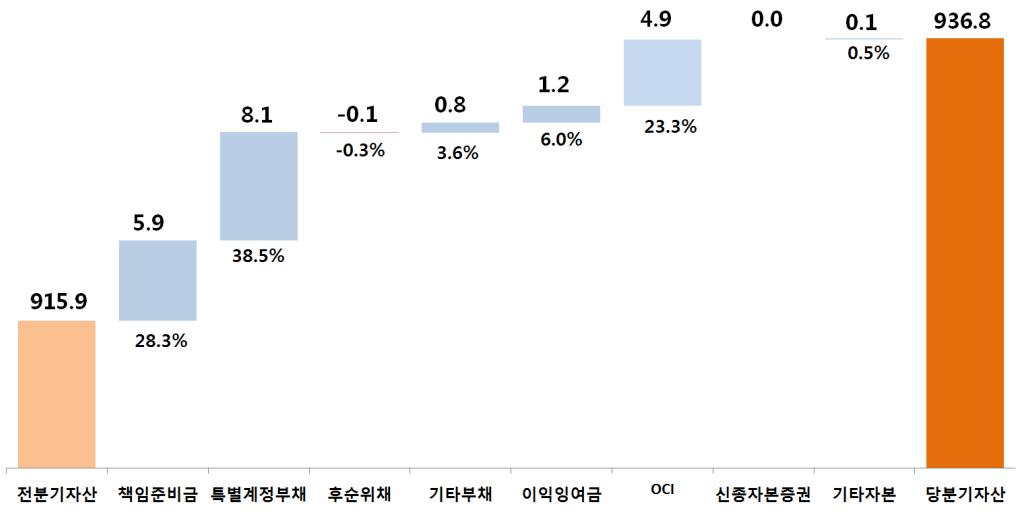
■ 생명보험산업 총자산은 전분기 말 대비 20.9조 원 증가하였는데, 이 가운데 특별계정부채, 책임준비금, 기타포괄손익누계액(OCI) 순으로 자산 증가에 기여도가 높았음

○ 특별계정부채는 총자산 증가에 8.1조 원(38.5%) 기여하였고, 책임준비금은 5.9조 원(28.3%) 기여함

○ 기타포괄손익누계액(OCI)은 금리 하락에 따른 채권 평가이익 확대로 자산 성장에 4.9조 원(23.3%) 기여함

〈그림 9〉 생명보험산업 자산 변화

(단위: 조 원)



주: OCI는 기타포괄손익누계액임
자료: 생명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보험회사 책임준비금 변화〉

□ 수입보험료(원수보험료)와 부리이자(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이자)는 책임준비금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며, 보험금(발생손해액), 사업비 및 '수입보험료 속에 포함된 위험률차익과 사업비차익'은 책임준비금을 감소시키는 요인임

○ 책임준비금의 증분은 대략 '(수입보험료 – 보험금 – 사업비) + 적립이자 – (위험률차익 + 사업비차익) + 기타(LAT 추가적립 등)'로 나타낼 수 있음

○ 현행 손익계산서에는 적립이자와 '위험률차익 + 사업비차익'이 드러나지 않음

□ 본고에서는 공시된 손익계산서를 이용하여 책임준비금 변화를 분석함

○ 손익계산서로부터 '영업이익 = 보험영업이익 + 투자영업이익 – 책임준비금전입액'이므로 '책임준비금전입액 = 보험영업이익 + 투자영업이익 – 영업이익'인데, 실제

대차대조표상의 책임준비금 증감은 손익계산서상의 책임준비금전입액과 다소 차이가 있음

○ 따라서, 책임준비금 증감
= 책임준비금전입액 + 기타
= [보험영업이익 + 투자영업이익 − 영업이익] + 기타
= [(수입보험료 − 보험금 − 사업비) + (재보험수익 − 재보험비용) + 투자영업이익 − 영업이익] + 기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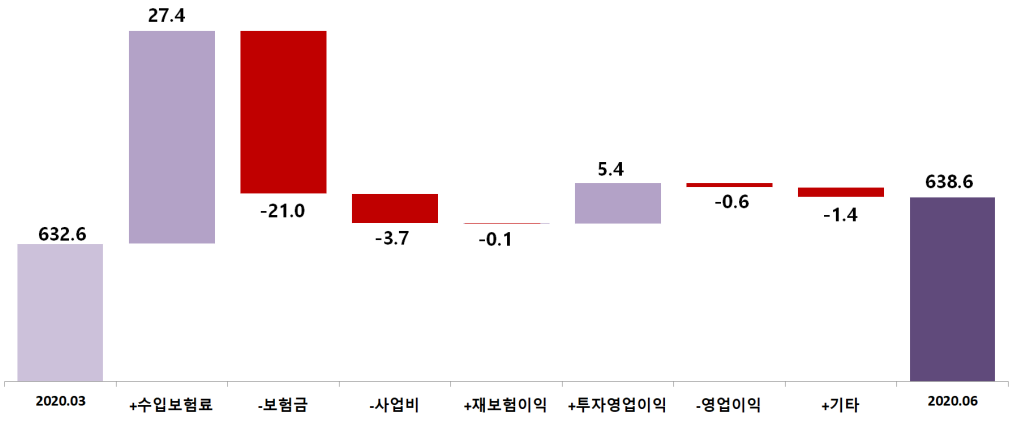
○ 공시된 회계상의 '투자영업이익 − 영업이익'은 대략 '적립이자 − (위험률차익 + 사업비차익)'으로 이해할 수 있음

1) 생명보험 책임준비금

■ 생명보험 책임준비금은 2020년 2/4분기 전분기 대비 5.9조 원 증가하였는데, 수입보험료에서 보험금과 사업비[3]를 차감한 금액 2.6조 원과 투자영업이익 5.4조 원이 책임준비금 증가에 크게 기여함

〈그림 10〉 생명보험산업 책임준비금 변화

(단위: 조 원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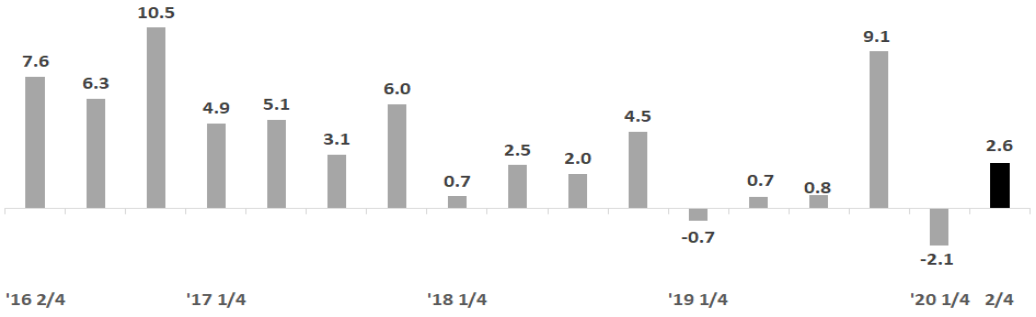
자료: 생명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3) 여기서 사업비는 순사업비로 이연전사업비와 신계약비상각비를 감안하지 않은 금액을 의미함

■ 보험영업현금흐름(수입보험료 - 보험금 - 실제사업비)은 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 증가와 보험금과 사업비 감소로 인해 2020년 2/4분기 2.6조 원을 나타냄

〈그림 11〉 생명보험 보험영업현금흐름

(단위: 조 원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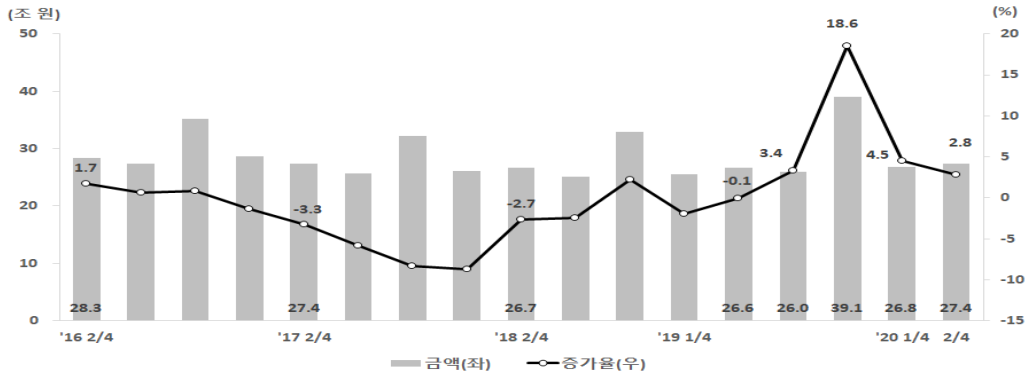
주: 보험영업현금흐름은 수입보험료에서 보험금과 실제 사업비(순사업비 + 이연신계약비 - 신계약비상각비)를 차감한 금액임
자료: 생명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가) 생명보험 수입보험료

■ 2020년 2/4분기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이 확대됨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2.8% 증가한 27.4조 원을 기록함

○ 특히, 이번 분기에도 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가 방카슈랑스 채널의 일시납 보험료 확대로 증가세를 보임

〈그림 12〉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및 증가율



주: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
자료: 생명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■ 종목별로 보면, 2020년 2/4분기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가 증가한 반면, 퇴직연금과 일반단체보험은 수입보험료는 감소함

○ 보장성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2.6% 증가한 11.4조 원을 기록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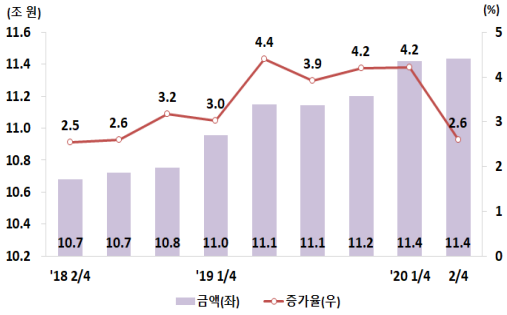
- 다만, 3월 예정이율 인하 전 증가하였던 일반종신보험의 초회보험료가 4월 예정이율 인하 후 감소함

○ 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는 일시납 저축성보험 신규판매 확대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3.9% 증가한 12.6조 원을 기록함

- 예·적금 금리 하락에 따른 저축보험의 금리 경쟁력 확대와 펀드 관련 불완전판매 우려 등에 따른 저축수요 흡수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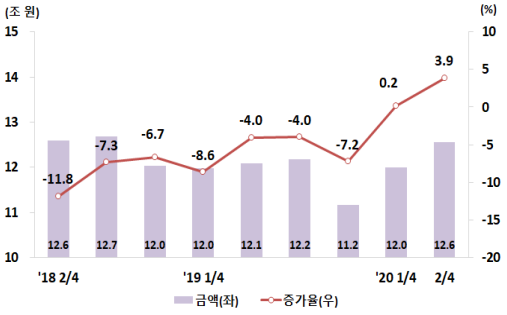
○ 퇴직연금 수입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0.1% 감소한 3.2조 원이며, 일반단체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2.4% 감소한 0.19조 원임

〈그림 13〉 보장성보험 수입보험료 및 증가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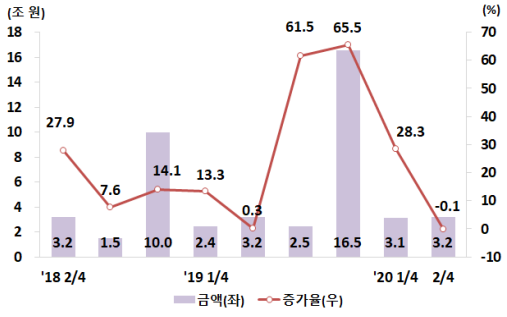
주: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
자료: 생명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14〉 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 및 증가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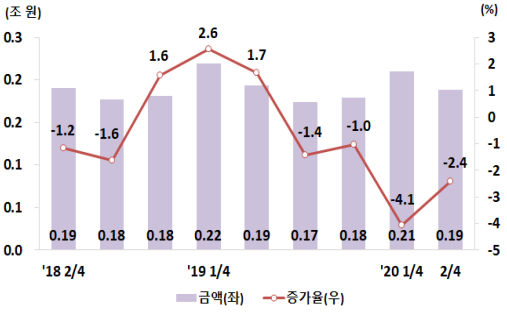
주: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
자료: 생명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15〉 퇴직연금 수입보험료 및 증가율



주: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
자료: 생명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16〉 일반단체보험 수입보험료 및 증가율



주: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
자료: 생명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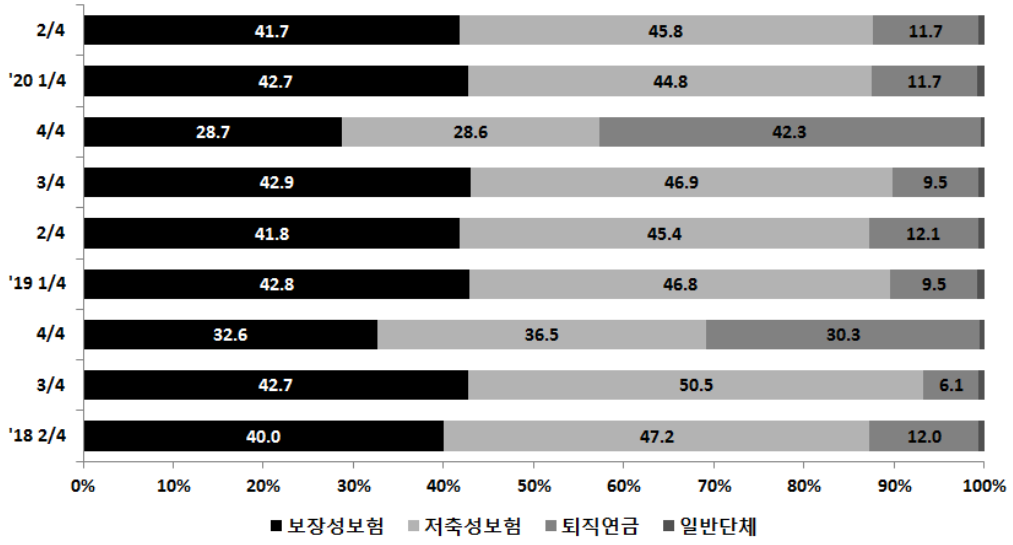
■ 2020년 2/4분기 생명보험 수입보험료에서 저축성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년 동기 대비 확대됨

○ 전반적으로 생명보험에서 보장성보험 수입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확대되고 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축소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

- 보장성보험 비중은 2018년 2/4분기 40.0%에서 2020년 2/4분기 41.7%로 확대되었으며, 같은 기간 저축성보험 비중은 47.2%에서 45.8%로 축소됨

○ 그러나 이번 분기에는 일시납 저축성보험 신규가입 확대의 영향으로 저축성보험 비중이 전년 동기에 비하여 0.4%p 확대된 45.8%를 나타냄

〈그림 17〉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비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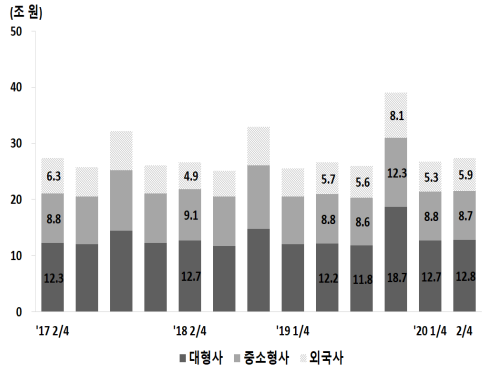


주: 전체 수입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임
자료: 생명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■ 회사 유형별로 보면, 2020년 2/4분기 대형사와 외국사의 수입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.6%, 3.3% 증가하였으나, 중소형사의 수입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1.4% 감소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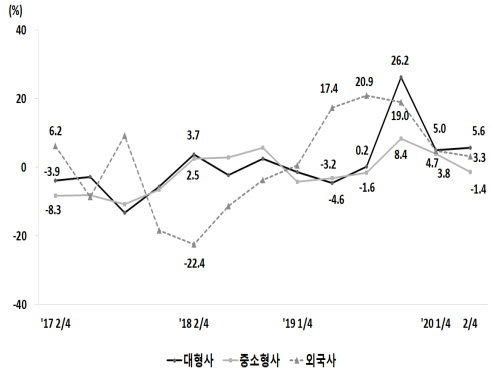
○ 다만, 대형사의 경우 이번 분기 수입보험료 증가율이 전분기(5.0%)보다 상승하였으나 외국사의 경우 이번 분기 증가율이 전분기(4.7%)에 비하여 둔화됨

〈그림 18〉 생명보험회사 유형별 수입보험료



자료: 생명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19〉 생명보험회사 유형별 수입보험료 증가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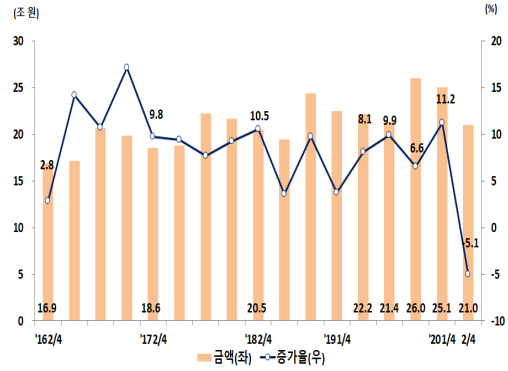
주: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
자료: 생명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나) 생명보험 보험금 및 사업비

■ 2020년 2/4분기 생명보험의 보험금과 사업비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.1%, 2.3% 감소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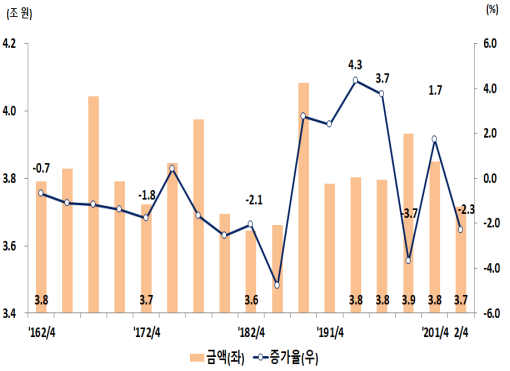
○ 보험금 감소는 코로나19로 인한 보험소비자의 활동량 감소 등이, 사업비 감소는 코로나19로 인한 대면영업 위축 등이 주요 원인으로 추정됨

〈그림 20〉 보험금



자료: 생명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21〉 사업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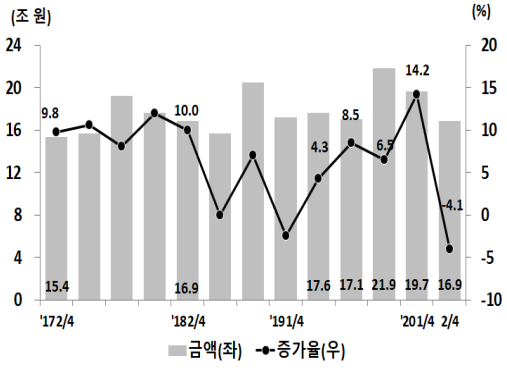
자료: 생명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■ 2020년 2/4분기 생명보험의 종목별 보험금의 경우 환급금, 만기 및 퇴직 보험금, 사망 및 상해 보험금, 배당금 모두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함

○ 특히,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던 저축성보험의 만기 환급금 등도 감소 전환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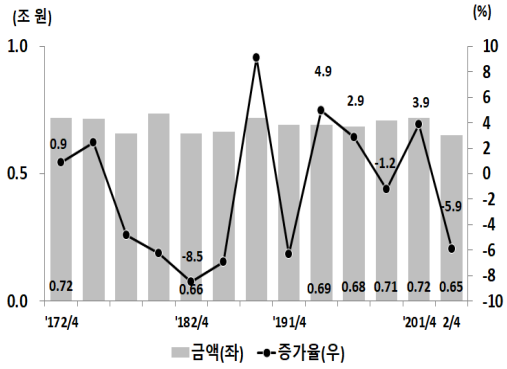
○ 이는 해당 기간 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확대되었기 때문으로 보임

〈그림 22〉 환급금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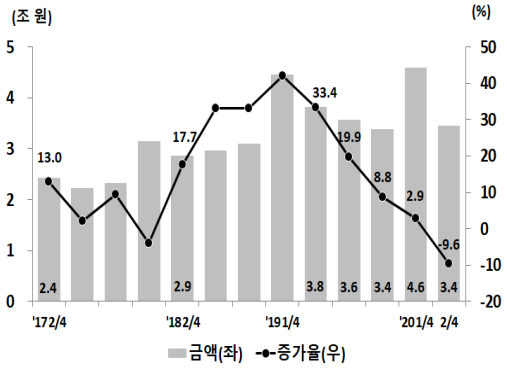
주: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
자료: 생명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23〉 사망 및 상해 보험금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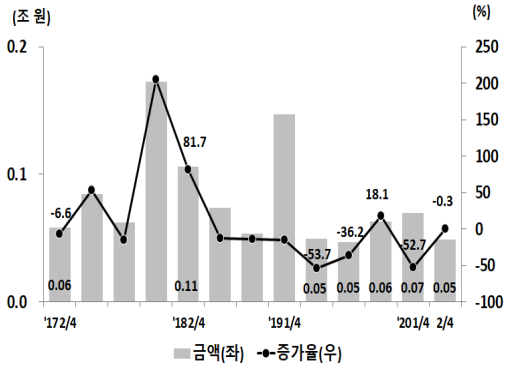
주: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
자료: 생명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24〉 만기 및 퇴직 보험금



주: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
자료: 생명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25〉 배당금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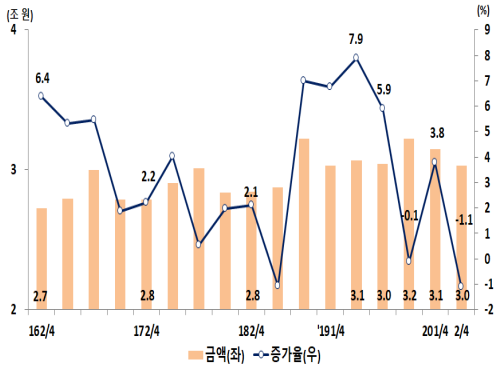
주: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
자료: 생명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■ 2020년 2/4분기 생명보험산업의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 사업비가 모두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함

○ 보장성보험 사업비는 2020년 1/4분기 전년 동기 대비 3.8% 증가하였으나, 2/4분기에는 코로나19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.1% 감소한 3.0조 원을 나타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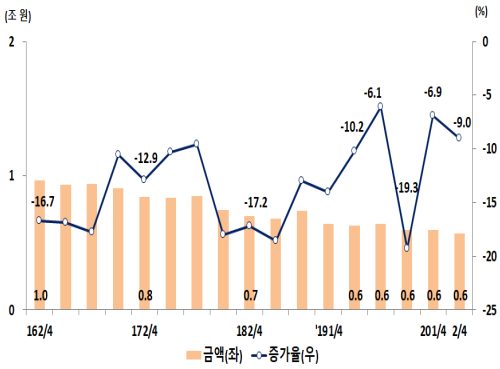
○ 저축성보험 사업비는 2020년 2/4분기 전년 동기 대비 9.0% 감소한 0.6조 원을 기록함

〈그림 26〉 보장성보험 사업비



주: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
자료: 생명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27〉 저축성보험 사업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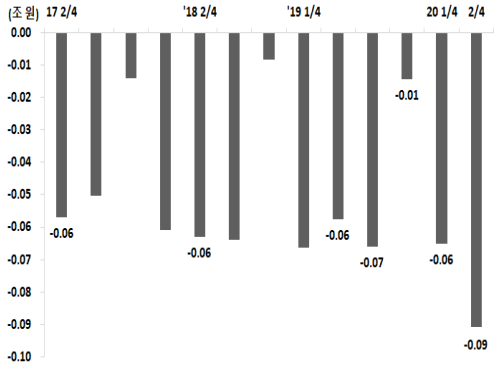
주: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
자료: 생명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다) 재보험 이익

■ 2020년 2/4분기 생명보험산업의 재보험 이익은 0.09조 원 적자를 나타냈으며, 적자폭이 확대되고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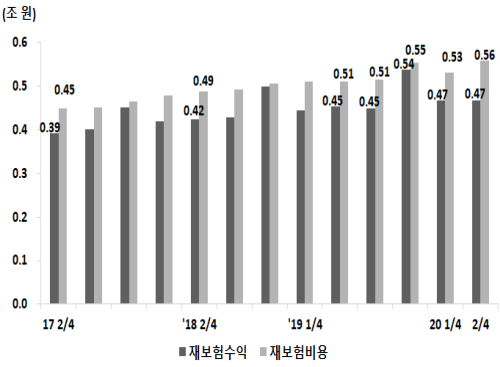
○ 2020년 2/4분기 재보험수익과 재보험비용은 각각 0.47조 원과 0.56조 원임

〈그림 28〉 생명보험 재보험 이익



자료: 생명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29〉 생명보험 재보험수익 및 비용



자료: 생명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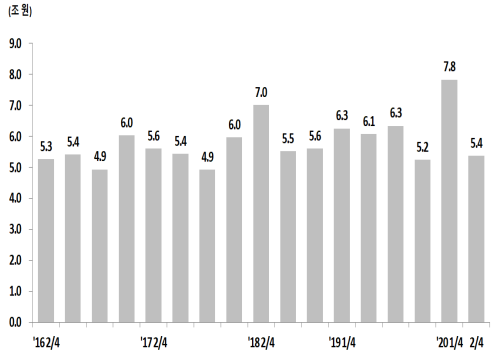
라) 생명보험 투자영업이익 및 영업이익

■ 2020년 2/4분기 생명보험의 투자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반면,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함

○ 2020년 2/4분기 투자영업이익은 금리하락에 따른 이자수익 감소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0.7조 원 감소한 5.4조 원 흑자를 기록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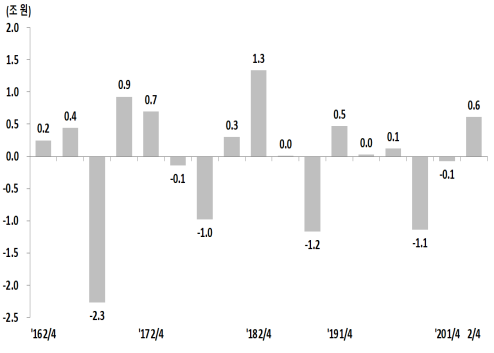
○ 반면,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보험금 지급 및 사업비 등이 감소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0.57조 원 증가한 0.6조 원 흑자를 나타냄

〈그림 30〉 투자영업이익



자료: 생명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31〉 영업이익



자료: 생명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2) 생명보험 후순위채 및 기타부채

■ 생명보험 후순위채 규모는 2016년 2/4분기 0.7조 원에서 2020년 2/4분기 3.0조 원으로 증가하였고, 총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0.1%에서 0.36%로 확대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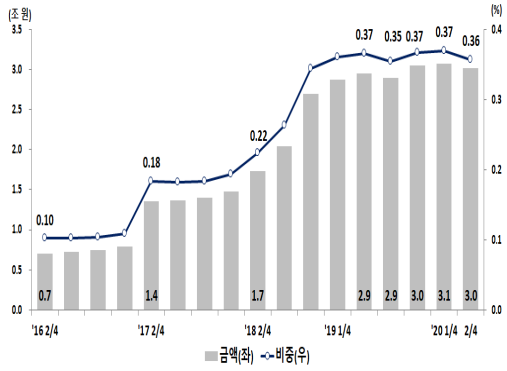
○ 이는 자본 확충을 위하여 일부 생명보험회사들이 후순위채를 발행하였기 때문임

■ 생명보험 기타부채[4]는 2018년 2/4분기 26.3조 원에서 2020년 2/4분기 40.1조 원으로 증가하였고, 총부채 가운데 비중은 3.42%에서 4.73%로 확대됨

○ 생명보험 기타부채 증가의 주요 요인은 계약자지분조정과 이연법인세부채 확대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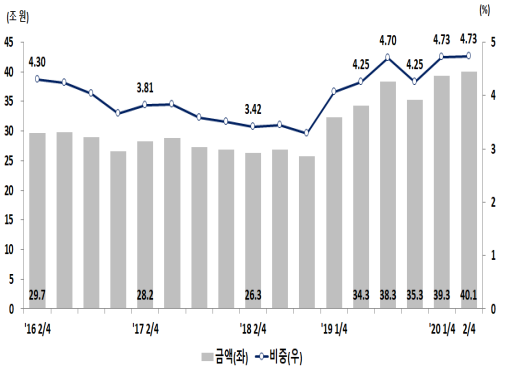
4) 기타부채는 총부채에서 책임준비금, 특별계정부채, 후순위채를 제외한 나머지 부채를 의미함

〈그림 32〉 후순위채



주: 비중은 총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임
자료: 생명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33〉 기타부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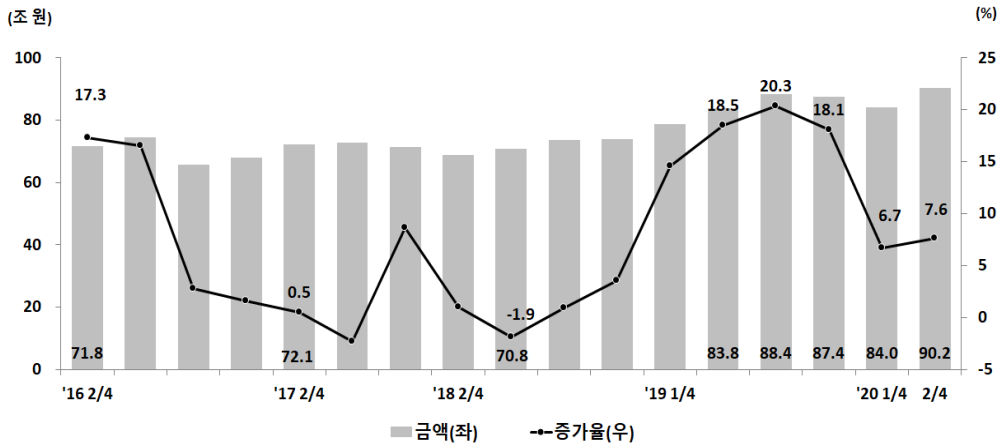
주: 비중은 총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임
자료: 생명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3) 생명보험 자본

■ 2020년 2/4분기 생명보험 총자본은 이익잉여금과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 증가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7.6% 증가한 90.2조 원을 기록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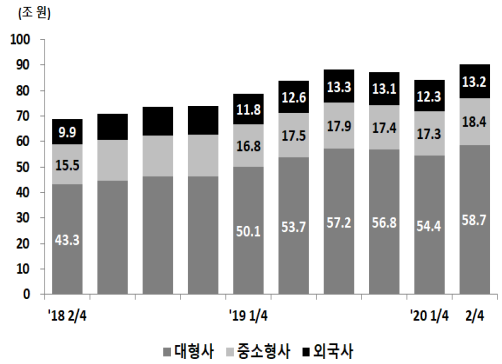
○ 그룹별로 보면, 대형사 총자본이 전년 동기 대비 9.3% 증가하였으며, 중소형사와 외국사 총자본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.0%, 4.4% 증가함

〈그림 34〉 생명보험 총자본 및 증가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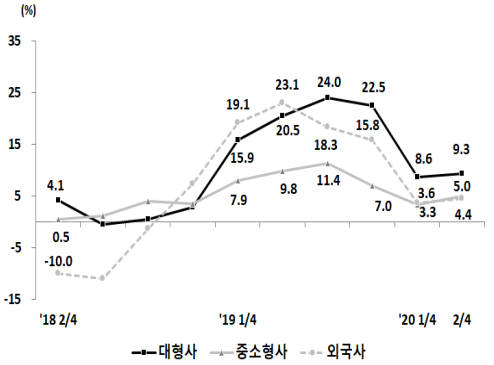
주: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
자료: 생명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35〉 생명보험회사 유형별 총자본



자료: 생명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36〉 생명보험회사 유형별 총자본 증가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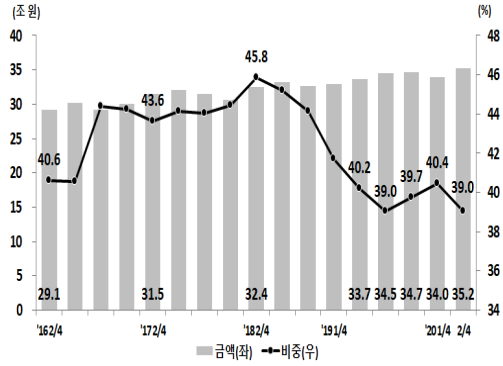
주: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
자료: 생명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■ 2020년 2/4분기 생명보험의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 총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분기 대비 확대되었으나, 이익잉여금, 신종자본증권, 기타자본의 비중은 전분기 대비 축소됨

○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비중은 채권 평가이익 확대로 전분기 대비 2.9%p 상승한 39.7%를 나타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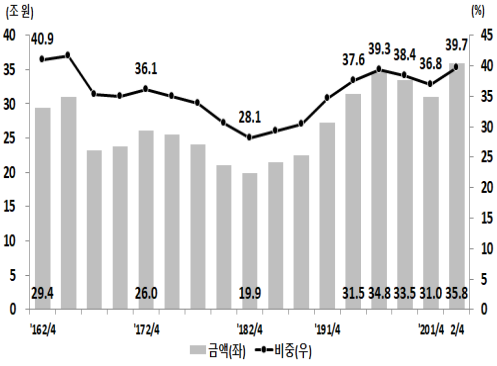
○ 이익잉여금, 신종자본증권, 기타자본이 총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분기 대비 각각 1.4%p, 0.3%p, 1.2%p 축소된 39.0%, 4.0%, 17.3%임

〈그림 37〉 이익잉여금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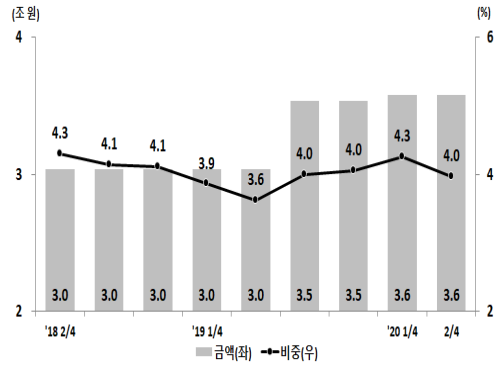
주: 비중은 총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중임
자료: 생명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38〉 기타포괄손익누계액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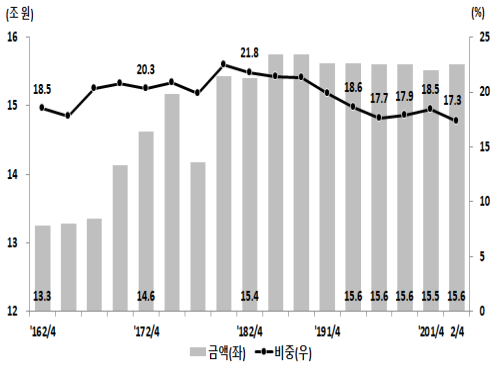
주: 비중은 총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중임
자료: 생명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39〉 신종자본증권



주: 비중은 총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중임
자료: 생명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40〉 기타자본



주: 비중은 총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중임
자료: 생명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다. 손해보험 성장 요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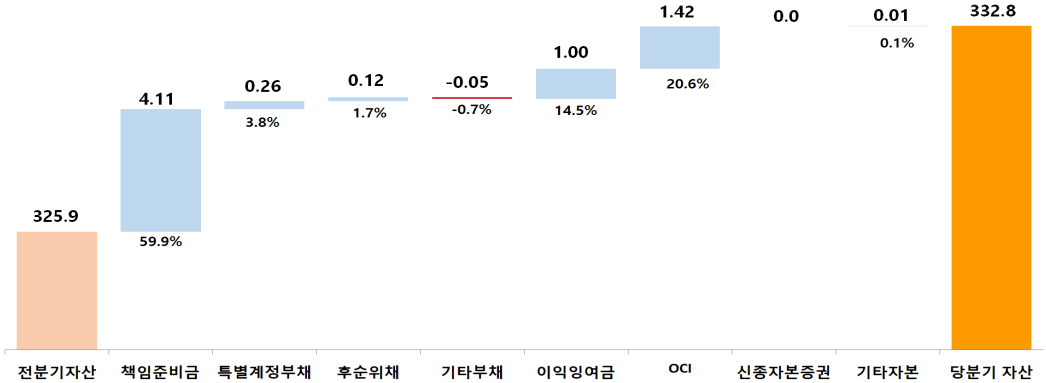
■ 2020년 2/4분기 손해보험 총자산은 전분기 대비 6.9조 원 증가하였으며, 책임준비금, 기타포괄손익누계액(OCI), 이익잉여금 순으로 자산 성장에 기여함

○ 책임준비금은 4.11조 원 증가하여 총자산 증가에 가장 크게(59.9%) 기여함

○ 또한, 기타포괄손익누계액(OCI)과 이익잉여금도 전분기 대비 각각 1.42조 원, 1조 원 증가하여 총자산 변화에 20.6%, 14.5% 기여함

〈그림 41〉 손해보험산업 자산 변화

(단위: 조 원)



주: OCI는 기타포괄손익누계액임
자료: 손해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1) 손해보험 책임준비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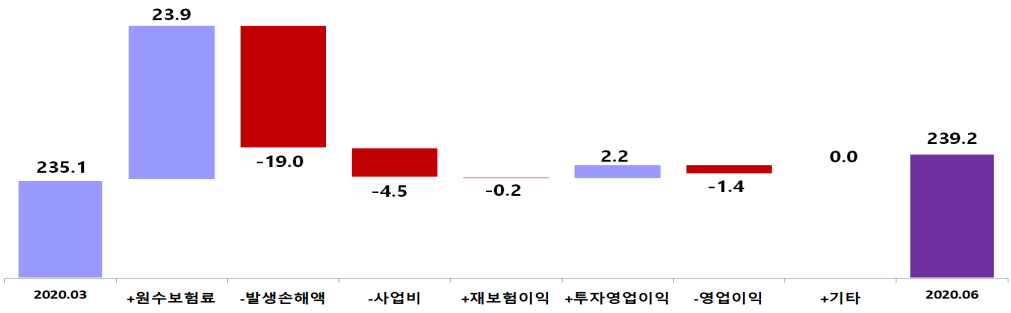
■ 2020년 2/4분기 손해보험산업의 책임준비금은 전분기 대비 4.1조 원 증가함

○ 원수보험료에서 발생손해액과 사업비[5] 지출을 차감한 금액은 430억 원임

○ 투자영업이익 증가는 책임준비금 증가에 2.2조 원 기여함

〈그림 42〉 손해보험산업 책임준비금 변화

(단위: 조 원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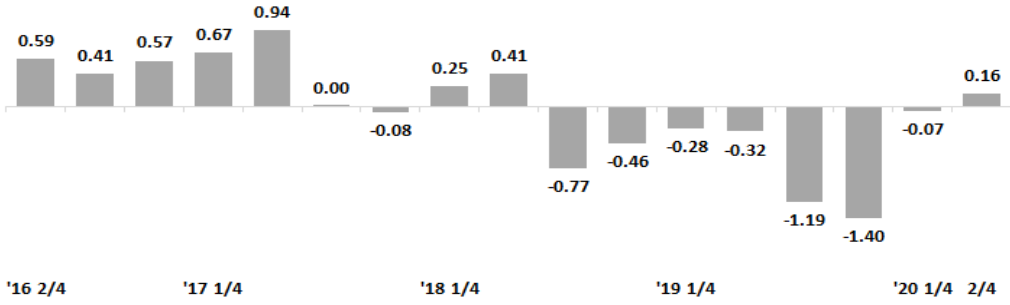
자료: 손해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■ 손해보험의 보험영업현금흐름(원수보험료 - 발생손해액 - 실제사업비)은 2018년 3/4분기부터 적자를 지속하여 왔으나, 2020년 2/4분기에는 흑자(+0.16조 원)로 전환됨

○ 이는 원수보험료가 증가하고 발생손해액과 사업비 증가세도 둔화되었기 때문임

〈그림 43〉 손해보험 보험영업현금흐름

(단위: 조 원)



주: 보험영업현금흐름은 원수보험료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 사업비(순사업비 + 이연신계약비 - 신계약비상각비)를 차감한 금액임

자료: 손해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5) 여기서 사업비는 순사업비로 이연전사업비와 신계약비상각비를 감안하지 않은 금액을 의미함

가) 손해보험 원수보험료

■ 2020년 2/4분기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장기손해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성장으로 전년 동기 대비 4.0% 증가한 23.9조 원을 기록함

○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장기 질병 및 상해보험 성장세 지속과 운전자보험의 신규판매 확대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5.0% 증가한 13.8조 원을 기록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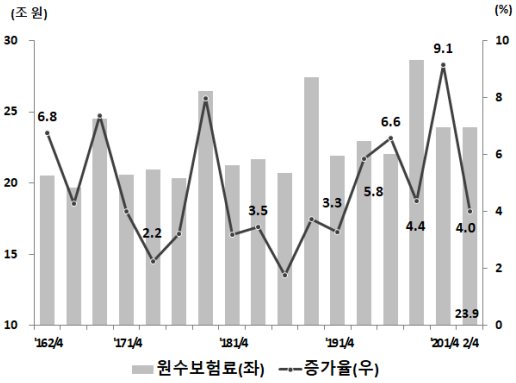
- 어린이 교통안전과 관련한 법률[6] 강화로 운전자보험 신규판매가 확대됨

○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자동차 보험료 인상[7]과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[8]로 인한 승용차 판매 확대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.4% 증가한 5.0조 원을 나타냄

○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해상보험과 기타특종보험 증가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6.7% 증가한 2.8조 원을 기록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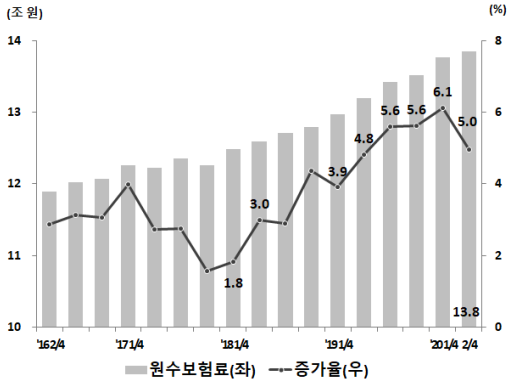
○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원수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0.1%, 20.8% 감소한 0.8조 원, 1.6조 원을 나타냄

〈그림 44〉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추이



주: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
자료: 손해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45〉 장기손해보험 보험료 및 증가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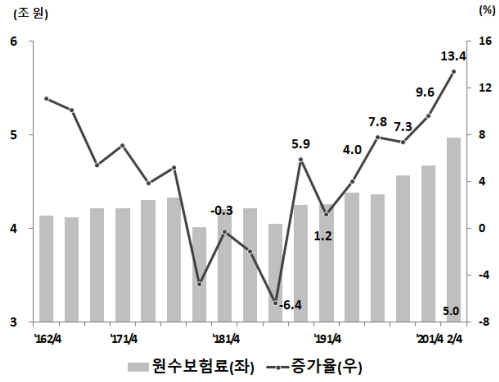
주: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
자료: 손해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6) 2020년 3월 25일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으로, 스쿨존 내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가해자에게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, 상해 발생 시 500만 원 이상 3,0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에 처함

7) 2020년 2월 약 3.5% 수준의 자동차 보험료 조정이 이루어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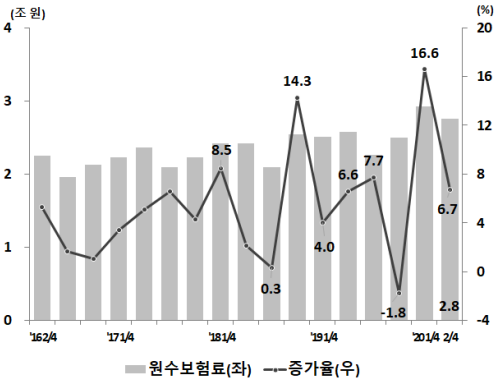
8) 정부는 내수활성화 및 자동차산업 활력 제고를 위하여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2020년 6월 말까지 70% 인하함

〈그림 46〉 자동차보험 보험료 및 증가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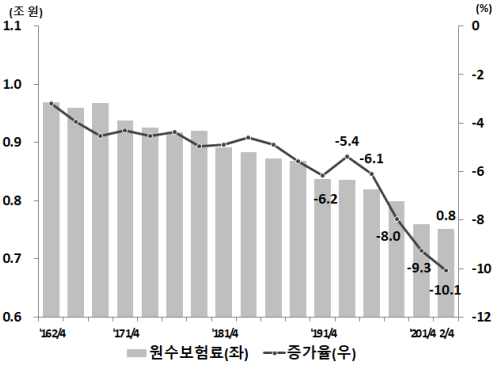
주: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
자료: 손해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47〉 일반손해보험 보험료 및 증가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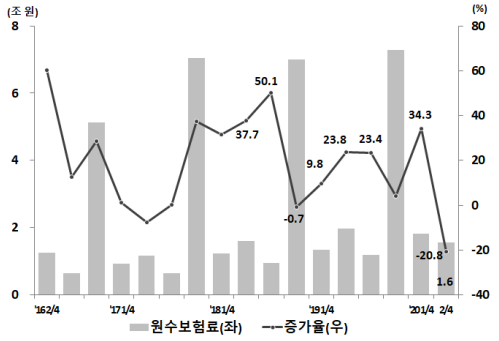
주: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
자료: 손해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48〉 개인연금 보험료 및 증가율



주: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
자료: 손해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49〉 퇴직연금 보험료 및 증가율



주: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
자료: 손해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■ 2020년 2/4분기 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비중의 경우 자동차보험과 일반손해보험의 비중이 전년 동기 대비 확대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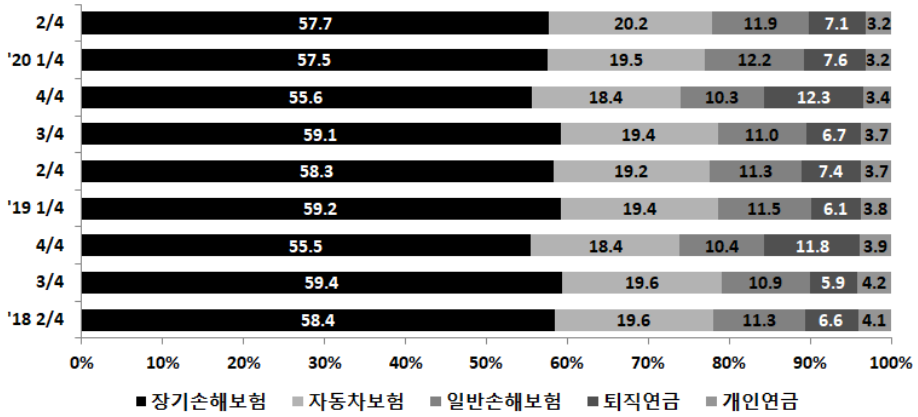
○ 자동차보험과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 비중은 각각 20.2%, 11.9%로, 전년 동기에 비하여 각각 1.0%p, 0.6%p 확대됨

- 이는 자동차보험과 일반손해보험의 원수보험료 성장세가 상대적으로 컸기 때문임

○ 반면,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 비중은 전년 동기 대비 0.6%p 축소된 57.7%를 나타냄

○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원수보험료 비중은 각각 7.1%, 3.2%로, 전년 동기에 비하여 각각 0.3%p, 0.5%p 축소됨

〈그림 50〉 원수보험료 종목별 비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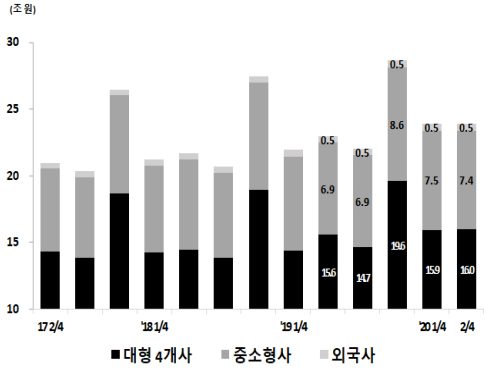


주: 전체 원수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임
자료: 손해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■ 회사 유형별로 보면, 2020년 2/4분기 대형사의 원수보험료 증가율은 2.74%로 다른 그룹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나타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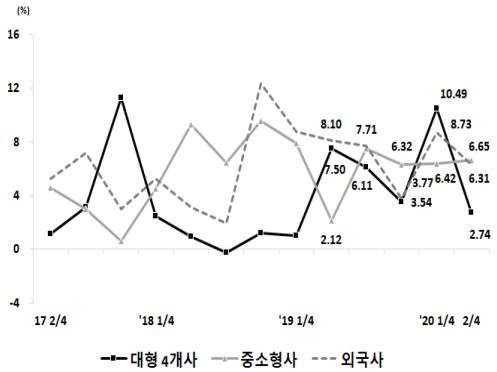
○ 중소형사와 외국사의 원수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.65%, 6.31% 증가함

〈그림 51〉 손해보험회사 유형별 원수보험료



자료: 손해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52〉 손해보험회사 유형별 원수보험료 증가율



주: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
자료: 손해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나) 손해보험 발생손해액 및 사업비

■ 2020년 2/4분기 손해보험산업의 발생손해액과 사업비는 각각 전년 동기 대비 0.9%, 2.7% 증가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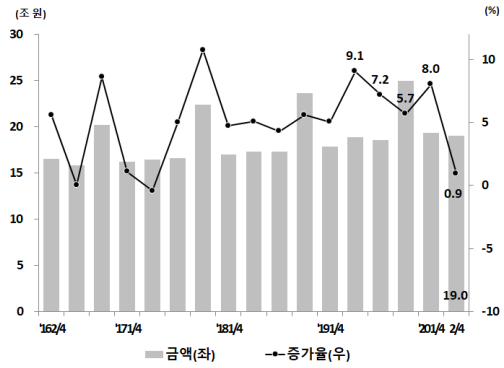
○ 최근 자동차보험과 장기손해보험 발생손해액은 증가세를 보여 왔으나, 이번 분기에는 증가세가 둔화됨

- 이번 분기 코로나19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자동차 운행량이 감소하고 병원 이용량도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추정됨

○ 올해 들어 전체 손해보험 사업비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세가 전년에 비해서는 둔화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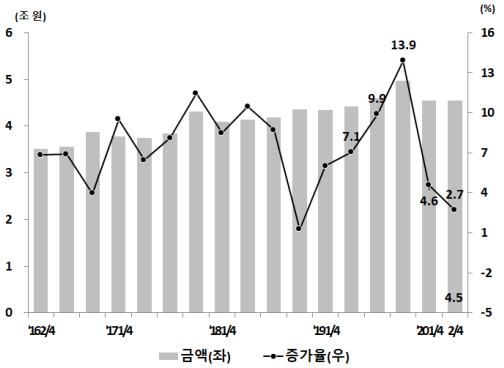
- 장기 상해 및 질병보험의 판매경쟁 소폭 완화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채널 판매 확대 등이 주요 원인임

〈그림 53〉 발생손해액



주: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
자료: 손해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54〉 사업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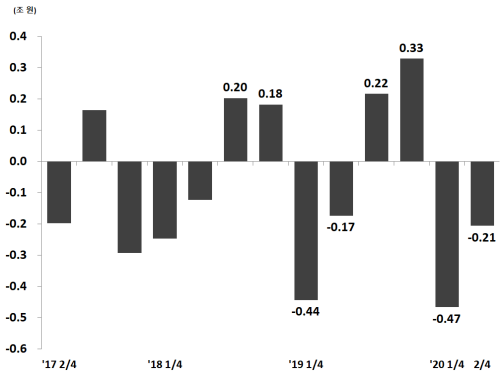
주: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
자료: 손해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다) 재보험 이익

■ 2020년 2/4분기 손해보험의 재보험 이익은 0.21조 원 적자를 기록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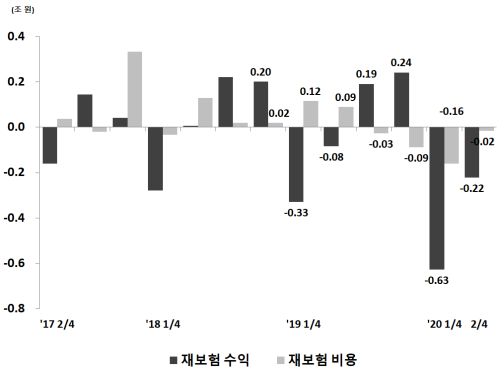
○ 재보험 수익은 -0.22조 원으로 전년 동기에 비하여 악화된 반면, 재보험 비용은 -0.02조 원으로 전년 동기에 비하여 개선됨

〈그림 55〉 손해보험 재보험 이익



자료: 손해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56〉 손해보험 재보험 수익 및 비용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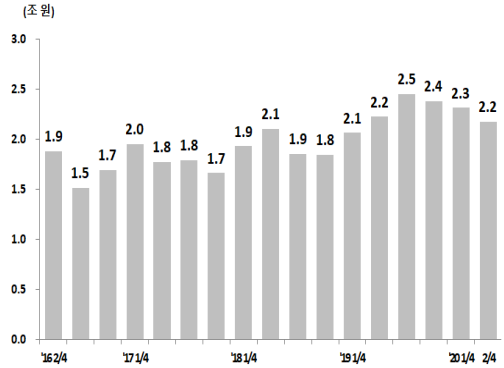
자료: 손해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라) 손해보험 투자영업이익 및 영업이익

■ 2020년 2/4분기 손해보험 투자영업이익은 2.2조 원이었으며, 영업이익은 1.4조 원을 나타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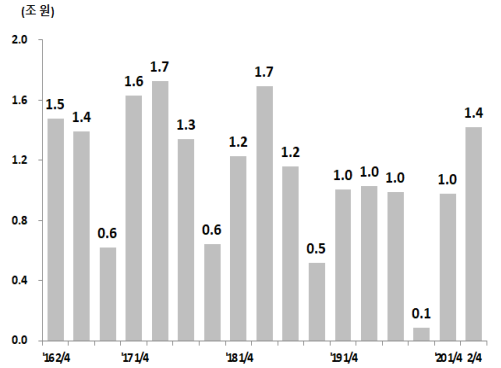
○ 투자영업이익은 전년 동기에 비하여 453억 원 축소되었으나,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에 비하여 3,911억 원 증가함

〈그림 57〉 투자영업이익



자료: 손해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58〉 영업이익



자료: 손해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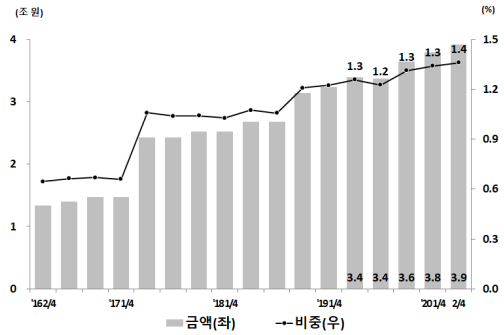
2) 손해보험 후순위채 및 기타부채

■ 2020년 2/4분기 손해보험의 총부채 가운데 후순위채와 기타부채[9]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 동기 대비 확대됨

○ 후순위채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0.5조 원 증가한 3.9조 원을, 총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 동기 대비 0.1%p 확대된 1.4%를 나타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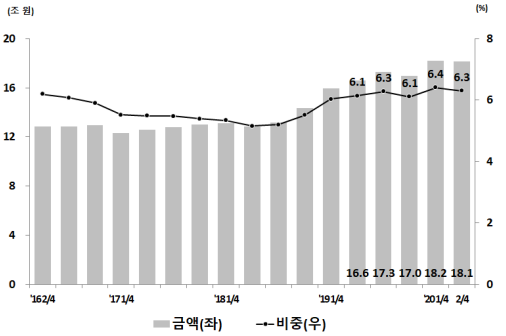
○ 기타부채는 전년 동기 대비 1.5조 원 증가한 18.1조 원을 기록하였으며, 총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6.3%로 전년 동기 대비 0.2%p 확대됨

〈그림 59〉 후순위채



주: 비중은 총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임
자료: 손해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60〉 기타부채



주: 1) 기타부채는 부채에서 책임준비금, 특별계정부채, 후순위채를 제외한 값임
2) 비중은 총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임
자료: 손해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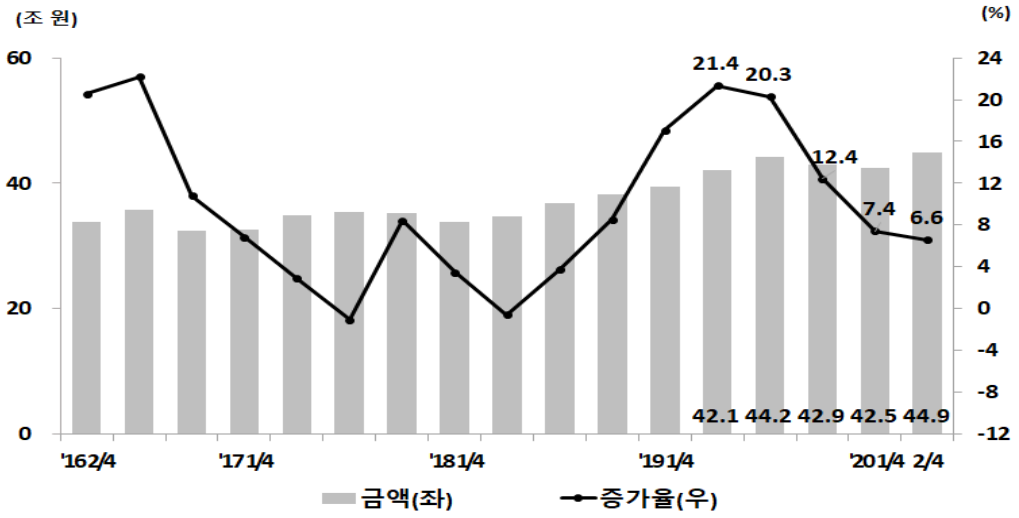
3) 손해보험 자본

■ 2020년 2/4분기 손해보험 총자본은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[10] 확대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6.6% 증가한 44.9조 원을 기록함

○ 금리 하락에 따른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 확대로 대형사와 중소형사 총자본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.3%, 9.7% 증가한 반면, 외국사 총자본은 전년 동기 대비 2.8% 증가에 그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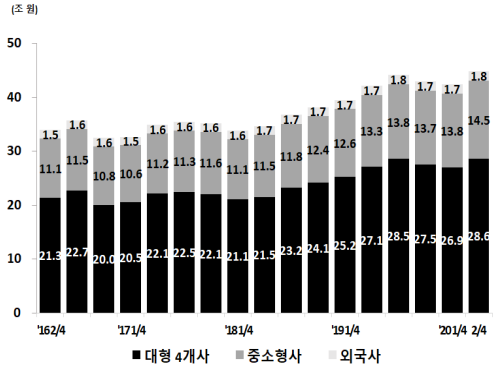
9) 기타부채는 총부채에서 책임준비금, 특별계정부채, 후순위채를 제외한 나머지 부채를 의미함
10)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은 자본 항목인 기타포괄손익누계액(OCI)에 포함됨

〈그림 61〉 손해보험 총자본 및 증가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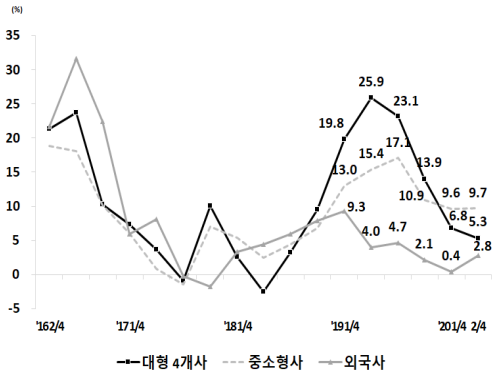
주: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
자료: 손해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62〉 손해보험회사 유형별 자본



자료: 손해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63〉 손해보험회사 유형별 자본 증가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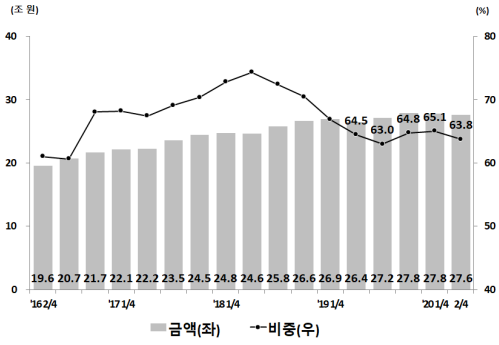


주: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
자료: 손해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■ 2020년 2/4분기 손해보험의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 총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 확대 등으로 전분기 말 대비 증가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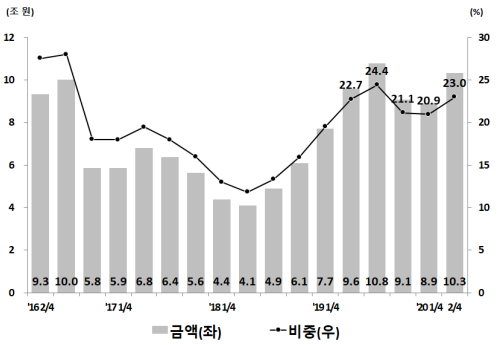
○ 반면, 총자본 가운데 이익잉여금, 신종자본증권, 기타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모두 전분기 말 대비 축소됨

〈그림 64〉 이익잉여금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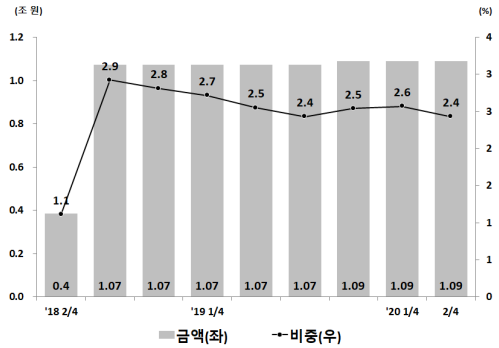
주: 비중은 총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중임
자료: 손해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65〉 기타포괄손익누계액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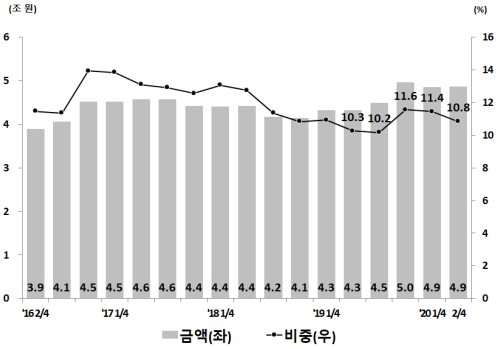
주: 비중은 총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중임
자료: 손해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66〉 신종자본증권



주: 비중은 총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중임
자료: 손해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67〉 기타자본



주: 비중은 총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중임
자료: 손해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2. 수익성

가. 당기순이익

■ 2020년 2/4분기 생명보험의 누적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며, 손해보험의 누적 당기순이익은 증가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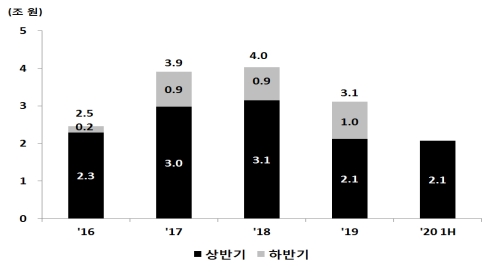
○ 2020년 상반기 생명보험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.6% 감소한 2.1조 원 흑자를 기록함

- 보험영업손실은 주가하락으로 인한 보증준비금 전입액 증가로 확대된 반면, 투자영업이익은 금융자산 처분이익 확대 등에 기인하여 증가함

○ 2020년 상반기 손해보험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5.5% 증가한 1.7조 원 흑자를 기록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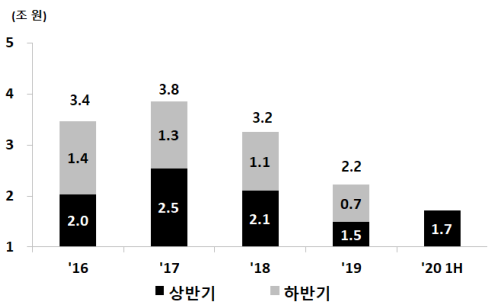
- 금융자산 처분손익 증가로 투자영업이익이 확대되었고 코로나19에 따른 자동차 운행 및 사고 감소로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하락하며 보험영업에서의 손실이 개선됨

〈그림 68〉 생명보험 당기순이익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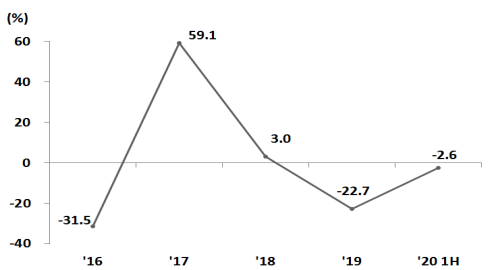
자료: 생명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69〉 손해보험 당기순이익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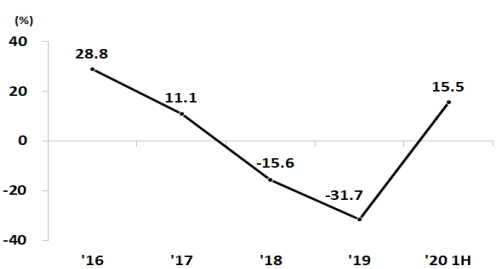
자료: 손해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70〉 생명보험 당기순이익 증가율



주: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
자료: 생명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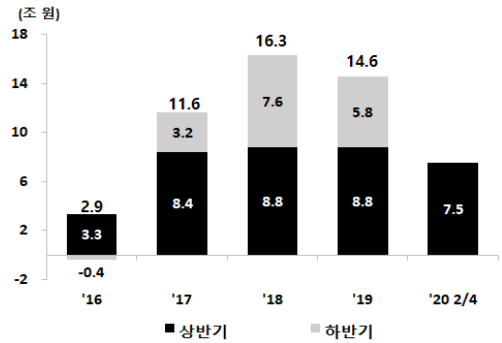
〈그림 71〉 손해보험 당기순이익 증가율



주: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
자료: 손해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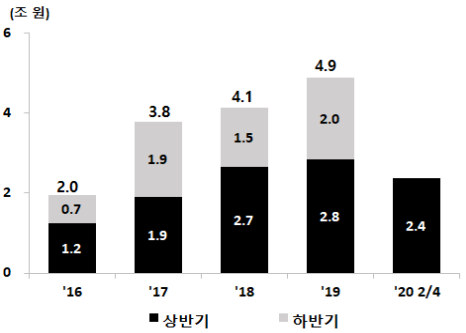
■ 2020년 상반기 은행 산업의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4.7% 감소한 7.5조 원을, 증권 산업의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6.5% 감소한 2.4조 원을 나타냄

〈그림 72〉 은행 당기순이익



주: 국내은행은 일반은행과 특수은행으로 구성됨
자료: 금융감독원

〈그림 73〉 증권 당기순이익



자료: 금융감독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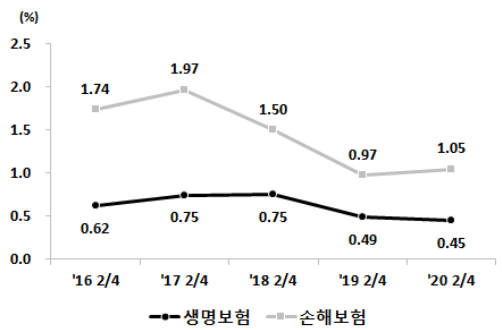
나. ROA, ROE

■ 생명보험산업 ROA와 ROE는 당기순이익 감소 및 자기자본 증가의 영향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, 손해보험산업은 당기순이익 증가로 ROA와 ROE 모두 증가함

○ 2020년 상반기 생명보험산업의 ROA는 0.45%로 전년 동기 대비 0.04%p 하락하였으며, 손해보험산업의 ROA는 1.05%로 전년 동기 대비 0.08%p 상승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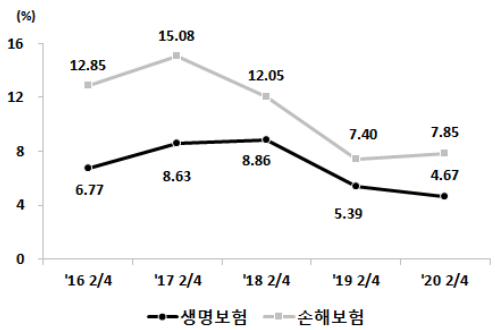
○ 2020년 상반기 생명보험산업의 ROE는 전년 동기 대비 0.72%p 하락한 4.67%를, 손해보험산업의 ROE는 전년 동기 대비 0.45%p 상승한 7.85%를 나타냄

〈그림 74〉 보험산업 ROA



자료: 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75〉 보험산업 ROE



자료: 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다. 보험영업이익 관련 지표

1) 생명보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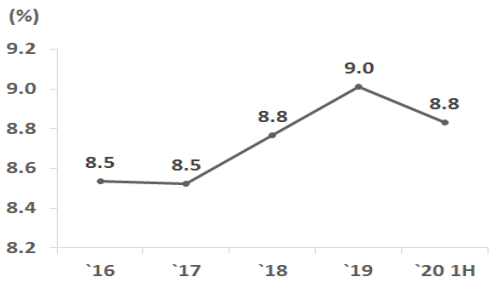
■ 2020년 상반기 생명보험산업의 해지율은 2019년 말 대비 감소하였으나, 사업비율 및 보험금 지급률은 2019년 말 대비 상승함

○ 2020년 상반기 해지율은 2019년 말 대비 소폭 하락한 8.8%를 기록함

○ 상반기 사업비율은 2019년 말 대비 0.9%p 상승한 14.0%로 나타났으며, 이는 보험료 인상 이전에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수요가 확대되어 사업비가 증가하였기 때문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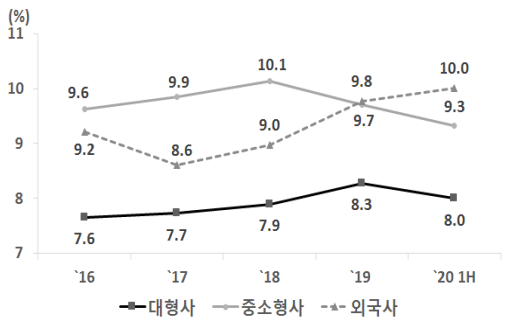
○ 보험금 지급률은 1/4분기 지급보험금의 증가로 2020년 상반기 85.1%를 나타냄

〈그림 76〉 생명보험 해지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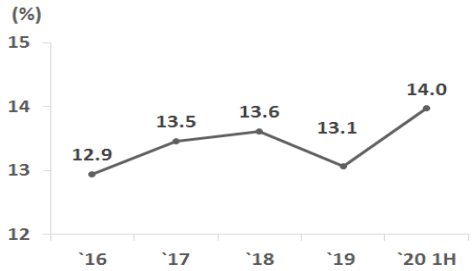
주: 1) 해지율 = (효력상실액 + 해지액) / (연초보유계약액 + 신계약액)
2) 2020년 상반기는 연율화 한 수치임
자료: 생명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77〉 생명보험회사 유형별 해지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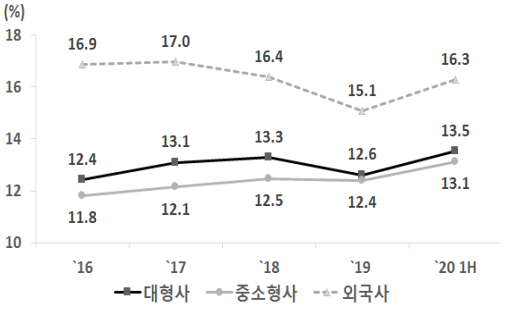
주: 1) 해지율 = (효력상실액 + 해지액) / (연초보유계약액 + 신계약액)
2) 2020년 상반기는 연율화 한 수치임
자료: 생명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78〉 생명보험 사업비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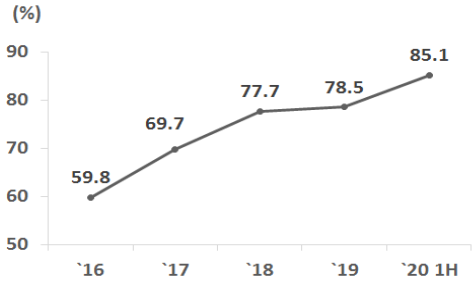
주: 사업비율 = 사업비 / 수입보험료
자료: 생명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79〉 생명보험회사 유형별 사업비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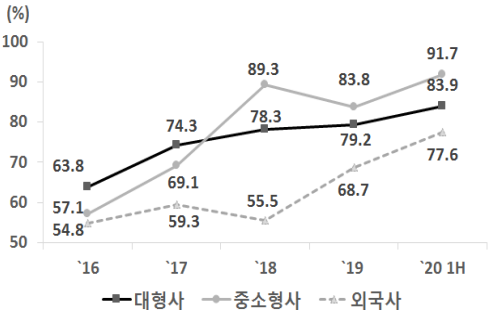
주: 사업비율 = 사업비 / 수입보험료
자료: 생명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80〉 생명보험 보험금 지급률



주: 보험금 지급률 = 지급보험금 / 수입보험료
자료: 생명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81〉 생명보험회사 유형별 보험금 지급률



주: 보험금 지급률 = 지급보험금 / 수입보험료
자료: 생명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2) 손해보험

■ 2020년 상반기 손해보험산업 합산비율은 손해율 하락으로 전년 말 대비 0.8%p 개선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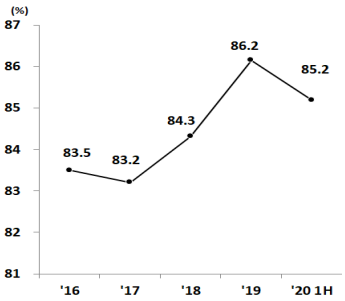
○ 손해보험산업 손해율은 사상 최장기간 장마 피해에도 불구하고,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개선됨에 따라 전년 말 대비 1.0%p 하락함

-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코로나19에 따른 자동차 운행 및 사고 감소와 보험료 인상 효과로 2019년 92.8%에서 2020년 상반기 84.3%로 개선됨

○ 사업비율은 장기 보장성보험 신계약 감소에도 불구하고 운전자보험 판매 증가로 전년 말 대비 0.2%p 상승한 19.7%를 나타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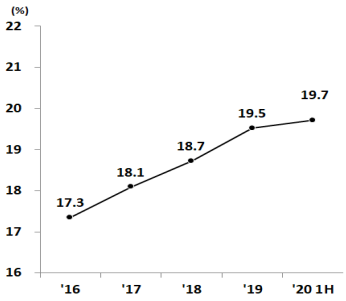
- 특히, 상반기 운전자보험 사업비는 지난 3월에 시행된 어린이 교통안전과 관련한 법률 강화의 영향으로 인한 판매 증가로 전년 말 대비 3.6%p 상승함

〈그림 82〉 손해보험 손해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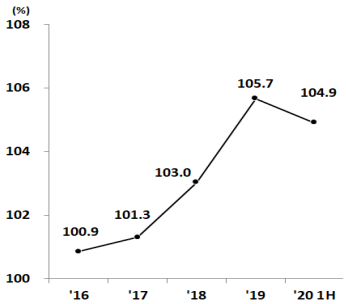
자료: 손해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83〉 손해보험 사업비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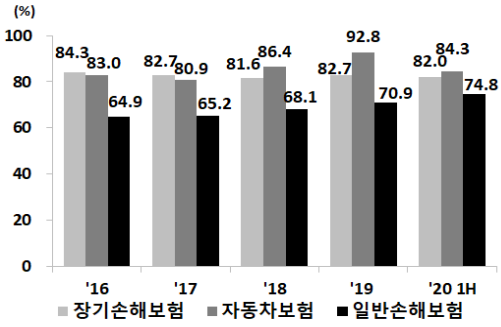
자료: 손해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84〉 손해보험 합산비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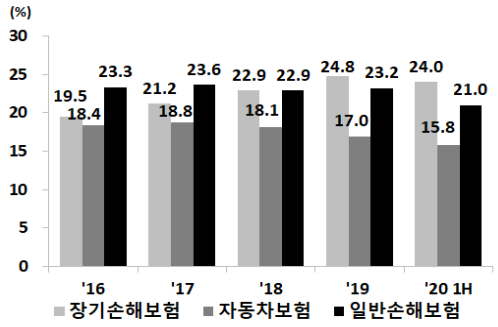
자료: 손해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85〉 손해보험 종목별 손해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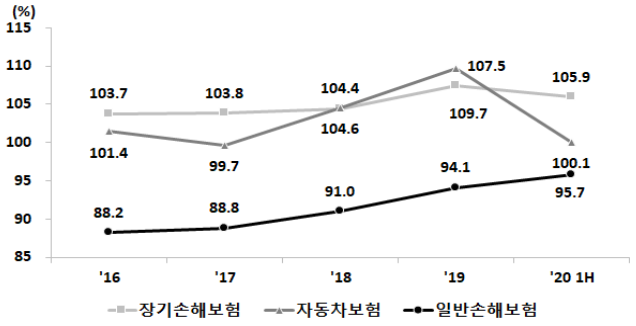
자료: 손해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86〉 손해보험 종목별 사업비율



자료: 손해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87〉 손해보험 종목별 합산비율



자료: 손해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라. 투자영업이익 관련 지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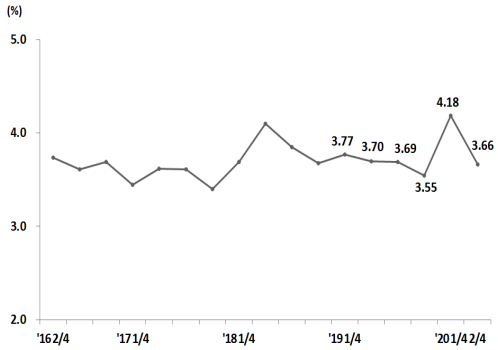
1) 운용자산이익률

■ 2020년 2/4분기 보험산업의 운용자산이익률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하락함

○ 2020년 1/4분기 금융자산처분 이익 증가로 생명보험 운용자산이익률은 상승하였으나, 2/4분기에는 금리하락에 따른 이자수익 감소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0.04%p 하락한 3.66%를 기록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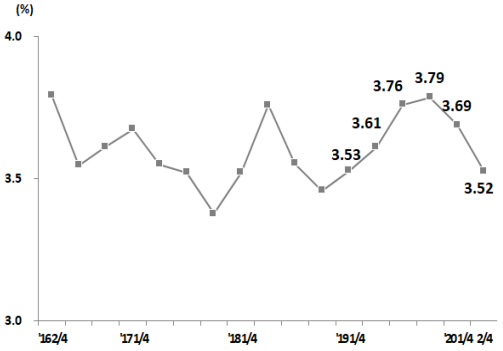
○ 2020년 2/4분기 손해보험 운용자산이익률은 금리하락으로 인한 이자수익 감소로 전년 동기 대비 0.09%p 하락한 3.52%를 기록함

〈그림 88〉 생명보험 운용자산이익률



주: 운용자산이익률 = 운용자산손익 / 기중운용자산
자료: 생명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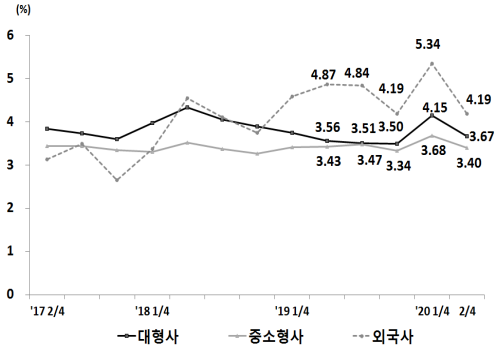
〈그림 89〉 손해보험 운용자산이익률



주: 운용자산이익률 = 운용자산손익 / 기중운용자산
자료: 손해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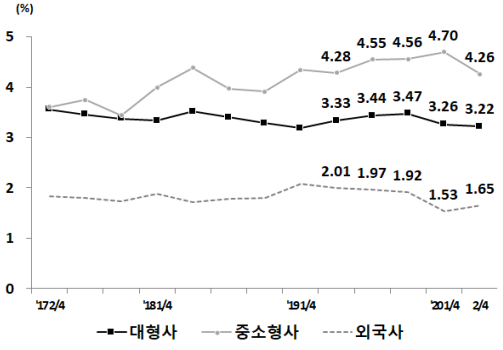
■ 생명보험의 경우 대형사와 외국사의 운용자산이익률이 전분기에 비하여 크게 하락하였으며, 손해보험의 경우 외국사의 운용자산이익률은 전분기에 비해 상승한 반면 대형사와 중소형사는 전분기에 비하여 하락함

〈그림 90〉 생명보험회사 유형별 운용자산이익률



주: 운용자산이익률 = 운용자산손익 / 기중운용자산
자료: 생명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91〉 손해보험회사 유형별 운용자산이익률



주: 운용자산이익률 = 운용자산손익 / 기중운용자산
자료: 손해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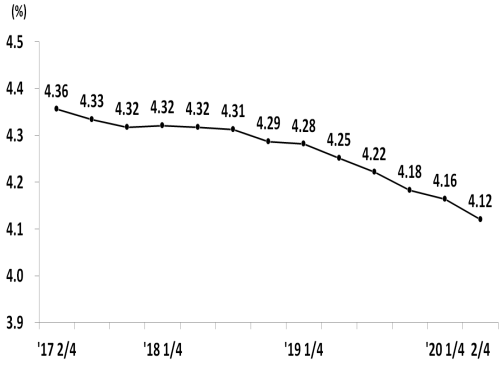
2) 보험료 적립금 평균 금리

■ 생명보험산업의 보험료 적립금 평균 금리는 시장금리 하락의 영향으로 하락세를 나타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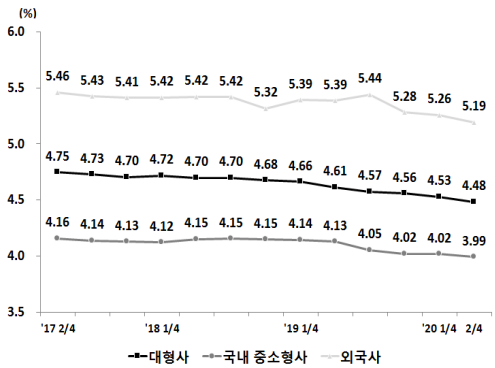
○ 시장금리 하락으로 2/4분기 생명보험 보험료 적립금 평균 금리는 4.12%까지 하락하였으나, 이는 생명보험 운용자산이익률 3.66%보다 높은 수준임

○ 회사 그룹별로 보면, 외국사의 적립금 평균 금리가 높은 편이며, 모든 그룹에서 적립금 평균 금리가 하락하고 있음

〈그림 92〉 생명보험 보험료 적립금의 평균 금리



〈그림 93〉 생명보험회사 유형별 보험료 적립금의 평균 금리



주: 평균 금리 = (적용 금리수준의 보험료 적립금 × 적용 금리수준의 중간 값) / 총보험료 적립금
자료: 생명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마. 이익구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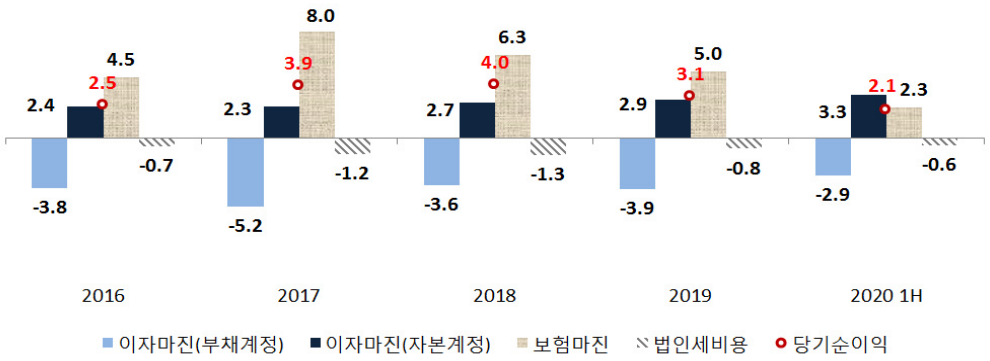
1) 생명보험 당기순이익 구성

■ 2020년 상반기 생명보험산업 이자마진과 보험마진은 각각 0.4조 원, 2.3조 원이었으며, 전체 당기순이익은 2.1조 원 흑자를 나타냄

○ 부채계정 이자마진은 운용자산이익률 하락으로 -2.9조 원을 나타냈으며, 자본계정 이자마진은 매도가능평가이익 증가에 따른 자본 증가로 3.3조 원을 기록함

○ 보험마진은 주가하락으로 인한 보증준비금 확대, 보험금 및 사업비 지급 증가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2.3조 원을 나타냄

〈그림 94〉 생명보험 당기순이익 구성



주: 1) 이자마진(부채계정) = 책임준비금 평균 잔액 × (자산운용이익률 - 보험료 적립금의 평균 금리)
2) 이자마진(자본계정) = 자본 평균 잔액 × 자산운용이익률
3) 보험마진 =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- 이자마진(부채계정) - 이자마진(자본계정)
자료: 생명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2) 손해보험

가) 당기순이익 구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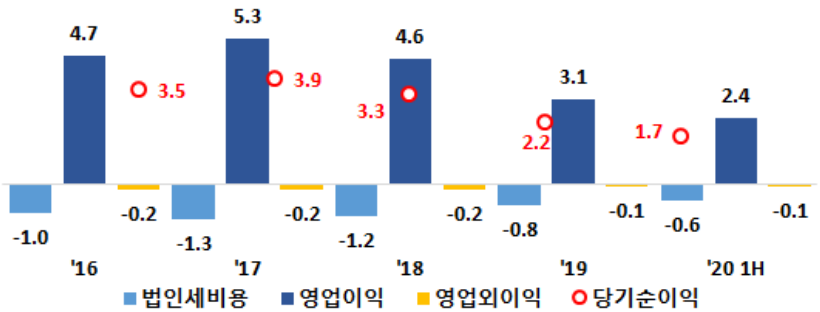
■ 2020년 상반기 손해보험산업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개선으로 전년 동기 대비 0.2조 원 증가한 1.7조 원 흑자를 기록함

○ 영업이익은 2.4조 원 흑자, 영업외이익은 0.1조 원 적자를 기록함

○ 특히, 영업이익의 경우 자동차보험의 손해율 하락으로 전년 동기 대비 크게 개선됨

〈그림 95〉 손해보험 당기순이익 구성

(단위: 조 원)



자료: 손해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나) 영업이익 구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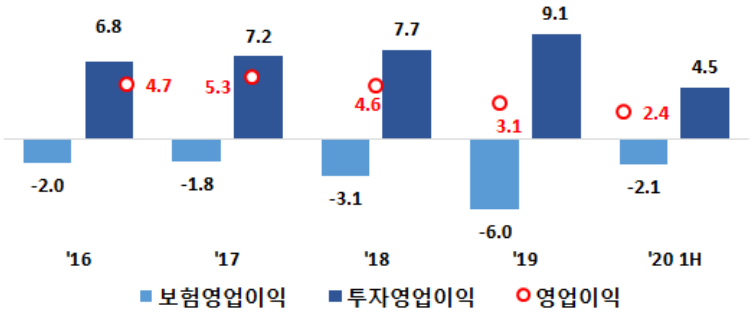
■ 2020년 상반기 손해보험산업 영업이익은 보험영업이익 적자폭 축소와 투자영업이익 확대로 2.4조 원 흑자를 기록함

○ 2020년 상반기 보험영업에서는 2.1조 원 손실을, 투자영업에서는 4.5조 원 이익을 실현함

○ 보험영업에서의 손실은 자동차보험 손해율 하락으로 전년 동기 대비 축소되었으며, 투자영업에서의 이익은 채권 등 금융자산 처분이익 증가 등으로 확대됨

〈그림 96〉 손해보험 영업이익 구성

(단위: 조 원)



자료: 손해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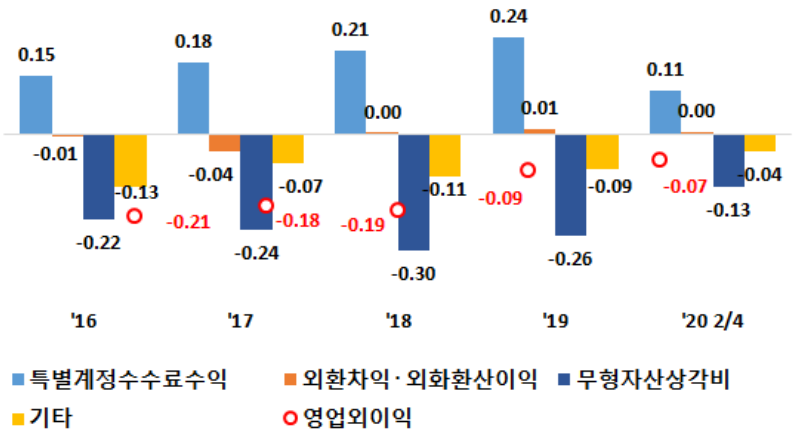
다) 영업외이익 구성

■ 손해보험산업 영업외이익은 0.07조 원 적자를 나타냈으며, 전년 동기 대비(-0.03조 원) 적자폭이 확대됨

○ 영업외이익 적자폭 확대는 외환차익 및 외화환산이익과 특별계정수수료 수익이 모두 감소하였기 때문임

〈그림 97〉 손해보험 영업외이익 구성

(단위: 조 원)



주: 1) 외환차익은 영업거래에서 발생한 외화자산 회수 및 외화부채 변제 시 발생한 환차익을 의미함
2) 외화환산이익은 화폐성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환산에 따라 발생한 환산차익을 의미함
3) 무형자산상각비는 개발비, 소프트웨어, 기타 무형자산의 상각비를 의미함

자료: 손해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3. 리스크[11)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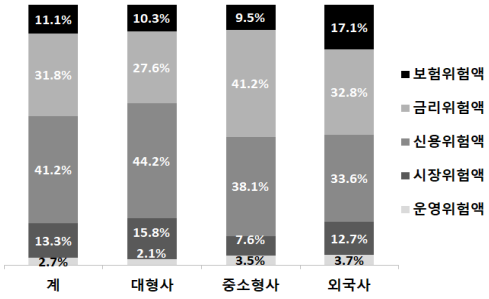
가. 총괄

■ 2020년 상반기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산업 모두 보유 위험 중 신용위험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,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회사 유형별로 각 리스크 비중이 상이하게 나타남

○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중소형사의 보유 위험 중 금리위험액 비중이 41.2%로 가장 높은 반면, 대형사와 외국사는 신용위험액 비중이 각각 44.2%, 33.6%로 높게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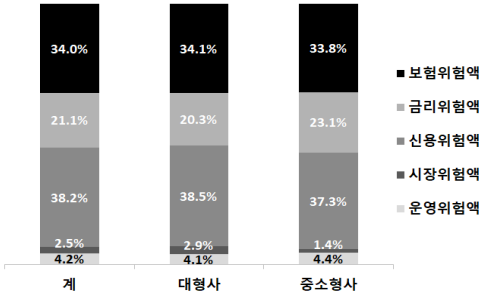
○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대형사, 중소형사 모두 보유 위험 중 신용위험액 비중이 각각 38.5%, 37.3%로 높게 나타남

〈그림 98〉 생명보험회사 유형별 보유 위험



주: 위에서부터 보험위험액, 금리위험액 순임
자료: 경영공시

〈그림 99〉 손해보험회사 유형별 보유 위험



주: 위에서부터 보험위험액, 금리위험액 순임
자료: 경영공시

나. 보험리스크

1) 생명보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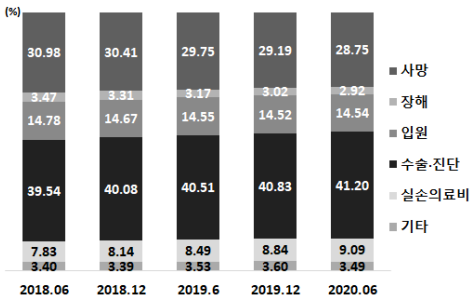
■ 전체 보험보장 익스포져 중 입원, 수술·진단, 실손의료비 보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한 반면 사망, 장해가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함

○ 입원과 수술·진단, 실손의료비 보장 비중은 각각 직전 반기 대비 0.02%p, 0.37%p, 0.25%p 증가한 반면, 사망, 장해 보장 비중은 각각 0.44%p, 0.10%p 감소함

11) 본장은 반기마다 자세히 공시되는 위험관리 부문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하며, 이번 호에서는 2020년 6월 말 공시 데이터를 기준으로 분석하였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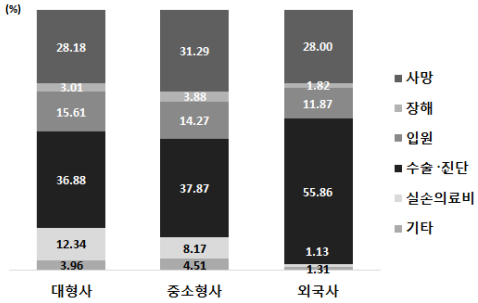
○ 외국사의 경우 대형사와 중소형사에 비해 수술·진단 보장 비중이 55.86%로 큰 편이고 실손의료비 보장 비중은 1.13%로 작은 편임

〈그림 100〉 보장 익스포져 비중



주: 위에서부터 사망, 장해, 입원 순임
자료: 경영공시

〈그림 101〉 회사 유형별 보험보장 익스포져 비중



주: 위에서부터 사망, 장해, 입원 순임
자료: 경영공시

2) 손해보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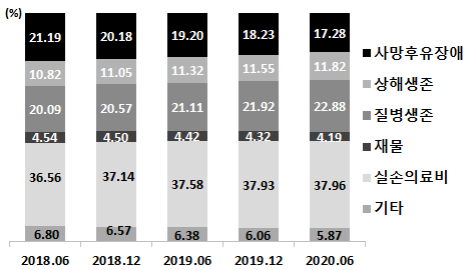
가) 장기손해보험

■ 전체 보험보장 익스포져 중 상해생존, 실손의료비 보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한 반면 사망후유장애, 질병생존, 재물 보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함

○ 상해생존, 실손의료비 비중은 각각 직전 반기 대비 0.27%p, 0.03%p 증가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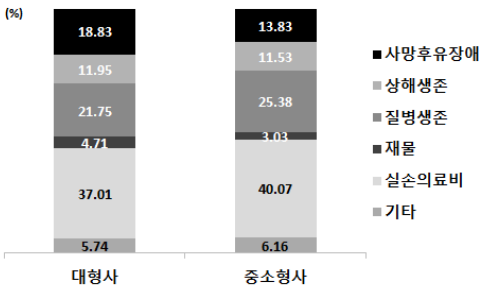
○ 반면, 사망후유장애와 질병생존, 재물 비중은 각각 직전 반기 대비 0.95%p, 0.96%p, 0.13%p 감소함

〈그림 102〉 장기손해보험 보장 익스포져 비중



주: 위에서부터 사망후유장애, 상해생존 순임
자료: 경영공시

〈그림 103〉 회사유형별 장기손해보험 보장 익스포져 비중



주: 위에서부터 사망후유장애, 상해생존 순임
자료: 경영공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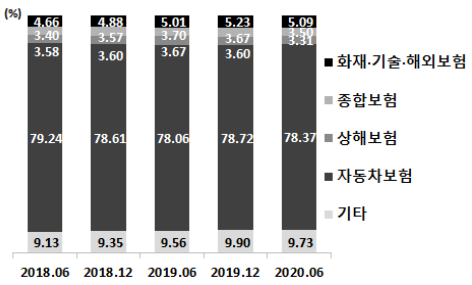
나) 자동차·일반손해보험

〈보험가격위험 익스포져〉

■ 자동차보험과 일반손해보험의 익스포져 비중은 직전 반기 대비 모두 감소함

○ 자동차보험과 상해보험 보장 비중은 각각 직전 반기 대비 0.35%p, 0.29%p 감소하였으며, 특히 중소형사의 자동차보험 보장 비중(-1.48%p)이 크게 감소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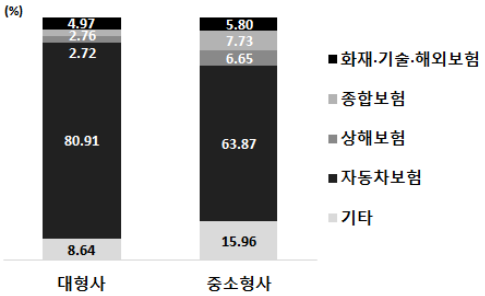
〈그림 104〉 자동차·일반손해보험 익스포져 비중



주: 1) 위에서부터 화재·기술·해외보험, 종합보험 순임
2) 기타에는 해상보험, 근재·책임보험, 기타일반보험, 외국인보험이 포함됨

자료: 경영공시

〈그림 105〉 회사 유형별 자동차·일반손해보험 익스포져 비중



주: 1) 위에서부터 화재·기술·해외보험, 종합보험 순임
2) 기타에는 해상보험, 근재·책임보험, 기타일반보험, 외국인보험이 포함됨

자료: 경영공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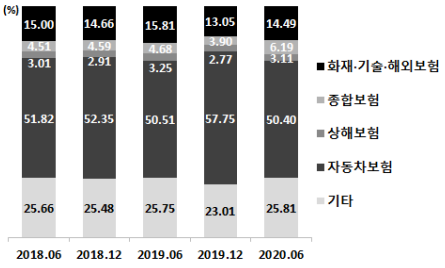
〈지급준비금위험 익스포져〉

■ 자동차·일반손해보험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보험의 익스포져는 직전 반기 대비 감소하였으나 나머지 보험의 익스포져 비중은 증가함

○ 자동차보험 익스포져 비중은 직전 반기 대비 7.35%p 감소하였으며, 특히 대형사(7.75%p)가 크게 감소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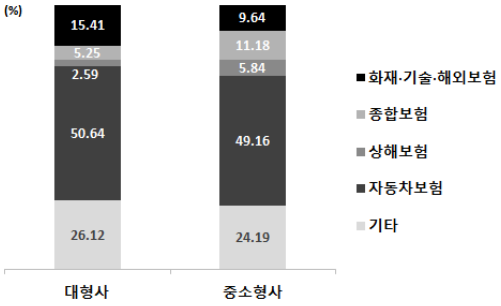
○ 중소형사의 경우 자동차보험과 상해보험 익스포져 비중이 각각 직전 반기 대비 4.87%p, 0.29%p 감소함

〈그림 106〉 자동차·일반손해보험 익스포져 비중



주: 위에서부터 화재·기술·해외보험, 종합보험 순임
자료: 경영공시

〈그림 107〉 회사 유형별 자동차·일반손해보험 익스포져 비중



주: 위에서부터 화재·기술·해외보험, 종합보험 순임
자료: 경영공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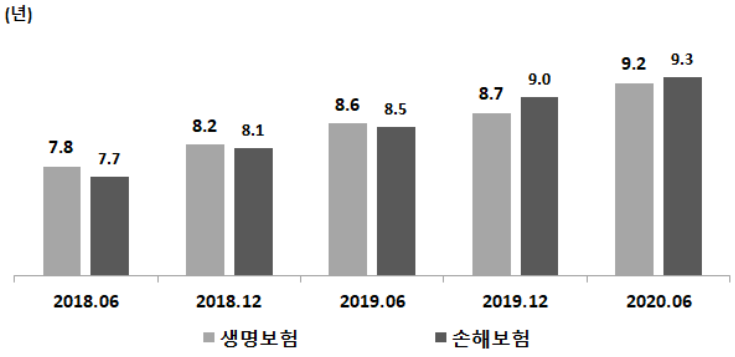
다. 자산리스크

1) 금리위험

■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산업의 자산 듀레이션은 각각 직전 반기 대비 0.5년, 0.3년 확대됨

○ 저금리에 따른 금리 역마진에 대응하여 장기 국채를 매입하는 등 자산듀레이션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음

〈그림 108〉 자산듀레이션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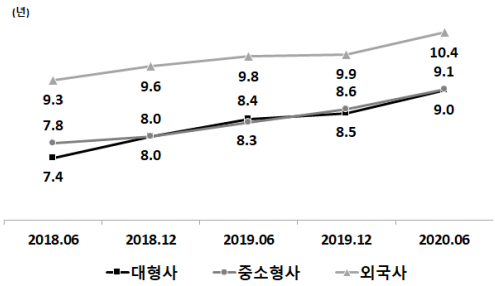


자료: 경영공시

■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중소형사가 대형사에 비해 자산듀레이션을 크게 확대시키고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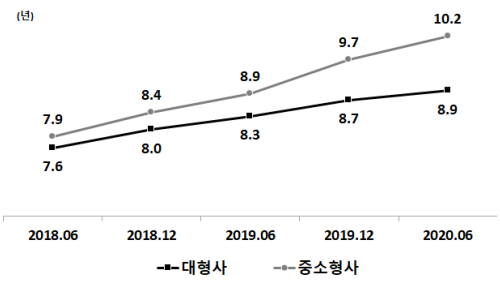
○ 손해보험 대형사와 중소형사의 자산듀레이션은 각각 직전 반기 대비 0.2년, 0.5년을 확대시킴

〈그림 109〉 생명보험회사 유형별 자산듀레이션



자료: 경영공시

〈그림 110〉 손해보험회사 유형별 자산듀레이션



자료: 경영공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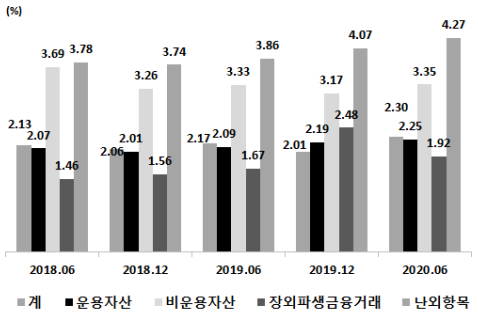
2) 신용위험

■ 생명보험의 신용위험계수는 직전 반기 대비 0.29%p 상승한 반면, 손해보험은 0.01%p 하락함

○ 생명보험의 신용위험계수는 장외파생금융거래를 제외한 모든 항목이 상승한 반면, 손해보험의 경우 모든 항목이 하락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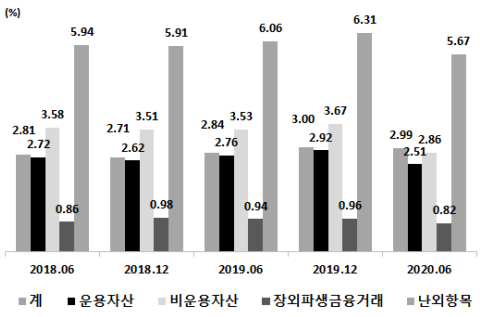
○ 특히, 손해보험 비운용자산의 신용위험계수가 직전 반기 대비 0.81%p 크게 하락함

〈그림 111〉 생명보험 신용위험계수



주: 왼쪽부터 계, 운용자산 순임
자료: 경영공시

〈그림 112〉 손해보험 신용위험계수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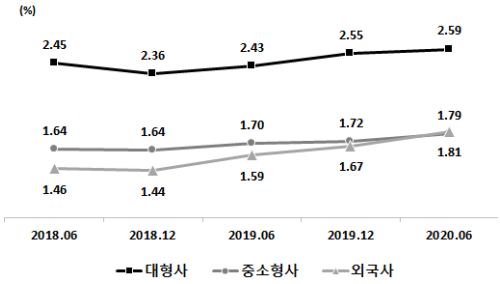
주: 왼쪽부터 계, 운용자산 순임
자료: 경영공시

■ 생명보험의 신용계수는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, 손해보험의 경우 축소로 전환됨

○ 생명보험의 경우 대형사와 중소형사, 외국사 모두 각각 직전 반기 대비 0.04%p, 0.07%p, 0.14%p 상승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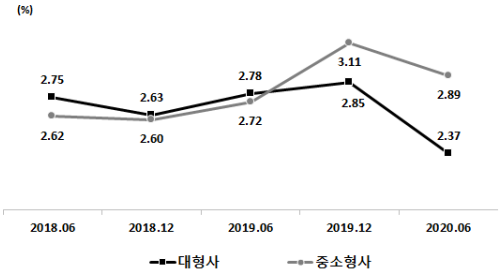
○ 손해보험의 경우 대형사와 중소형사 모두 각각 직전 반기 대비 0.48%p, 0.22%p 하락함

〈그림 113〉 생명보험회사 유형별 운용자산 신용위험계수



자료: 경영공시

〈그림 114〉 손해보험회사 유형별 운용자산 신용위험계수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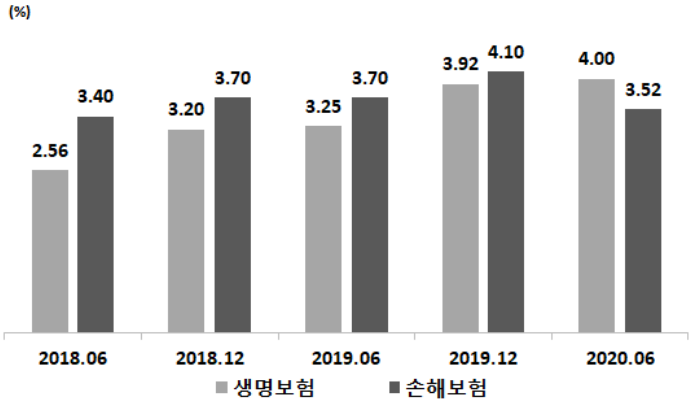
자료: 경영공시

3) 시장위험

■ 2020년 상반기 생명보험 시장위험계수는 상승한 반면, 손해보험은 하락함

○ 생명보험의 경우 퇴직연금의 시장위험액 추가 반영 및 운용자산 증가 등에 따른 시장위험액 증가 등으로 시장위험계수가 상승한 것으로 보임[12)]

〈그림 115〉 시장위험계수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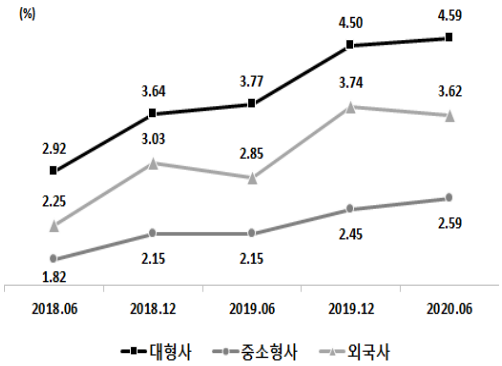
자료: 경영공시

12) 금융감독원 보도자료(2020. 10. 5), "'20. 6월 말 기준 보험회사 RBC비율 현황"

■ 생명보험은 외국사를 제외하고 시장위험계수가 모두 상승한 반면, 손해보험은 모두 하락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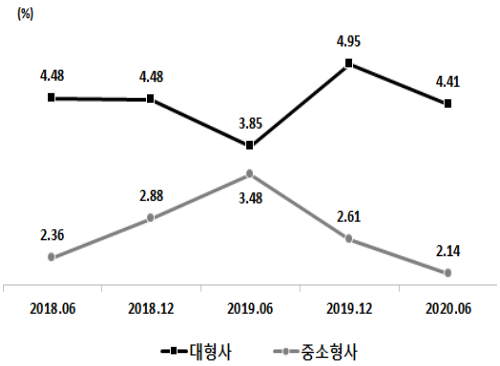
○ 특히 손해보험 중소형사의 시장위험계수는 직전 반기 대비 0.47%p 크게 하락함

〈그림 116〉 생명보험회사 유형별 시장위험계수



자료: 경영공시

〈그림 117〉 손해보험회사 유형별 시장위험계수



자료: 경영공시

라. 생명보험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(LAT: Liability Adequacy Test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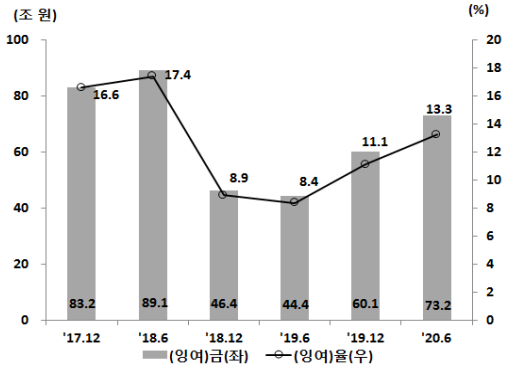
■ 생명보험의 책임준비금 대비 잉여금(평가대상준비금과 LAT 평가액의 차이) 비율은 2020년 6월 말 13.3%로 2019년 12월 말 대비 2.2%p 증가함

○ LAT 잉여율은 2019년 6월 8.4%에서 상승 국면으로 전환됨

■ 회사 유형별로 보면 대형사, 중소형사, 외국사의 LAT 잉여율 추이는 2019년 6월을 기점으로 상승 추세로 전환하였으며, 여전히 외국사가 높고 대형사가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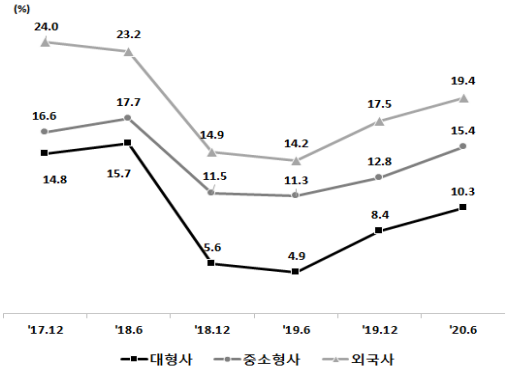
○ 2020년 6월 말 대형사의 LAT 잉여율은 10.3%, 중소형사는 15.4% 그리고 외국사의 경우는 19.4%로 외국사가 LAT 보험부채 이상의 자본을 더 많이 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

〈그림 118〉 생명보험회사 LAT 잉여율



자료: 경영공시

〈그림 119〉 생명보험회사 유형별 LAT 잉여율



자료: 경영공시

4. 시장경쟁

가. 시장점유율

1) 생명보험 시장점유율

■ 2020년 2/4분기 그룹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시장점유율의 경우, 전년 동기 대비 대형사의 시장점유율은 확대된 반면, 중소형사의 시장점유율은 축소됨

○ 대형사의 수입보험료 시장점유율은 47.1%로 전년 동기 대비 0.7%p 증가함

○ 중소형사의 수입보험료 시장점유율은 32.1%로 전년 동기 대비 0.8%p 감소하고, 외국사의 수입보험료 시장점유율은 20.7%로 전년 동기와 비중이 같음

■ 그룹별 생명보험 초회보험료 시장점유율의 경우, 2020년 2/4분기에 대형사와 중소형사의 시장점유율은 전년 동기 대비 확대된 반면 외국사 시장점유율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함

○ 대형사는 일시납 생사혼합보험, 중소형사는 퇴직연금 및 변액보험(변액유니버셜)의 신규판매가 확대되어 시장점유율이 증가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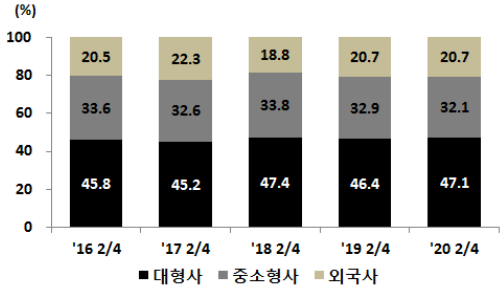
○반면 외국사의 경우 생사혼합보험의 신규판매 감소로 인해 시장점유율이 감소함

■ 2020년 2/4분기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기준 허핀달 지수[13]는 975로 전년 동기 대비 32 하락하였으며, 초회보험료 기준 허핀달 지수는 1,032로 전년 동기 대비 129 상승함

○ 2/4분기에도 대형사의 초회보험료 시장점유율이 확대되면서 초회보험료 기준 허핀달 지수가 상승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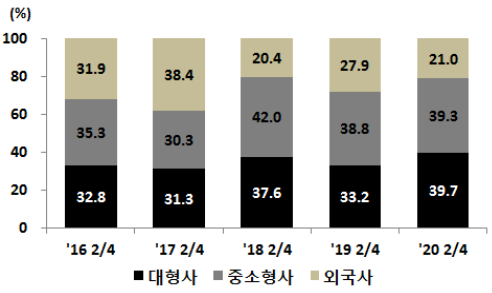
13) 허핀달 지수는 각사 시장점유율 제곱 값을 합한 수치로 시장집중도를 나타내며, 일반적으로 지수가 1,800 이상인 경우 시장이 상당히 집중되어 시장경쟁이 제한적이라고 판단함

〈그림 120〉 생명보험회사 유형별 수입보험료 시장점유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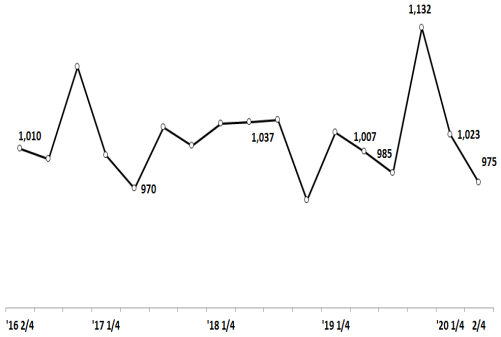
자료: 생명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121〉 생명보험회사 유형별 초회보험료 시장점유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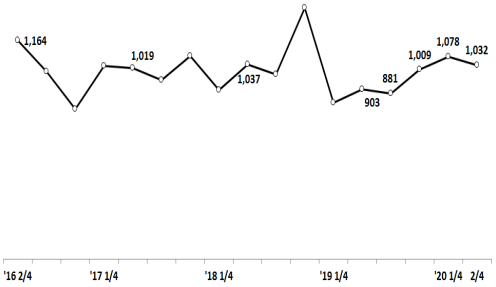
자료: 생명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122〉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기준 허핀달 지수



자료: 생명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123〉 생명보험 초회보험료 기준 허핀달 지수



자료: 생명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2) 손해보험 시장점유율

■ 2020년 2/4분기 손해보험산업의 그룹별 원수보험료 시장점유율의 경우, 대형사 시장점유율이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축소되고 중소형사 시장점유율은 전년 동기 대비 소폭 확대됨

○ 대형사의 원수보험료 기준 시장점유율은 2019년 2/4분기 67.7%에서 2020년 2/4분기 66.9%로 축소된 반면, 같은 기간 중소형사의 시장점유율은 30.1%에서 30.8%로 확대됨

■ 장기손해보험의 그룹별 초회보험료 시장점유율의 경우, 2020년 2/4분기 대형사 시장점유율이 전년 동기 대비 확대되었고, 그에 반해 중소형사 시장점유율은 전년 동기 대비 축소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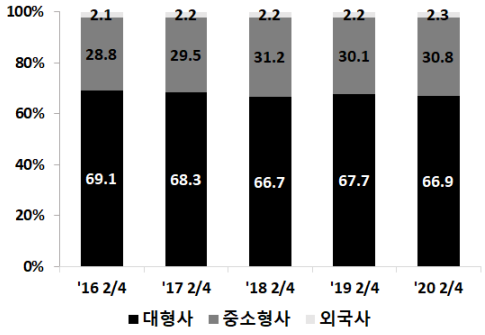
○ 대형사의 장기손해보험 초회보험료 시장점유율은 2020년 2/4분기 61.7%로 전년 동기

대비 10.2%p 확대됨

○ 반면, 중소형사의 장기손해보험 초회보험료 시장점유율은 2020년 2/4분기 36.7%로 전년 동기 대비 10.3%p 축소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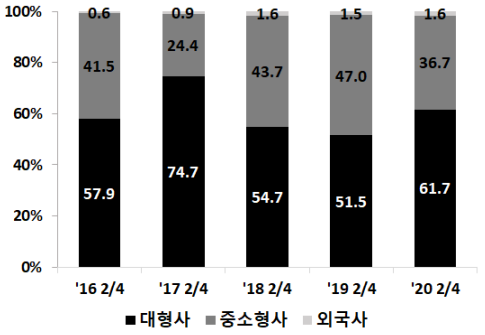
■ 2020년 2/4분기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기준 허핀달 지수는 1,357로 전년 동기 대비 32 하락하였으며, 장기손해보험 초회보험료 기준 허핀달 지수는 1,484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3 하락함

〈그림 124〉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그룹별 시장점유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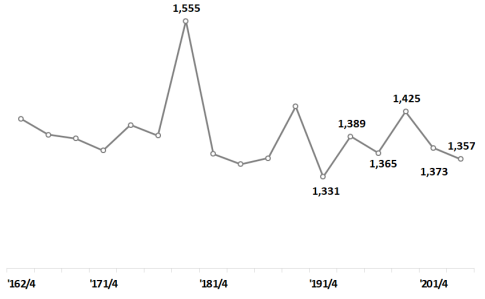
자료: 손해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125〉 장기손해보험 초회보험료 그룹별 시장점유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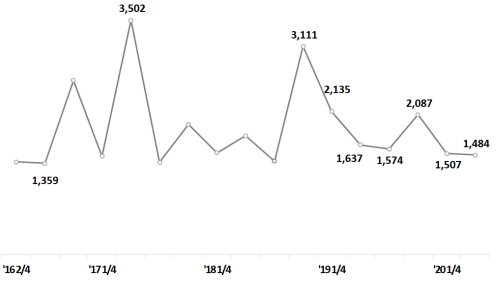
자료: 손해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126〉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기준 허핀달지수



자료: 손해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127〉 장기손해보험 초회보험료 기준 허핀달지수



자료: 생명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나. 판매채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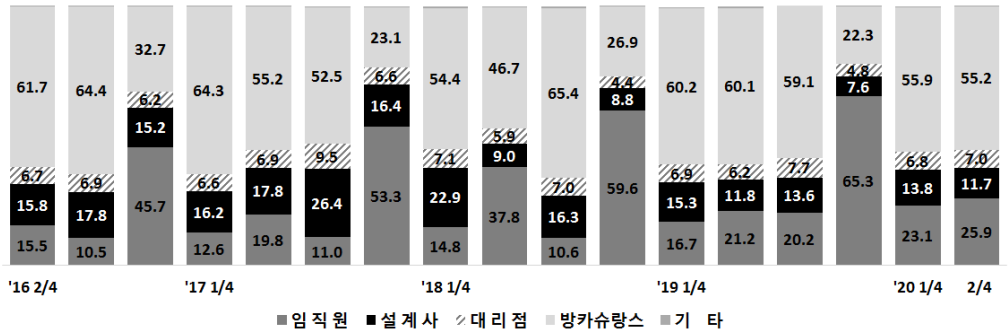
1) 생명보험 판매채널

■ 2/4분기 생명보험 채널별 초회보험료 비중을 보면, 방카슈랑스와 설계사 채널의 비중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반면 임직원 및 대리점 채널의 비중은 증가함

○ 방카슈랑스와 설계사 채널의 초회보험료 비중은 각각 55.2%, 11.7%로 전년 동기 대비 4.9%p, 0.1%p 감소하였고, 임직원과 대리점 채널의 초회보험료 비중은 25.9%, 7.0%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.7%p, 0.8%p 증가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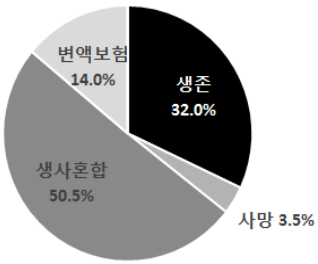
○ 이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채널을 통한 판매 강화 노력이 계속되었기 때문임[14)]

〈그림 128〉 생명보험 판매채널별 초회보험료 비중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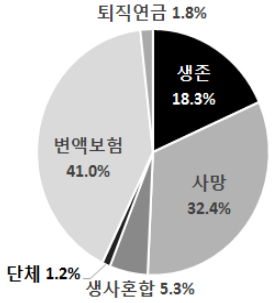
자료: 생명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129〉 방카슈랑스 채널 종목별 비중 (2020년 2/4분기)



자료: 생명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130〉 설계사 채널 종목별 초회보험료 비중 (2020년 2/4분기)



자료: 생명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14) 보험회사의 비대면 채널 실적은 임직원 채널 실적에 포함되며, 대리점 채널의 경우도 비대면 채널이 존재함

2) 손해보험 판매채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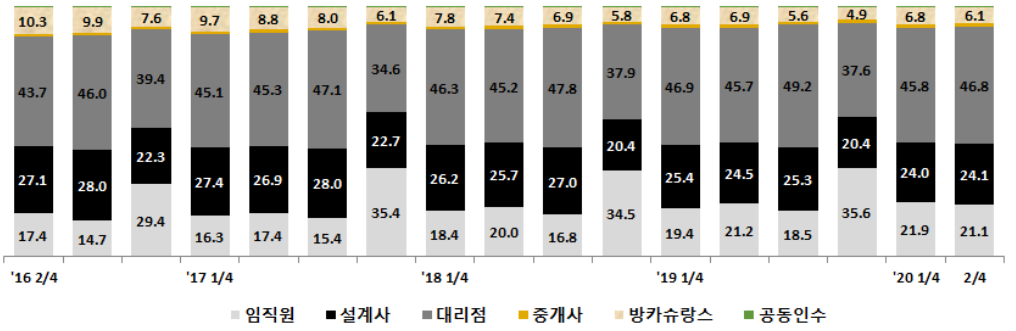
■ 2020년 2/4분기 손해보험의 채널별 원수보험료 비중의 경우, 대리점 채널의 원수보험료 비중은 전년 동기 대비 확대된 반면, 설계사 및 방카슈랑스 채널의 원수보험료 비중은 축소됨

○ 대리점 채널 원수보험료 비중은 46.8%로 전년 동기 대비 1.1%p 증가한 반면, 설계사와 방카슈랑스 채널 원수보험료 비중은 24.1%, 6.1%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0.4%p, 0.8%p 감소함

○ 설계사 및 방카슈랑스와 같은 대면 채널의 비중 감소는 코로나19 확산 지속에 따른 영향이 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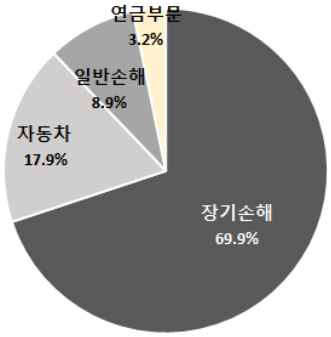
〈그림 131〉 손해보험 판매채널별 원수보험료 비중

(단위: 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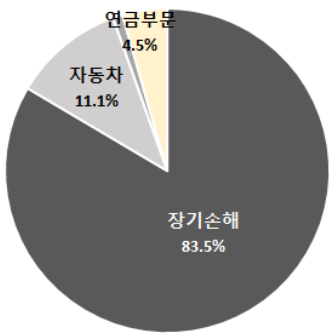
자료: 손해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132〉 대리점 채널 종목별 원수보험료 비중(2020년 2/4분기)



자료: 손해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133〉 설계사 채널 종목별 원수보험료 비중(2020년 2/4분기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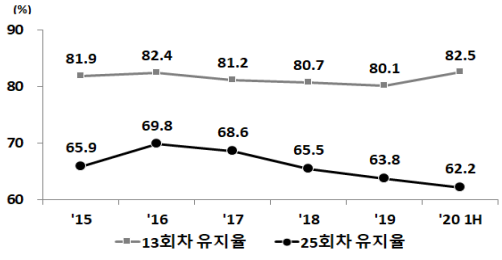
자료: 손해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다. 보험계약 관리

■ 2020년 상반기 13회차 평균 계약유지율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2019년도에 비해 상승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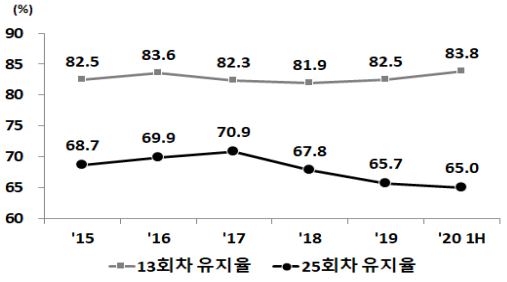
○ 반면, 2020년 상반기 25회차 평균 계약유지율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전년도에 비해 하락함

〈그림 134〉 생명보험 계약유지율



자료: 금융감독원, 보험회사종합공시

〈그림 135〉 손해보험 계약유지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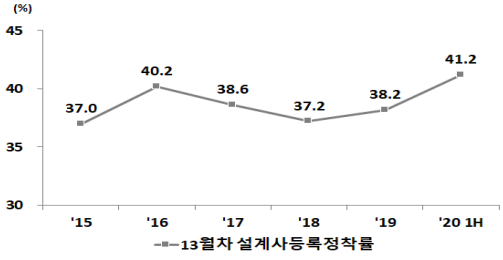


자료: 금융감독원, 보험회사종합공시

■ 2020년 상반기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13월차 설계사 등록 정착률은 모두 전년에 비하여 상승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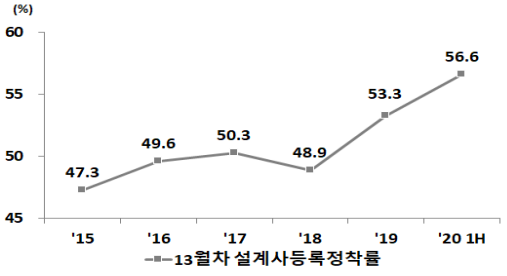
○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13월차 설계사 등록 정착률은 2019년 상승 전환 후 2020년 상반기에도 상승세를 지속함

〈그림 136〉 생명보험 설계사 등록 정착률



자료: 금융감독원, 보험회사종합공시

〈그림 137〉 손해보험 설계사 등록 정착률



자료: 금융감독원, 보험회사종합공시

보험연구원(KIRI) 발간물 안내

※ 2017년부터 기존의 연구보고서, 정책보고서, 경영보고서가 연구보고서로 통합되었습니다.

■ 연구보고서

2017-1 보험산업 미래 / 김석영·윤성훈·이선주 2017.2
2017-2 자동차보험 과실상계제도 개선방안 / 전용식·채원영 2017.2
2017-3 상호협정 관련 입법정책 연구 / 정호열 2017.2
2017-4 저소득층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공사연계연금 연구 / 정원석·강성호·마지혜 2017.3
2017-5 자영업자를 위한 사적소득보상체계 개선방안 / 류건식·강성호·김동겸 2017.3
2017-6 우리나라 사회안전망 개선을 위한 현안 과제 / 이태열·최장훈·김유미 2017.4
2017-7 일본의 보험회사 도산처리제도 및 사례 / 정봉은 2017.5
2017-8 보험회사 업무위탁 관련 제도 개선방안 / 이승준·정인영 2017.5
2017-9 부채시가평가제도와 생명보험회사의 자본관리 / 조영현·이혜은 2017.8
2017-10 효율적 의료비 지출을 통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방안 / 김대환 2017.8
2017-11 인슈어테크 혁명: 현황 점검 및 과제 고찰 / 박소정·박지윤 2017.8
2017-12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역할 제고 방안 / 이기형·이규성 2017.9
2017-13 보험금청구권과 소멸시효 / 권영준 2017.9
2017-14 2017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/ 동향분석실 2017.10
2017-15 2018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/ 동향분석실 2017.11
2017-16 퇴직연금 환경변화와 연금세제 개편 방향 / 강성호·류건식·김동겸 2017.12
2017-17 자동차보험 한방진료 현황과 개선방안 / 송윤아·이소양 2017.12
2017-18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후소득 / 최장훈·이태열·김미화 2017.12
2017-19 연금세제 효과연구 / 정원석·이선주 2017.12
2017-20 주요국의 지진보험 운영 현황 및 시사점 / 최창희·한성원 2017.12
2017-21 사적연금의 장기연금수령 유도방안 / 김세중·김유미 2017.12
2017-22 누적전망이론을 이용한 생명보험과 연금의 유보가격 측정 연구 / 지홍민 2017.12
2018-1 보증연장 서비스 규제 방안 / 백영화·박정희 2018.1
2018-2 건강생활서비스 공·사 협력 방안 / 조용운·오승연·김동겸 2018.2
2018-3 퇴직연금 가입자교육 개선 방안 / 류건식·강성호·이상우 2018.2
2018-4 IFRS 9과 보험회사의 ALM 및 자산배분 / 조영현·이혜은 2018.2
2018-5 보험상품 변천과 개발 방향 / 김석영·김세영·이선주 2018.2
2018-6 계리적 관점에서 본 실손의료보험 개선 방안 / 조재린·정성희 2018.3
2018-7 국내 보험회사의 금융겸업 현황과 시사점 / 전용식·이혜은 2018.3
2018-8 장애인의 위험보장 강화 방안 / 오승연·김석영·이선주 2018.4

2018-9 주요국 공·사 건강보험 연계 체계 분석 / 정성희·이태열·김유미 2018.4
2018-10 정신질환 위험보장 강화 방안 / 이정택·임태준·김동겸 2018.4
2018-11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방안 / 황현아·백영화·권오경 2018.8
2018-12 2018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/ 동향분석실 2018.9
2018-13 상속법의 관점에서 본 생명보험 / 최준규 2018.9
2018-14 호주 퇴직연금제도 현황과 시사점 / 이경희 2018.9
2018-15 빅데이터 기반의 사이버위험 측정 방법 및 사이버사고 예측모형 연구 / 이진무 2018.9
2018-16 빅데이터 분석에 의한 요율산정 방법 비교: 실손의료보험 적용 사례 / 이항석 2018.9
2018-17 보험 모집 행위의 의미 및 범위에 대한 검토 / 백영화·손민숙 2018.10
2018-18 보험회사 해외채권투자와 환헤지 / 황인창·임준환·채원영 2018.10
2018-19 베트남 생명보험산업의 현황 및 시사점 / 조용운·김동겸 2018.10
2018-20 여성 관련 연금정책 평가와 개선 방향 / 강성호·류건식·김동겸 2018.10
2018-21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이버보험 역할제고 방안 / 임준·이상우·이소양 2018.11
2018-22 인구 고령화와 일본 보험산업 변화 / 윤성훈·김석영·한성원·손민숙 2018.11
2018-23 퇴직연기금 디폴트 옵션 도입 방안 및 부채연계투자전략에 관한 연구 / 성주호 2018.11
2018-24 보험 산업의 블록체인 활용: 점검 및 대응 / 김헌수·권혁준 2018.11
2018-25 생명보험산업의 금리위험 평가: 보험부채 중심으로 / 임준환·최장훈·한성원 2018.11
2018-26 보험회사의 장수위험에 관한 연구 / 김세중·김유미 2018.11
2018-27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: 2019년 및 중장기 / 동향분석실 2018.11
2018-28 보험산업 중장기 전망 / 전용식·김유미·최예린 2018.12
2018-29 빅데이터 활용 현황과 개선 방안 / 최창희·홍민지 2018.12
2018-30 판매채널 변화가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/ 정원석·김석영·박정희 2018.12
2018-31 Solvency II 시행 전후 유럽보험시장과 시사점 / 김해식 2018.12
2018-32 보험회사 대출채권 운용의 특징과 시사점 / 조영현·황인창·이혜은 2018.12
2019-1 보험회사의 시스템리스크에 대한 고찰 / 김범 2019.1
2019-2 인도 보험시장 현황 및 진출 전략 / 이승준·정인영 2019.8
2019-3 2019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/ 금융소비자연구실 2019.10
2019-4 암보험 관련 주요 분쟁사례 연구 / 백영화·박정희 2019.10
2019-5 계약자 신뢰 제고를 위한 보험마케팅 - 상품과 수수료 중심으로 - / 정세창 2019.10
2019-6 생명보험 전매거래에 관한 연구 / 홍지민 2019.10
2019-7 재보험 출재전략 연구 / 김석영·이규성 2019.11
2019-8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수급권보호 방안 / 류건식·강성호·이상우 2019.11
2019-9 금융소비자보호법의 도입과 정책과제 / 양승현·손민숙 2019.11
2019-10 2020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/ 동향분석실 2019.12
2019-11 노인장기요양서비스 현황과 보험회사의 역할 제고 방향 / 강성호·김혜란 2019.12
2019-12 보험회사의 이익조정에 관한 시사점 / 송인정 2019.12

2019-13 비대면채널 활용을 위한 규제 개선방안 / 정원석·김석영·정인영 2019.12
2020-1 기업의 보험수요에 대한 연구 / 송윤아·한성원 2020.1
2020-2 원리금보장형 퇴직연금 요구자본 강화와 퇴직연금 관리 / 김세중·김혜란 2020.4
2020-3 의료배상책임의 현황과 과제: 보상체계 중심으로 / 정성희·황현아·홍민지 2020.6
2020-4 일본 생명보험설계사의 지위와 조직운영 / 정봉은·이창성 2020.8
2020-5 예금보험 및 정리제도 개선방안 / 황인창·김해식·이승준·김동겸·안소영 2020.9
2020-6 보험영업 생태계 건전화를 위한 법인보험대리점 혁신방안 / 정세창·김대환 2020.9
2020-7 보험회사 경영자에 대한 보상체계 연구 / 한상용·문혜정 2020.10

■ 연구보고서(구)

2008-1 보험회사의 리스크 중심 경영전략에 관한 연구 / 최영목·장동식·김동겸 2008.1
2008-2 한국 보험시장과 공정거래법 / 정호열 2008.6
2008-3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자산운용 / 류건식·이경희·김동겸 2008.3
2009-1 보험설계사의 특성분석과 고능률화 방안 / 안철경·권오경 2009.1
2009-2 자동차사고의 사회적 비용 최소화 방안 / 기승도 2009.2
2009-3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의 진단과 평가 / 유경원·이혜은 2009.3
2009-4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제고 방안 / 류건식·이창우·김동겸 2009.3
2009-5 일반화선형모형(GLM)을 이용한 자동차보험 요율상대도 산출 방법 연구 / 기승도·김대환 2009.8
2009-6 주행거리에 연동한 자동차보험제도 연구 / 기승도·김대환·김혜란 2010.1
2010-1 우리나라 가계 금융자산 축적 부진의 원인과 시사점 / 유경원·이혜은 2010.4
2010-2 생명보험 상품별 해지율 추정 및 예측 모형 / 황진태·이경희 2010.5
2010-3 보험회사 자산관리서비스 사업모형 검토 / 진 익·김동겸 2010.7

■ 정책보고서(구)

2008-2 환경오염리스크관리를 위한 보험제도 활용방안 / 이기형 2008.3
2008-3 금융상품의 정의 및 분류에 관한 연구 / 유지호·최 원 2008.3
2008-4 2009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/ 이진면·이태열·신종협·황진태·유진아·김세환·이정환·박정희·김세중·최이섭 2008.11
2009-1 현 금융위기 진단과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제언 / 진 익·이민환·유경원·최영목·최형선·최 원·이경아·이혜은 2009.2
2009-2 퇴직연금의 급여 지급 방식 다양화 방안 / 이경희 2009.3
2009-3 보험분쟁의 재판외적 해결 활성화 방안 / 오영수·김경환·이종욱 2009.3
2009-4 2010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/ 이진면·황진태·변혜원·이경희·이정환·박정희·김세중·최이섭 2009.12

2009-5 금융상품판매전문회사의 도입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 / 안철경·변혜원·권오경 2010.1
2010-1 보험사기 영향요인과 방지방안 / 송윤아 2010.3
2010-2 2011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/ 이진면·김대환·이경희·이정환·최 원·김세중·최이섭 2010.12
2011-1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 개선방안 / 오영수·안철경·변혜원·최영목·최형선·김경환·이상우·박정희·김미화 2010.4
2011-2 일반공제사업 규제의 합리화 방안 / 오영수·김경환·박정희 2011.7
2011-3 퇴직연금 적립금의 연금전환 유도방안 / 이경희 2011.5
2011-4 저출산·고령화와 금융의 역할 / 윤성훈·류건식·오영수·조용운·진 익·유진아·변혜원 2011.7
2011-5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유통채널 개선방안 / 안철경·이경희 2011.11
2011-6 2012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/ 윤성훈·황진태·이정환·최 원·김세중·오병국 2011.12
2012-1 인적사고 보험금의 지급방식 다양화 방안 / 조재린·이기형·정인영 2012.8
2012-2 보험산업 진입 및 퇴출에 관한 연구 / 이기형·변혜원·정인영 2012.10
2012-3 금융위기 이후 보험규제 변화 및 시사점 / 임준환·유진아·이경아 2012.11
2012-4 소비자중심의 변액연금보험 개선방안 연구: 공시 및 상품설계 개선을 중심으로 / 이기형·임준환·김해식·이경희·조영현·정인영 2012.12
2013-1 생명보험의 자살면책기간이 자살에 미치는 영향 / 이창우·윤상호 2013.1
2013-2 퇴직연금 지배구조체계 개선방안 / 류건식·김대환·이상우 2013.1
2013-3 2013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/ 윤성훈·전용식·이정환·최 원·김세중· 채원영 2013.2
2013-4 사회안전망 체제 개편과 보험산업 역할 / 진 익·오병국·이성은 2013.3
2013-5 보험지주회사 감독체계 개선방안 연구 / 이승준·김해식·조재린 2013.5
2013-6 2014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/ 윤성훈·전용식·최 원·김세중·채원영 2013.12
2014-1 보험시장 경쟁정책 투명성 제고방안 / 이승준·강민규·이해랑 2014.3
2014-2 국내 보험회사 지급여력규제 평가 및 개선방안 / 조재린·김해식·김석영 2014.3
2014-3 공·사 사회안전망의 효율적인 역할 제고 방안 / 이태열·강성호·김유미 2014.4
2014-4 2015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/ 윤성훈·김석영·김진억·최 원·채원영·이아름·이해랑 2014.11
2014-5 의료보장체계 합리화를 위한 공·사건강보험 협력방안 / 조용운·김경환· 김미화 2014.12
2015-1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규제 - IFRS와 RBC 연계방안 / 김해식·조재린·이경아 2015.2
2015-2 2016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/ 윤성훈·김석영·김진억·최 원·채원영·이아름·이해랑 2015.11
2016-1 정년연장의 노후소득 개선 효과와 개인연금의 정책방향 / 강성호·정봉은·김유미 2016.2
2016-2 국민건강보험 보장률 인상 정책 평가: DSGE 접근법 / 임태준·이정택·김혜란 2016.11
2016-3 2017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/ 동향분석실 2016.12

■ 경영보고서(구)

2009-1 기업휴지보험 활성화 방안 연구 / 이기형·한상용 2009.3
2009-2 자산관리서비스 활성화 방안 / 진 익 2009.3
2009-3 탄소시장 및 녹색보험 활성화 방안 / 진 익·유시용·이경아 2009.3
2009-4 생명보험회사의 지속가능성장에 관한 연구 / 최영목·최 원 2009.6
2010-1 독립판매채널의 성장과 생명보험회사의 대응 / 안철경·권오경 2010.2
2010-2 보험회사의 윤리경영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/ 오영수·김경환 2010.2
2010-3 보험회사의 퇴직연금사업 운영전략 / 류건식·이창우·이상우 2010.3
2010-4(1) 보험환경변화에 따른 보험산업 성장방안 / 산업연구실·정책연구실· 동향분석실 2010.6
2010-4(2) 종합금융서비스를 활용한 보험산업 성장방안 / 금융제도실·재무연구실 2010.6
2010-5 변액보험 보증리스크관리연구 / 권용재·장동식·서성민 2010.4
2010-6 RBC 내부모형 도입 방안 / 김해식·최영목·김소연·장동식·서성민 2010.10
2010-7 금융보증보험 가격결정모형 / 최영수 2010.7
2011-1 보험회사의 비대면채널 활용방안 / 안철경·변혜원·서성민 2011.1
2011-2 보증보험의 특성과 리스크 평가 / 최영목·김소연·김동겸 2011.2
2011-3 충성도를 고려한 자동차보험 마케팅전략 연구 / 기승도·황진태 2011.3
2011-4 보험회사의 상조서비스 기여방안 / 황진태·기승도·권오경 2011.5
2011-5 사기성클레임에 대한 최적조사방안 / 송윤아·정인영 2011.6
2011-6 민영의료보험의 보험리스크관리방안 / 조용운·황진태·김미화 2011.8
2011-7 보험회사의 개인형 퇴직연금 운영방안 / 류건식·김대환·이상우 2011.9
2011-8 퇴직연금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영방안 / 김대환·류건식·이상우 2011.10
2012-1 국내 생명보험회사의 기업공개 평가와 시사점 / 조영현·전용식·이혜은 2012.7
2012-2 보험산업 비전 2020 : ⓝ sure 4.0 / 진 익·김동겸·김혜란 2012.7
2012-3 현금흐름방식 보험료 산출의 시행과 과제 / 김해식·김석영·김세영·이혜은 2012.9
2012-4 보험회사의 장수리스크 발생원인과 관리방안 / 김대환·류건식· 김동겸 2012.9
2012-5 은퇴가구의 경제형태 분석 / 유경원 2012.9
2012-6 보험회사의 날씨리스크 인수 활성화 방안: 지수형 날씨보험을 중심으로 / 조재린·황진태·권용재·채원영 2012.10
2013-1 자동차보험시장의 가격경쟁이 손해율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/ 전용식·채원영 2013.3
2013-2 중국 자동차보험 시장점유율 확대방안 연구 / 기승도·조용운·이소양 2013.5
2016-1 뉴 노멀 시대의 보험회사 경영전략 / 임준환·정봉은·황인창·이혜은·김혜란· 정승연 2016.4
2016-2 금융보증보험 잠재 시장 연구: 지방자치단체 자금조달 시장을 중심으로 / 최창희·황인창·이경아 2016.5
2016-3 퇴직연금시장 환경변화와 보험회사 대응방안 / 류건식·강성호· 김동겸 2016.5

■ 조사보고서

2008-1 보험회사 글로벌화를 위한 해외보험시장 조사 / 양성문·김진억·지재원·박정희·김세중 2008.2
2008-2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에 대응한 장기간병보험 운영 방안 / 오영수 2008.3
2008-3 2008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/ 안철경·기승도·이상우 2008.4
2008-4 주요국의 보험상품 판매권유 규제 / 이상우 2008.3
2009-1 2009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/ 안철경·이상우·권오경 2009.3
2009-2 Solvency II의 리스크 평가모형 및 측정 방법 연구 / 장동식 2009.3
2009-3 이슬람 보험시장 진출방안 / 이진면·이정환·최이섭·정중영·최태영 2009.3
2009-4 미국 생명보험 정산거래의 현황과 시사점 / 김해식 2009.3
2009-5 헤지펀드 운용전략 활용방안 / 진 익·김상수·김종훈·변귀영·유시용 2009.3
2009-6 복합금융 그룹의 리스크와 감독 / 이민환·전선애·최 원 2009.4
2009-7 보험산업 글로벌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/ 서대교·오영수·김영진 2009.4
2009-8 구조화금융 관점에서 본 금융위기 분석 및 시사점 / 임준환·이민환·윤건용·최 원 2009.7
2009-9 보험리스크 측정 및 평가 방법에 관한 연구 / 조용운·김세환·김세중 2009.7
2009-10 생명보험계약의 효력상실·해약분석 / 류건식·장동식 2009.8
2010-1 과거 금융위기 사례분석을 통한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전망 / 신종협·최형선·최 원 2010.3
2010-2 금융산업의 영업행위 규제 개선방안 / 서대교·김미화 2010.3
2010-3 주요국의 민영건강보험의 운영체계와 시사점 / 이창우·이상우 2010.4
2010-4 2010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/ 변혜원·박정희 2010.4
2010-5 산재보험의 운영체계에 대한 연구 / 송윤아 2010.5
2010-6 보험산업 내 공정거래규제 조화방안 / 이승준·이종욱 2010.5
2010-7 보험종류별 진료수가 차등적용 개선방안 / 조용운·서대교·김미화 2010.4
2010-8 보험회사의 금리위험 대응전략 / 진 익·김해식·유진아·김동겸 2011.1
2010-9 퇴직연금 규제체계 및 정책방향 / 류건식·이창우·이상우 2010.7
2011-1 생명보험설계사 활동실태 및 만족도 분석 / 안철경·황진태·서성민 2011.6
2011-2 2011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/ 김대환·최 원 2011.5
2011-3 보험회사 녹색금융 참여방안 / 진 익·김해식·김혜란 2011.7
2011-4 의료시장 변화에 따른 민영실손의료보험의 대응 / 이창우·이기형 2011.8
2011-5 아세안 주요국의 보험시장 규제제도 연구 / 조용운·변혜원·이승준·김경환·오병국 2011.11
2012-1 2012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/ 황진태·전용식·윤상호·기승도·이상우·최 원 2012.6
2012-2 일본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체계 특징과 시사점 / 이상우·오병국 2012.12
2012-3 솔벤시 Ⅱ의 보고 및 공시 체계와 시사점 / 장동식·김경환 2012.12
2013-1 2013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/ 전용식·황진태·변혜원·정원석·박선영·이상우·최 원 2013.8
2013-2 건강보험 진료비 전망 및 활용방안 / 조용운·황진태·조재린 2013.9

2013-3 소비자 신뢰 제고와 보험상품 정보공시 개선방안 / 김해식·변혜원· 황진태 2013.12
2013-4 보험회사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관한 연구 / 변혜원·조영현 2013.12
2014-1 주택연금 연계 간병보험제도 도입 방안 / 박선영·권오경 2014.3
2014-2 소득수준을 고려한 개인연금 세제 효율화방안: 보험료 납입단계의 세제방식 중심으로 / 정원석·강성호·이상우 2014.4
2014-3 보험규제에 관한 주요국의 법제연구: 모집채널, 행위 규제 등을 중심으로 / 한기정·최준규 2014.4
2014-4 보험산업 환경변화와 판매채널 전략 연구 / 황진태·박선영·권오경 2014.4
2014-5 거시경제 환경변화의 보험산업 파급효과 분석 / 전성주·전용식 2014.5
2014-6 국내경제의 일본식 장기부진 가능성 검토 / 전용식·윤성훈·채원영 2014.5
2014-7 건강생활관리서비스 사업모형 연구 / 조용운·오승연·김미화 2014.7
2014-8 보험개인정보 보호법제 개선방안 / 김경환·강민규·이해랑 2014.8
2014-9 2014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/ 전용식·변혜원·정원석·박선영·오승연·이상우·최 원 2014.8
2014-10 보험회사 수익구조 진단 및 개선방안 / 김석영·김세중·김혜란 2014.11
2014-11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사업 평가와 제언 / 전용식·조영현·채원영 2014.12
2015-1 보험민원 해결 프로세스 선진화 방안 / 박선영·권오경 2015.1
2015-2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와 생명보험회사의 자본관리 / 조영현·조재린· 김혜란 2015.2
2015-3 국내 배상책임보험 시장 성장 저해 요인 분석 – 대인사고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을 중심으로 – / 최창희·정인영 2015.3
2015-4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 방안 / 이태열·황진태·이선주 2015.3
2015-5 2015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/ 동향분석실 2015.8
2015-6 인구 및 가구구조 변화가 보험 수요에 미치는 영향 / 오승연·김유미 2015.8
2016-1 경영환경 변화와 주요 해외 보험회사의 대응 전략 / 전용식·조영현 2016.2
2016-2 시스템리스크를 고려한 복합금융그룹 감독방안 / 이승준·민세진 2016.3
2016-3 저성장 시대 보험회사의 비용관리 / 김해식·김세중·김현경 2016.4
2016-4 자동차보험 해외사업 경영성과 분석과 시사점 / 전용식·송윤아·채원영 2016.4
2016-5 금융·보험세제연구: 집합투자기구, 보험 그리고 연금세제를 중심으로 / 정원석·임준·김유미 2016.5
2016-6 가용자본 산출 방식에 따른국내 보험회사 지급여력 비교 / 조재린·황인창·이경아 2016.5
2016-7 해외 사례를 통해 본 중·소형 보험회사의 생존전략 / 이태열·김해식·김현경 2016.5
2016-8 생명보험회사의 연금상품 다양화 방안: 종신소득 보장기능을 중심으로 / 김세중·김혜란 2016.6
2016-9 2016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/ 동향분석실 2016.8
2016-10 자율주행자동차 보험제도 연구 / 이기형·김혜란 2016.9
2019-1 자동차보험 잔여시장제도 개선 방향 연구 / 기승도·홍민지 2019.5

■ 이슈보고서

2019-1 실손의료보험 현황과 개선 방안 / 정성희·문혜정 2019.10
2020-1 서울 지역별 아파트 가격 거품 가능성 검토 / 윤성훈 2020.1
2020-2 보험회사 자회사형 GA의 성과와 시사점 / 김동겸 2020.3
2020-3 미국 의료자문제도 현황 및 시사점 / 조용운·정성희·이아름 2020.6
2020-4 일본 생명보험회사의 해외진출과 시사점 / 이상우 2020.6
2020-5 보험산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 / 강성호·정인영 2020.7
2020-6 잔존계약 거래와 시사점 / 김석영·이소양 2020.8
2020-7 온라인 보험마케팅의 모집 행위 판단기준 / 양승현 2020.9
2020-8 일본 생명보험회사 파산 사례 / 윤성훈 2020.9

■ 조사자료집

2014-1 보험시장 자유화에 따른 보험산업 환경변화 / 최 원·김세중 2014.6
2014-2 주요국 내부자본적정성 평가 및 관리 제도 연구 – Own Risk and Solvency Assessment – / 장동식·이정환 2014.8
2015-1 고령층 대상 보험시장 현황과 해외사례 / 강성호·정원석·김동겸 2015.1
2015-2 경증치매자 보호를 위한 보험사의 치매신탁 도입방안 / 정봉은·이선주 2015.2
2015-3 소비자 금융이해력 강화 방안: 보험 및 연금 / 변혜원·이해랑 2015.4
2015-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구조적 변화 / 박대근·박춘원·이항용 2015.5
2015-5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 / 전성주·박선영·김유미 2015.5
2015-6 고령화에 대응한 생애자산관리 서비스 활성화 방안 / 정원석·김미화 2015.5
2015-7 일반 손해보험 요율제도 개선방안 연구 / 김석영·김혜란 2015.12
2018-1 변액연금 최저보증 및 사업비 부과 현황 조사 / 김세환 2018.2
2018-2 리콜 리스크관리와 보험의 역할 / 김세환 2018.12
2018-3 주요국 혼합형 퇴직연금제도 현황과 시사점 / 이상우 2018.12
2020-1 공제보험 현황 조사 / 최창희·홍민지 2020.4

■ 연차보고서

제 1 호 2008년 연차보고서 / 보험연구원 2009.4
제 2 호 2009년 연차보고서 / 보험연구원 2010.3
제 3 호 2010년 연차보고서 / 보험연구원 2011.3
제 4 호 2011년 연차보고서 / 보험연구원 2012.3
제 5 호 2012년 연차보고서 / 보험연구원 2013.3
제 6 호 2013년 연차보고서 / 보험연구원 2013.12
제 7 호 2014년 연차보고서 / 보험연구원 2014.12

제 8 호 2015년 연차보고서 / 보험연구원 2015.12
제 9 호 2016년 연차보고서 / 보험연구원 2017.1
제 10 호 2017년 연차보고서 / 보험연구원 2018.1
제 11호 2018년 연차보고서 / 보험연구원 2019.1
제 12호 2019년 연차보고서 / 보험연구원 2020.1

■ 영문발간물

제 7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8 / KIRI, 2008.9
제 8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9 / KIRI, 2009.9
제 9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0 / KIRI, 2010.8
제10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1 / KIRI, 2011.10
제11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2 / KIRI, 2012.11
제1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3 / KIRI, 2013.12
제13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4 / KIRI, 2014.8
제14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5 / KIRI, 2015.8
제15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6 / KIRI, 2016.8
제16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7 / KIRI, 2017.8
제17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8 / KIRI, 2018.8
제18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9 / KIRI, 2019.8
제19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20 / KIRI, 2020.8
제 7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3 / KIRI, 2014.2
제 8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3 / KIRI, 2014.5
제 9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4 / KIRI, 2014.8
제10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4 / KIRI, 2014.10
제11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4 / KIRI, 2015.2
제1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4Q FY2014 / KIRI, 2015.4
제13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5 / KIRI, 2015.8
제14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5 / KIRI, 2015.11
제15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5 / KIRI, 2016.2
제16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4Q FY2015/ KIRI, 2016.6
제17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6/ KIRI, 2016.9
제18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6/ KIRI, 2016.12
제19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6/ KIRI, 2017.2
제20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4Q FY2016/ KIRI, 2017.5
제21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7/ KIRI, 2017.9
제2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7/ KIRI, 2017.11

제23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7/ KIRI, 2018.2
제24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4Q FY2017/ KIRI, 2018.5
제25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8/ KIRI, 2018.8
제26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8/ KIRI, 2018.12
제27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8/ KIRI, 2019.2
제28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4Q FY2018/ KIRI, 2019.4
제29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9/ KIRI, 2019.10
제30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9/ KIRI, 2019.12
제31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9/ KIRI, 2020.2
제3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4Q FY2019/ KIRI, 2020.5
제33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20/ KIRI, 2020.9

■ CEO Report

2008-1 자동차보험 물적담보 손해율 관리 방안 / 기승도 2008.6
2008-2 보험산업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 관련 주요 이슈 / 이태열 2008.6
2008-3 FY2008 수입보험료 전망 / 동향분석실 2008.8
2008-4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의 영향과 보험회사 대응과제 / 류건식· 서성민 2008.12
2009-1 FY2009 보험산업 수정전망과 대응과제 / 동향분석실 2009.2
2009-2 퇴직연금 예금보험요율 적용의 타당성 검토 / 류건식·김동겸 2009.3
2009-3 퇴직연금 사업자 관련규제의 적정성 검토 / 류건식·이상우 2009.6
2009-4 퇴직연금 가입 및 인식실태 조사 / 류건식·이상우 2009.10
2010-1 복수사용자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및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/ 김대환·이상우·김혜란 2010.4
2010-2 FY2010 수입보험료 전망 / 동향분석실 2010.6
2010-3 보험소비자 보호의 경영전략적 접근 / 오영수 2010.7
2010-4 장기손해보험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보험금 지급심사제도 개선 / 김대환·이기형 2010.9
2010-5 퇴직금 중간정산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/ 류건식·이상우 2010.9
2010-6 우리나라 신용카드시장의 특징 및 개선논의 / 최형선 2010.11
2011-1 G20 정상회의의 금융규제 논의 내용 및 보험산업에 대한 시사점 / 김동겸 2011.2
2011-2 영국의 공동계정 운영체계 / 최형선·김동겸 2011.3
2011-3 FY2011 수입보험료 전망 / 동향분석실 2011.7
2011-4 근퇴법 개정에 따른 퇴직연금 운영방안과 과제 / 김대환·류건식 2011.8
2012-1 FY2012 수입보험료 전망 / 동향분석실 2012.8
2012-2 건강생활서비스법 제정(안)에 대한 검토 / 조용운·이상우 2012.11
2012-3 보험연구원 명사초청 보험발전 간담회 토론 내용 / 윤성훈·전용식·전성주·채원영 2012.12
2012-4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(Ⅰ): 정책공약집을 중심으로 / 이기형·정인영 2012.12

2013-1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(Ⅱ):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경감제 정책에 대한 평가 / 김대환·이상우 2013.1
2013-2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(Ⅲ):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안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/ 이승준 2013.3
2013-3 FY2013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/ 동향분석실 2013.7
2013-4 유럽 복합금융그룹의 보험사업 매각 원인과 시사점 / 전용식·윤성훈2013.7
2014-1 2014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/ 동향분석실 2014.6
2014-2 인구구조 변화가 보험계약규모에 미치는 영향 분석 / 김석영·김세중 2014.6
2014-3 『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』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/ 이태열·조재린·황진태·송윤아 2014.7
2014-4 아베노믹스 평가와 시사점 / 임준환·황인창·이혜은 2014.10
2015-1 연말정산 논란을 통해 본 소득세제 개선 방향 / 강성호·류건식· 정원석 2015.2
2015-2 2015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/ 동향분석실 2015.6
2015-3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및 이의 영향 / 김석영 2015.10
2016-1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 의미와 시사점 / 김석영 2016.1
2016-3 2016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/ 동향분석실 2016.7
2016-4 EU Solvency Ⅱ 경과조치의 의미와 시사점 / 황인창·조재린 2016.7
2016-5 비급여 진료비 관련 최근 논의 동향과 시사점 / 정성희·이태열 2016.9
2017-1 보험부채 시가평가와 보험산업의 과제 / 김해식 2017.2
2017-2 2017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/ 동향분석실 2017.7
2017-3 1인 1 퇴직연금시대의 보험회사 IRP 전략 / 류건식·이태열 2017.7
2018-1 2018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/ 동향분석실 2018.7
2018-2 북한 보험산업의 이해와 대응 / 안철경·정인영 2018.7
2019-1 기후변화 위험과 보험회사의 대응 방안 / 이승준 2019.4
2019-2 2019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/ 동향분석실 2019.7
2019-3 보험생태계 강화를 위한 과제 / 김동겸·정인영 2019.8
2019-4 저(무)해지 환급형 보험 현황 및 분석 / 김규동 2019.12
2020-1 코로나 19(Covid-19) 영향 및 보험산업 대응과제 / 김해식·조영현·김석영· 노건엽· 황인창·김동겸·손민숙 2020.4
2020-2 2020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/ 동향분석실 2020.6
2020-3 포스트 코로나 전망과 과제: 보험회사 CEO 설문조사 / 동향분석실 2020.7
2020-4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 방안 / 조용운 2020.8
2020-5 보험산업 진단과 과제 (Ⅰ) - 재무건전성 / 김해식·노건엽·황인창 2020.9
2020-6 보험산업 진단과 과제 (Ⅱ) - 사회안전망 / 정성희·송윤아·강성호·기승도· 장윤미 2020.9
2020-7 보험산업 진단과 과제 (Ⅳ) - 보험분쟁과 법제 / 황현아·손민숙 2020.9
2020-8 보험산업 진단과 과제 (Ⅲ) - 소비자 중심 경영 / 변혜원·김석영·손재희· 정인영 2020.10
2020-9 코로나19와 변액보험시장 동향 / 김세중·김유미 2020.11

2020-10 코로나19와 개인 생명보험시장 동향 / 김세중·김혜란 2020.11
2020-11 일본 생명보험회사 파산 사례 / 윤성훈 2020.11
2020-12 보험산업 진단과 과제 (V) - 상품 및 채널 / 김동겸·김석영·정인영 2020.12

■ Insurance Business Report

26호 퇴직연금 중심의 근로자 노후소득보장 과제 / 류건식·김동겸 2008.2
27호 보험부채의 리스크마진 측정 및 적용 사례 / 이경희 2008.6
28호 일본 금융상품판매법의 주요내용과 보험산업에 대한 영향 / 이기형 2008.6
29호 보험회사의 노인장기요양 사업 진출 방안 / 오영수 2008.6
30호 교차모집제도의 활용의향 분석 / 안철경·권오경 2008.7
31호 퇴직연금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영향과 대응과제 / 류건식·김동겸 2008.7
32호 보험회사의 헤지펀드 활용방안 / 진 익 2008.7
33호 연금보험의 확대와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/ 이경희·서성민 2008.9

■ 간행물

○ 보험동향 / 연 4회
○ 해외 보험동향 / 연 4회
○ 보험금융연구 / 연 4회

※ 2008년 이전 발간물은 보험연구원 홈페이지(http://www.kiri.or.kr)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『도서회원 가입안내』

회원 및 제공자료

	법인회원	특별회원	개인회원
연회비	₩300,000원	₩150,000원	₩150,000원
제공자료	- 연구보고서 - 기타보고서 - 연속간행물 · 보험금융연구 · 보험동향 · 해외 보험동향 · KOREA INSURANCE INDUSTRY	- 연구보고서 - 기타보고서 - 연속간행물 · 보험금융연구 · 보험동향 · 해외 보험동향 · KOREA INSURANCE INDUSTRY	- 연구보고서 - 기타보고서 - 연속간행물 · 보험금융연구 · 보험동향 · 해외 보험동향 · KOREA INSURANCE INDUSTRY
	- 영문연차보고서	-	-

※ 특별회원 가입대상 :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

가입문의

보험연구원 도서회원 담당
전화 : (02) 3775 - 9113　팩스 : (02) 3775 - 9102

회비납입방법

- 무통장입금 : 국민은행 (400401 - 01 - 125198)
  예금주 : 보험연구원

가입절차

보험연구원 홈페이지(www.kiri.or.kr)에 접속 후 도서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·등록 후
회비입금을 하시면 확인 후 1년간 회원자격이 주어집니다.

자료구입처

서울 : 보험연구원 자료실 (02-3775-9113 / lsy@kiri.or.kr)

『**보험동향**』 2020년 가을호 (통권 95호)

발행일	2020년 12월
발행인	안 철 경
발행처	보 험 연 구 원
등 록	2016년 10월 7일(등록번호 영등포 바 00140)
주 소	0732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
연락처	대표전화 / 02-3775-9000
인쇄소	경성문화사 / 02-786-2999

ISSN 1228-310X 정가 10,000원

본 자료에 실린 내용에 대한 문의는 보험연구원의
동향분석실(☏3775-9095)로 연락하여 주십시오.